조선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1책

광주 문흥동 유적

1994

조선대학교 박물관
광 주 직 할 시

광주 문흥동 유적

1994

조선대학교 박물관

광 주 직 할 시

《광주 문흥동 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 1 책)

찍은날 1994년 2월 21일
펴낸날 1994년 2월 25일
엮은곳 조선대학교 박물관
광주시 동구 서석동 375
(501－759)
☎ (062) 230－6130, 6133, 6333
인 쇄 삼 화 문 화 사
광주시 동구 서석동 42－2
☎ (062) 222－6660(代)

발 간 사

조선대학교 박물관이 광주시의 요청을 받아, 광주시 북구 문흥동 산 89-5번지의 현장에서 발굴에 착수하게 된 것은 1992년 7월 2일부터이며, 발굴은 40여일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지역은 30여만평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광주시가 택지개발을 위해 먼저 지표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고인돌 2기와 삼국시대를 전후한 시기의 경질토기산포지로 추정된 유적의 발굴을 본 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하여 왔었다.

이에 우리 박물관에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의 시기와 성격이 더 검토되어야겠다는 결론이었지만, 택지개발 공사 사정과 맞물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발굴에 임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발굴 결과 우리들이 예측한대로 고인돌은 자연돌을 잘못 본 것이며, 경질토기산포지는 삼국시대 전후의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전기의 살림터를 입증하는 각종 생활용기, 그리고 건축자재가 폐기된 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질토기산포지로 추정된 지역에서는 5개의 유구가 드러났는데, 이를 요약하면, 1호에서는 몇 개의 적심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집터"라고 추정되었고, 2호는 돌멩이로 쌓은 기단이며, 3호는 구덩이를 파고 건축자재와 생활용기를 버린 폐기장이었으며, 4호는 유구 모양을 보아 원통형 저장움이 아닌가 생각되나 불분명하다. 그리고 5호는 유물을 버린 폐기터로 간주되나 3호처럼 구덩이를 파낸 것 같지는 않다.

어쨌든 이들 유물의 성격을 종합해보면, 첫째, 기와 조각에서 "成化"(1465~1487)라는 절대연대가 발견되어 문흥동에 살던 사람들의 시대가름이 가능했고, 둘째, 백자와 분청조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5·6세기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세째, 조선 전기의 기와, 전돌, 질그릇, 옹기 등이 별로 조사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 당시의 그릇 구성 전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문흥동유적은 발굴된 유물로 보아, 15·6세기의 조선시대에 상당한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이 살던 터전임을 알 수 있었고, 이 시대의 살림살이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끝으로 이 보고서 간행의 전체 작업은 조선대학교 박물관 이기길 교수와 차대웅 연구원이 주관하여 수고하였다. 그리고 발굴을 지도하여 주신 손보기 교수님, 지건길 관장님을 비롯하여, 각 전공 분야별로 참여해 옥고를 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현장에서 수고하였던 사학과 여러 학생들,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시종일관 참여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최상종, 최미노, 김은정, 박수현, 윤정국 군에게도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1994년 2월 17일

조선대학교 박물관장 박 형 관

차 례

발간사(박형관)

문흥동 유적

유적의 발굴(이기길 · 차대웅) ····· 13
1. 조사 경위 ····· 13
2. 발굴 조사 ····· 14
3. 층위와 유구 ····· 19
가. 층위 ····· 19
나. 유구 ····· 19

유물의 분석(이기길)

기와와 전돌 ····· 41
1. 암키와 ····· 41
가. 크기 ····· 41
나. 굳기와 색깔 ····· 43
다. 무늬 ····· 44
2. 수키와 ····· 63
가. 크기 ····· 63
나. 굳기와 색깔 ····· 64
다. 무늬 ····· 65
3. 전돌 ····· 71

질그릇 ····· 75
1. 크기 ····· 76
2. 굳기와 색깔 ····· 78
3. 그릇꼴 ····· 78
가. 전 ····· 79
나. 몸 ····· 84

다. 바닥 ····· 86
라. 뚜껑 ····· 90
4. 무늬 ····· 91
옹기 ····· 93
1. 크기 ····· 93
2. 색깔 ····· 95
3. 그릇꼴 ····· 95
4. 무늬 ····· 99
자기 ····· 101
1. 분청사기 ····· 101
가. 그릇갖춤새 ····· 101
나. 겉면 꾸밈 ····· 102
다. 대표 유물 ····· 102
2. 백자 ····· 110
가. 그릇갖춤새 ····· 110
나. 대접 접시의 굽 나눔 ····· 110
다. 대접 접시의 받침 나눔 ····· 113
라. 대표 유물 ····· 114

기와, 전돌, 질그릇 만든 기술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광물조성(문희수 · 이기길) ····· 123
1. 머리글 ····· 123
2. 시료 고르기 ····· 123
3. 편광현미경 관찰 ····· 124
가. 기와, 전돌의 조직과 모달분석 결과 ····· 124
나. 질그릇의 조직과 모달분석 결과 ····· 139
4. X-선회절분석 ····· 141
가. 기와, 전돌의 광물 조성과 구운온도 ····· 142
나. 질그릇의 광물 조성과 구운온도 ····· 143

5. 고찰 ····· 144
질그릇 전에 대하여(서경석) ····· 149
1. 전 만들기 ····· 149
2. 전과 그릇의 크기 ····· 150
3. 전의 장식성과 기능성 ····· 152

고찰

자기의 성격 ····· 157
1. 자기 출토 현황 ····· 157
2. 종류별 성격 및 제작 시기 ····· 158
가. 분청사기 ····· 158
나. 백자 ····· 161
3. 고찰 ····· 163
유적의 성격(이기길) ····· 165
1. 유물갖춤새의 성격 ····· 165
가. 기와와 전돌 ····· 166
나. 질그릇과 옹기 ····· 167
다. 자기 ····· 168
2. 유적의 시기와 성격 ····· 169
3. 맺음글 ····· 170
English Summary ····· 171

문흥동 유적

유적의 발굴

이밖에도 신지나, 박순남, 최동희, 최은진, 선은순(조선대학교 사학과 2학년), 김선주, 박수현, 이인숙, 진은주, 김정희, 김은정, 김선정, 안희, 박정안(조선대학교 사학과 1학년) 등이 참가하였다.

발굴에 참가하였던 학생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유물의 정리와 등록을 함께 하고 실측과 탑본을 하는 등 발굴 뒤에 이어지는 보고서 준비 작업에 정성을 다하였다. 특히 유구와 유물을 그리고 정리 작업에 앞장선 최상종, 분청사기와 백자를 정리한 최미노, 질그릇과 옹기를 맡은 김은정, 기와와 전돌을 정리한 김선주, 박수현과 윤정국의 도움은 매우 컸다.

발굴을 지도하여 주신 손보기 교수님과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신 지건길 관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올린다. 발굴조사를 하는 동안 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사학과 김봉두, 반윤홍, 김택민, 전지용, 최제우, 이종범 교수님과 김종선 조교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성분을 자연과학 방법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풀이해 준 문희수 교수님, 질그릇 전에 대해 귀한 원고를 쓴 서경석 교수님(조선대학교 산업공예과), 그리고 자기의 분류와 정리, 나아가 성격파악에 도움을 준 강대규 선생님(국립광주박물관)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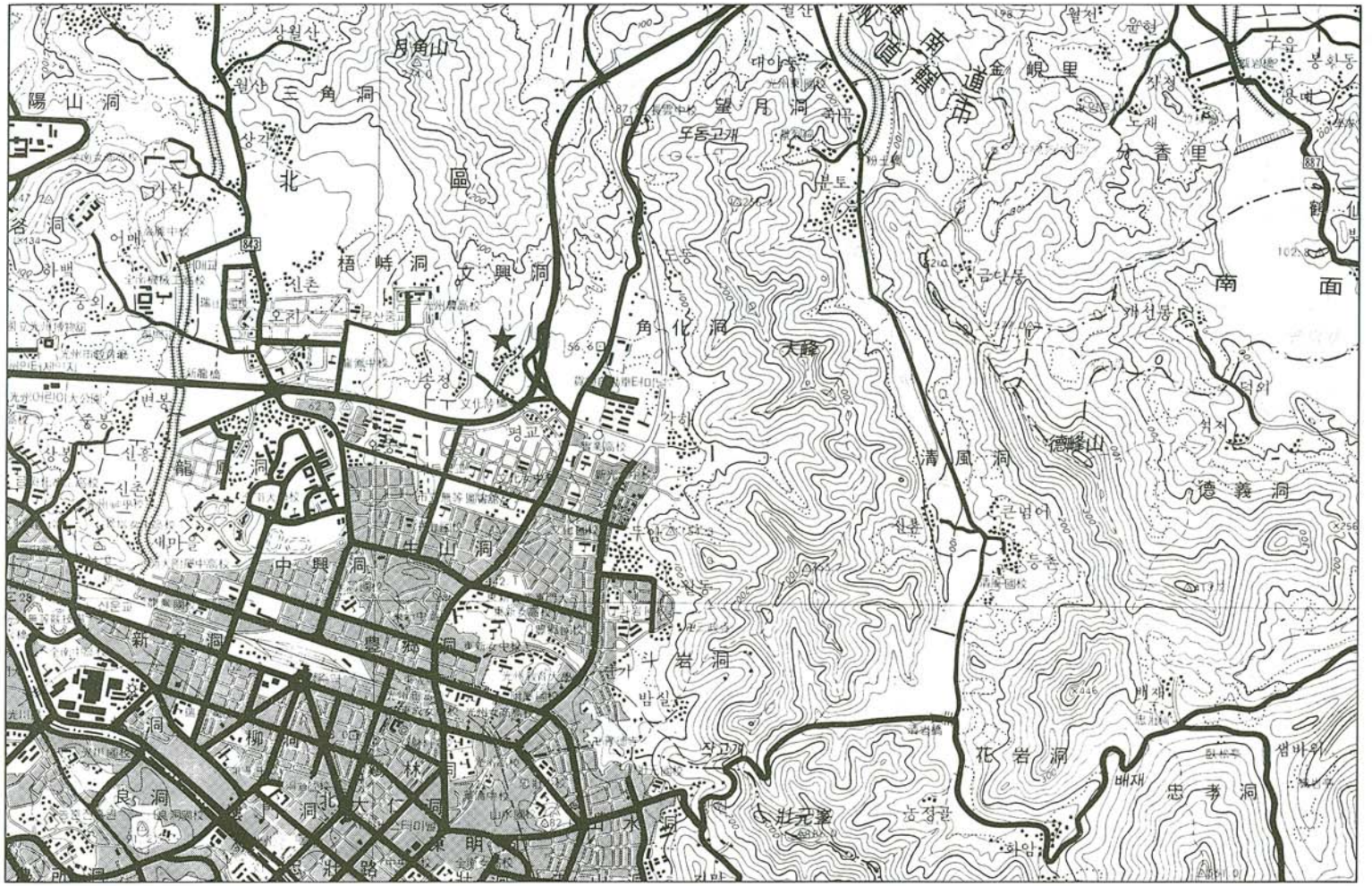
또한 토지개발공사 김박선 현장사무소장과 삼릉건설 관계자의 협조에도 고마움을 표한다. 발굴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를 보내준 목포대학교 이영문 교수님, 국립중앙박물관 성낙준 학예연구관님, 전남대학교 임영진 교수님께 고마운 뜻을 전한다. 끝으로 행정지원을 원만하게 하여준 광주시청 문화재과 한두현 주사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 발굴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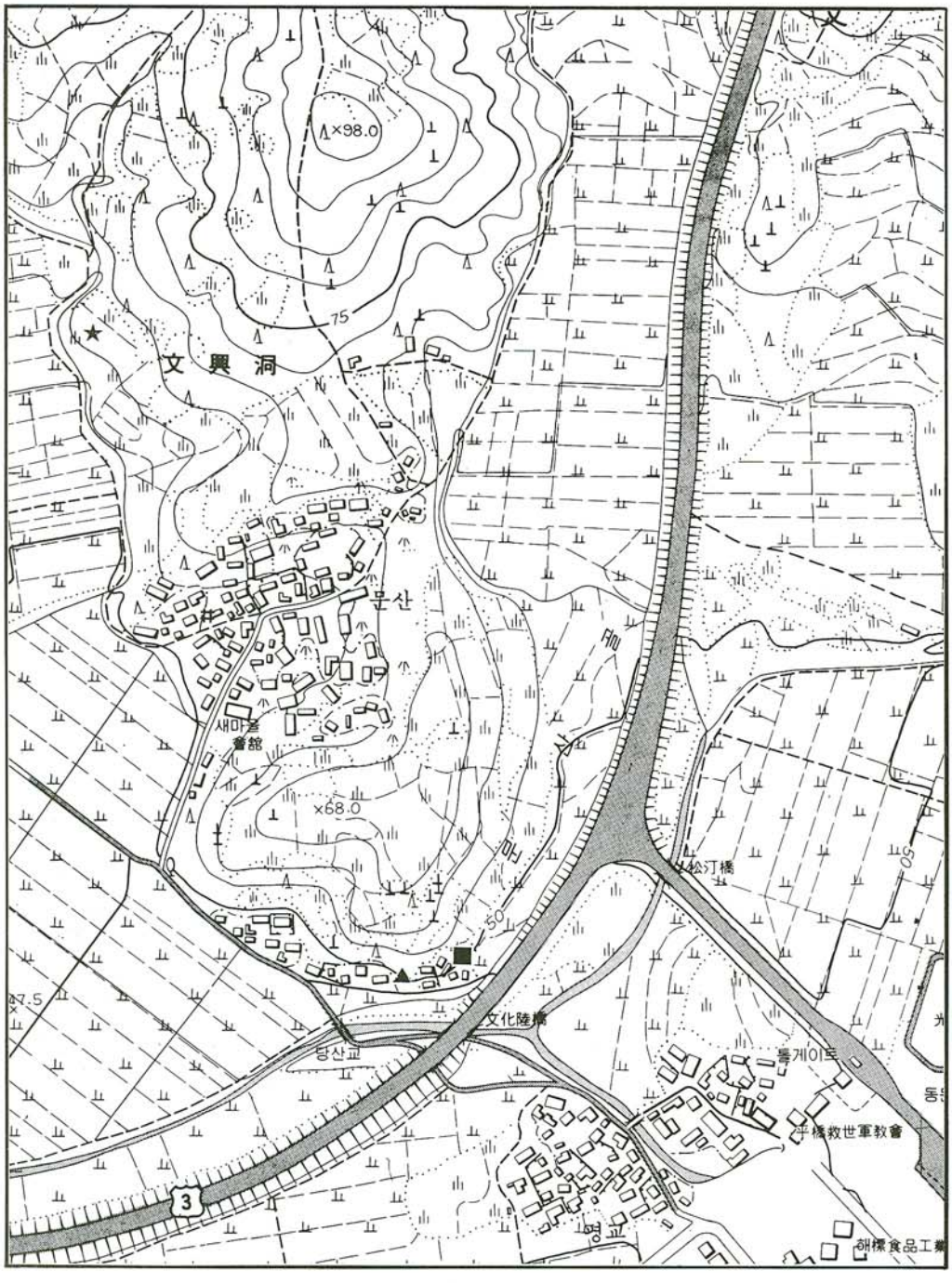
1992년 7월 2일 발굴단이 발굴 현장(광주시 북구 문흥동 산 89－5번지)에 도착하였을 때, "경질토기산포지"로 보고된 포도밭 둘레의 동쪽, 북쪽과 남쪽 지역에서 굴삭기와 불도우저가 산을 깎고 나무숲을 밀며 덤프트럭은 흙을 일정한 높이로 쌓고 있었다. 따라서 발굴 지역은 세 면이 높은 절벽으로 둘러쌓인 형상이었으며, 포도밭에는 어깨 높이까지 자란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었다(사진 1).

이런 상황이어서 발굴 지역 둘레의 본래 지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형도 "광주(1/50,000)"를 참고하면 발굴 지역인 포도밭은 그 뒤에 있는 월각산(274m)에서 이어내린 동남쪽 줄기의 서남향 비탈에 자리하며, 그 앞쪽으로 골짜기를 개간한 논이 펼쳐져있고 작은 개울이 흐른다. 그리고 문산마을은 유적의 남쪽에 있다(지도 1, 2).

발굴하기에 앞서 높이 자란 잡초를 자르고 나니, 포도나무를 뽑아간 구덩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받쳤던 시멘트 기둥과 굵은 철사줄이 군데군데 있어 발굴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것들을 거둬냈다.



〈지도 1〉 문흥동 유적(★)의 자리(1 : 50,000)



〈지도 2〉 경질토기 산포지(★)와 고인돌 유구1(▲), 2(■)로 보고된 지점

이런 작업을 함으로써 발굴할 지역이 드러났는데, 그 크기는 남북방향으로 약 100여m 이고 동서로 50m쯤 되었다. 북쪽가의 높이가 남쪽가보다 1m쯤 높고, 동쪽끝이 서쪽끝보다 3m쯤 높다.

발굴 지역을 측량하기 편한 곳에 기준점을 정하였는데, 위치는 남쪽가에서 34m, 서쪽가에서 19m 안쪽이며, 그 높이는 해발 54.5m 이다. 이 기준점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두 축을 설정하여 기준선으로 삼았는데, 가로축이 남북방향 그리고 세로축이 동서방향에 가깝다. 그래서 가로축은 남북축, 세로축은 동서축으로 이름하고, 이에 따라 발굴지역을 남동·남서·북서·북동의 네 구역으로 나누었다.

유구의 분포를 알아보려고 남북축의 위 아래쪽에 1×4m짜리 시굴구덩 5개와 1×10m짜리 1개, 1×20m짜리 1개를 넣었고, 동서축에 나란하게 1×4m짜리 시굴구덩 2개, 1×5m짜리 1개와 1×11m짜리 1개를 넣었다. 구덩번호는 기준점을 중심하여 남북축과 동서축을 5m씩 끊어 만나는 칸의 이름을 붙였다.

시굴구덩 조사 결과 남1서1칸, 남2서2~남2서4칸, 남2서1~남6서1칸에서는 유물이 나오지 않아 남서구역은 문화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북7동1칸, 북9동1칸, 북11동1칸, 북8동3칸, 북8서1칸, 북11서2칸, 북1동4칸, 남1동4칸에서는 기와와 질그릇 조각이 나와 이들 구역은 구덩을 넓히고 또 더 많이 넣기로 하였다. 그 결과 건물지 1곳, 기단 1곳, 폐기구덩이 1곳, 알 수 없는 유구 2곳을 찾았다(사진 2,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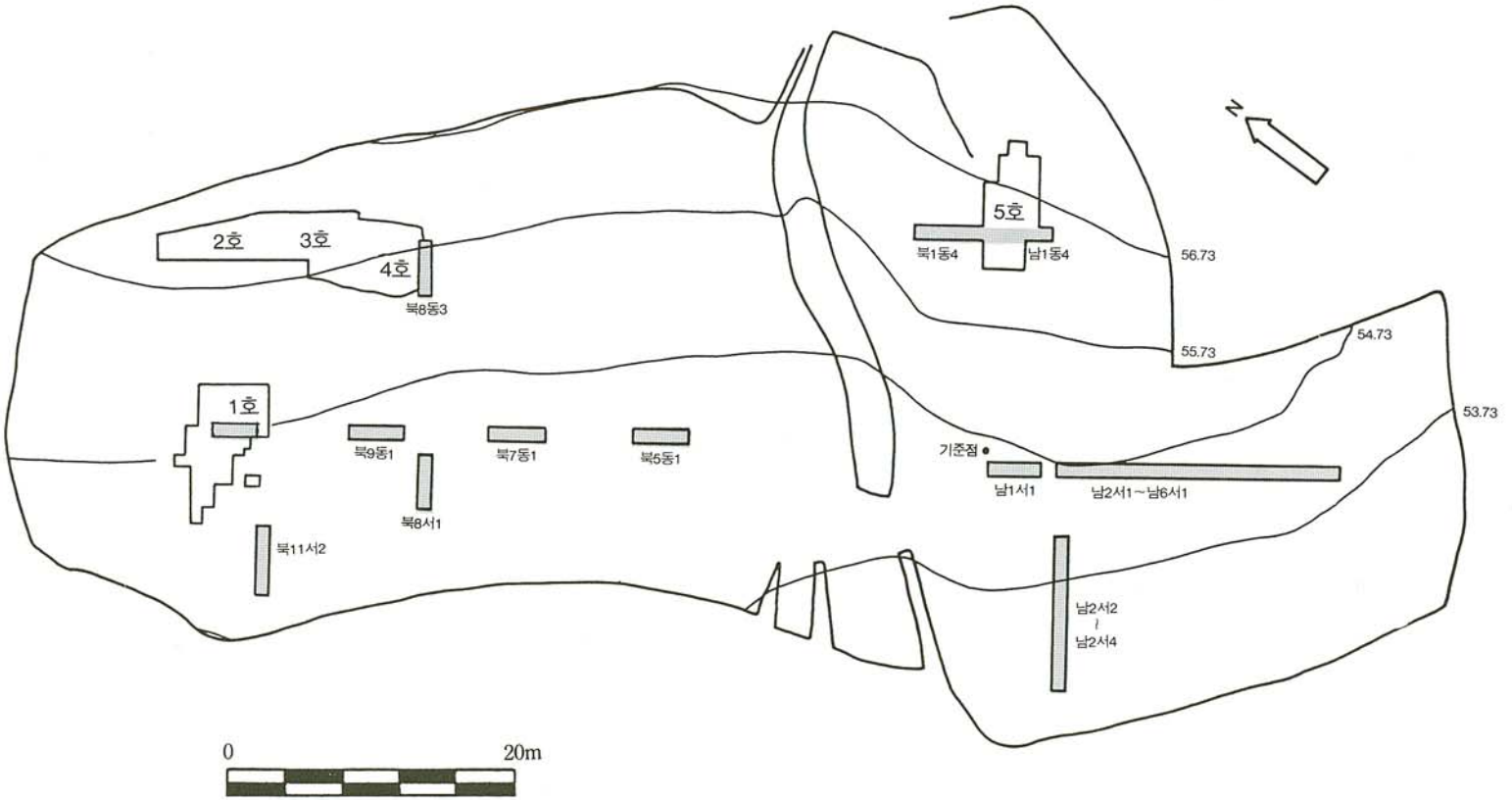
한편 고인돌이 있다고 보고된 지역은 북구 문흥동 292, 363번지인데, 아직 공사하기 전이어서 원래의 상태였다(지도 2 참조).

고인돌 유구 1로 보고된 292번지 일대는 옆에 민가가 있고, 소나무와 대나무 등이 여러 그루 서 있었으며 풀이 무성하였다. 발굴할 수 있게 먼저 나무들을 자르고 풀을 베어냈다. 바위 가운데 큰 것의 크기는 113×71×100cm, 중간 것은 41×26×13cm, 작은 것은 15×12×10cm 이다(사진 3).

바위를 중심으로 동서 6m, 남북 4m의 구덩을 정하고 북쪽 모서리부터 파내려갔다. 검은갈색의 겉흙을 15cm쯤 걷어내니 붉은갈색의 생토가 드러났는데, 북에서 남으로 7~10도쯤 기울어졌다. 지표조사 보고자가 파괴된 덮개돌로 본 바위들과 사람이 만든 흔적을 엿볼 수 있다고 한 줄지어 있는 돌들(金學輝 1991, 38)은 겉흙을 거둬내보니 바위가 풍화되어 생긴 자연 상태의 것들이었다. 바위들의 안쪽에서는 구덩을 판 가장자리선이 찾아지지 않았으며, 둘레에서도 고인돌과 관련된 유물은 드러나지 않았다(사진 4).

고인돌 유구 2로 보고된 363번지 일대는 292번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m 떨어져 있다. 여기에는 부추를 비롯한 밭작물이 심어져 있었는데, 바위 두개와 서너개의 돌들이 드러나있었다. 동쪽에는 포도밭이 자리하고 북쪽은 작은 언덕이며 남쪽은 호남고속도로가 지나간다(사진 5).

지표조사 보고자는 1기를 제외한 나머지 7기는 덮개돌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고인돌 하부로



〈그림 1〉 문흥동 유적의 발굴 구덩과 유구 분포도

보이는 돌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 뒤, 다시 이들 유구가 고인돌 유구인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金學輝 1991, 40).

우리는 드러난 바위와 돌들을 포함하는 구덩(7×5m)을 설정하여 발굴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동쪽에서 9cm쯤부터 생토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50cm씩 내려갈수록 생토는 16cm, 28cm, 37cm, 52cm, 50cm의 깊이에서 나타났고, 생토면은 고르지 않았다. 돌들은 일정한 배열을 보이지 않았으며, 발굴하기 전 모난 돌로 여겨졌던 것은 빙산의 한 모서리처럼 큰 바위의 한 부분이었다. 둘레에서는 고인돌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한점도 찾아지지 않았다(사진 6).

이처럼 지표조사에서 고인돌 유구 1, 2로 보고된 것은 자연의 돌들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경질토기 산포지"로 보고된 지역의 발굴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3. 층위와 유구

가. 층위

유적의 쌓임층은 북8서1칸의 북벽을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나뉜다(그림 2).

1층 : 겉흙층(부식토, 경작토). 두께 7~13cm.

2층 : 흑갈색 모래질찰흙층. 두께 14~25cm.

3층 : 황갈색 찰흙층. 두께 14~33cm. 기와 조각과 돌이 섞여있다. 숯 깔린 면이 있다.

4층 : 회갈색 모래질찰흙층. 두께 21~41cm. 기와 조각과 돌이 있으며, 숯 조각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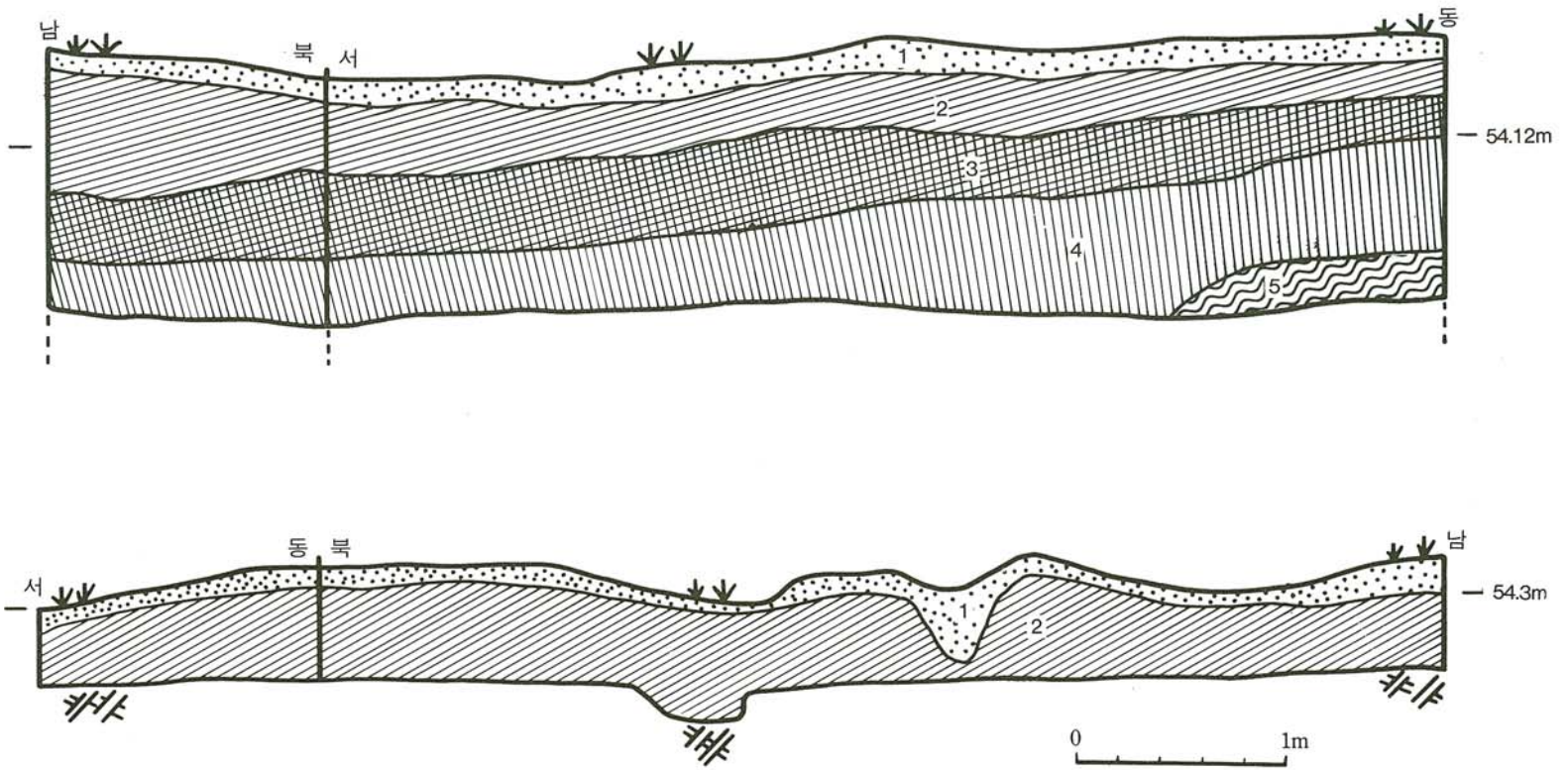
5층 : 황갈색 모래질찰흙층. 두께 15cm 안팎.

5개의 지층 가운데 유물이 나온 곳은 3층과 4층이다. 3층에서는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 자기 조각과 여러 유구가 나왔다. 4층에서도 기와 조각이 나왔는데 그 양은 매우 적지만, 숯이 나온 특징이 있다. 아래에서 유구에 대해 살펴보겠다.

나. 유구

포도밭에서 모두 5개의 유구를 찾았는데, 그것은 건물지 1, 기단 1, 폐기구덩이 1, 쓰임새를 알 수 없는 것 2이다. 건물지는 북쪽 구역에서, 기단과 폐기구덩이 및 알 수 없는 유구 1은 북서구역에서, 알 수 없는 유구 2는 북동 구역에서 드러났다(사진 2, 그림 1 참조).

아래에서 각 유구의 크기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려 한다.



〈그림 2〉 문흥동 유적의 층위(위 : 북8서1 구덩, 아래 : 남1서1 구덩)

(1) 1호

북11동1칸과 북11서1칸을 중심한 지역에서 적심석들과 화덕자리가 드러나고 적은 수의 기와와 그릇들 조각이 함께 나와 "건물터"임을 알 수 있다(그림 3).

적심석의 모습을 한 것은 모두 8개인데 제 모습이 그대로 남은 것은 드물다. 남아있는 적심의 지름이 60cm 안팎인 것은 4개이다. 이같은 크기의 적심 4개는 3~4m쯤 떨어져 있어 한 집을 이룬 기둥자리들로 생각된다. 이 가운데 원 모습이 가장 잘 남은 적심석 하나는 큰 돌(25×15×17cm)과 작은 돌들을 둥글게 한 켜 쌓은 것으로, 지름은 63~71cm이다(사진 7). 나머지 적심들의 크기는 지름이 40cm 안팎이다.

불먹은 흙과 숯이 드러난 화덕자리는 긴원꼴인데, 길이 118cm, 너비 78cm 이며, 가장자리는 7~10cm두께의 테가 10cm의 높이를 이룬다. 이것은 적심석 사이 다시 말하자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자리하므로 집과 관련된 시설인지 아닌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화덕자리에서 서쪽으로 50cm쯤 떨어진 부분(1×0.4m)도 불에 탄 상태이다(사진 8).

(2)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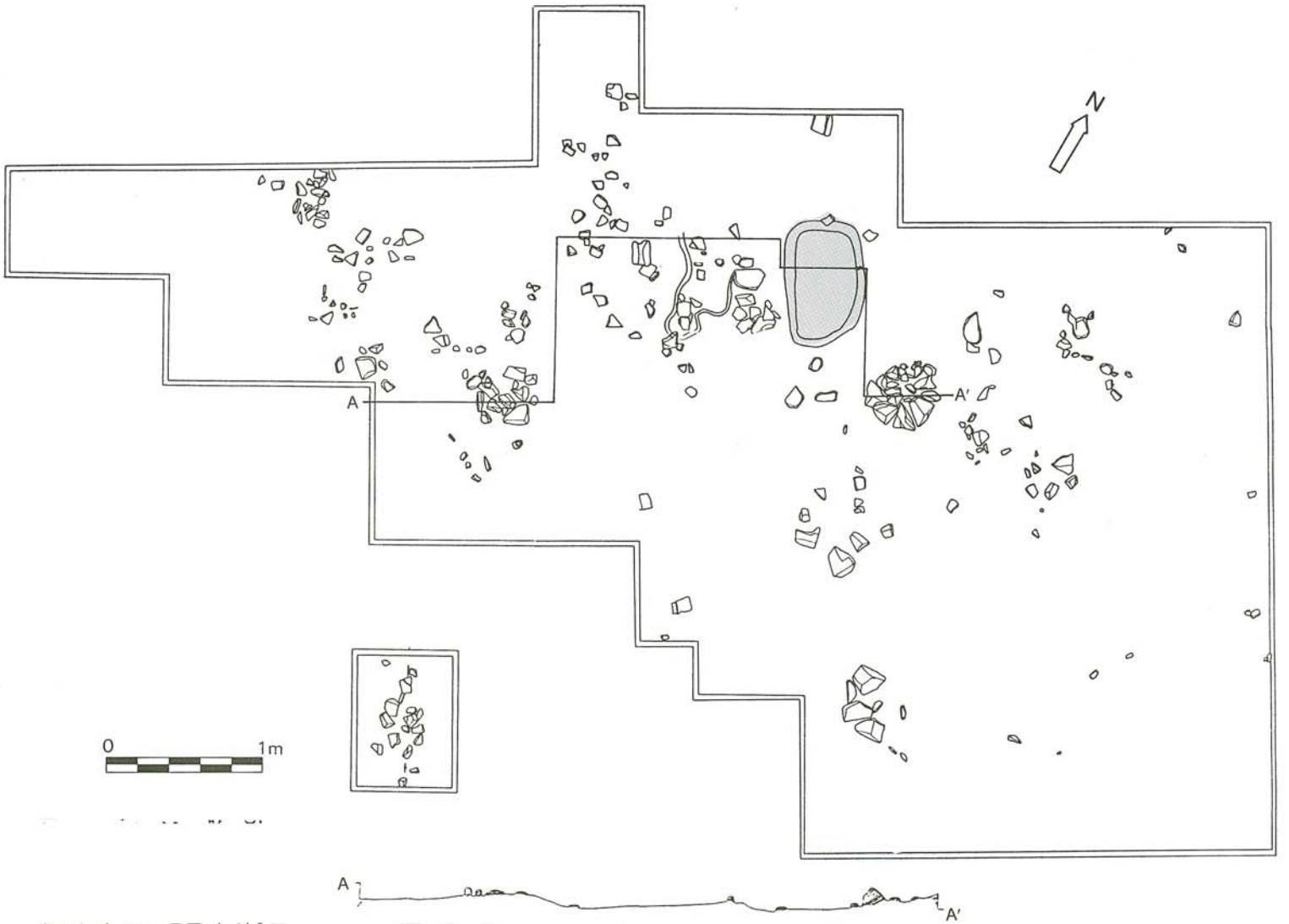
폐기구덩이에 이웃한 북쪽에서 드러났다. 크기가 23×20×20~11×10×10cm쯤 되는 자연석을 조금씩 손질하여 위로 2~3단, 옆으로 3~4줄 쌓았다. 전체 길이는 8.6m에 이르고, 너비는 90cm쯤 되며, 북쪽 끝 높이는 33cm, 남쪽 끝의 높이는 21cm 이다(사진 9, 그림 4). 이런 점에서 이 유구는 "기단"의 일부로 생각된다.

유구의 양쪽 부분은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가운데는 돌멩이가 군데군데 빠져나갔다. 이 유구의 남쪽 가에 크기가 108×60×54cm인 큰 바위가 잇대어 놓여있었다. 유구의 앞 아래쪽에서 기와조각, 질그릇과 자기, 옹기 조각이 적지 않게 나왔으며 윗 부분에서도 조금 나왔다(사진 10). 여기서 나온 유물 가운데 폐기구덩이의 자기와 붙는 것이 10점, 그리고 1호의 질그릇과 붙는 것이 1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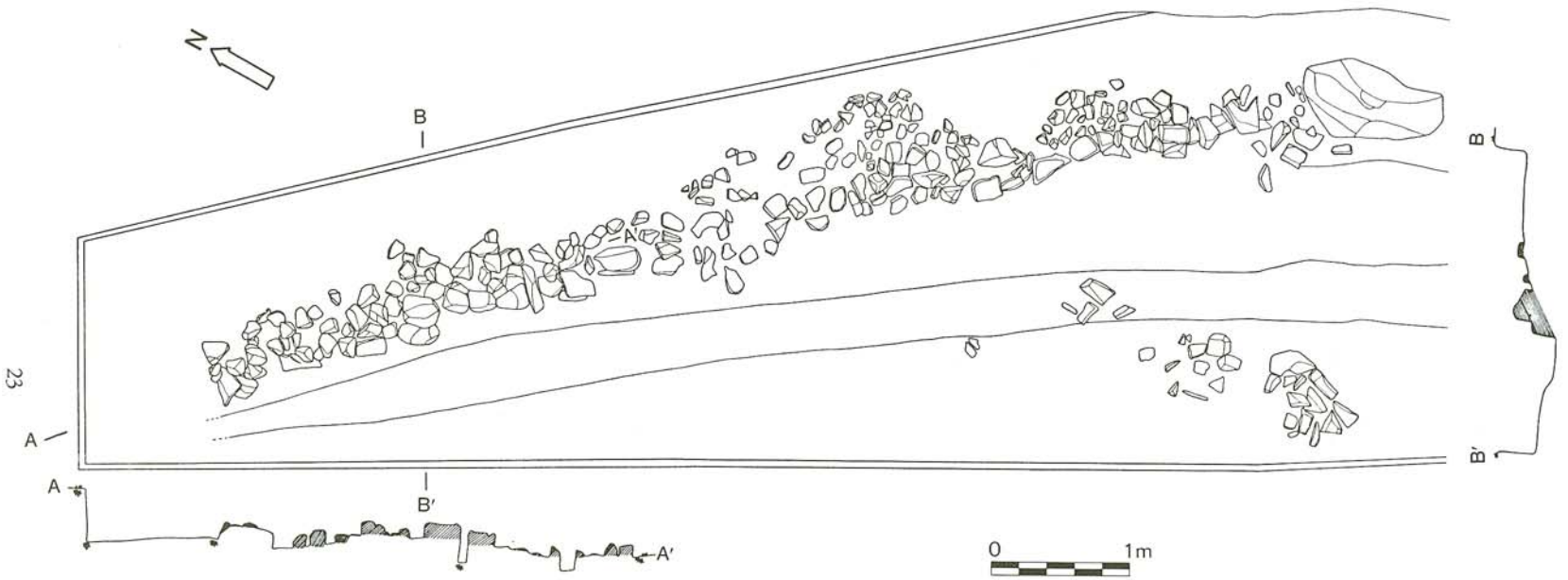
(3) 3호

기단의 남쪽 가에서 시작되어 남쪽 방향으로 길이 약 8m, 너비 약 2m, 깊이 약 0.5m인 구덩이가 드러났다(그림 5). 여기서는 큰 바위 5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돌멩이들과 수많은 기와 조각과 전돌 조각, 질그릇·분청사기·백자·옹기 조각이 나왔다. 특히 가운데 쯤에서는 암키와 22장과 수키와 1장이 차곡차곡 쌓인 채로 드러났는데, 가장 완전한 암키와는 크기가 44.2×34.1×3.1cm이고, 수키와의 크기는 42.6×17.0×2.9cm이다(사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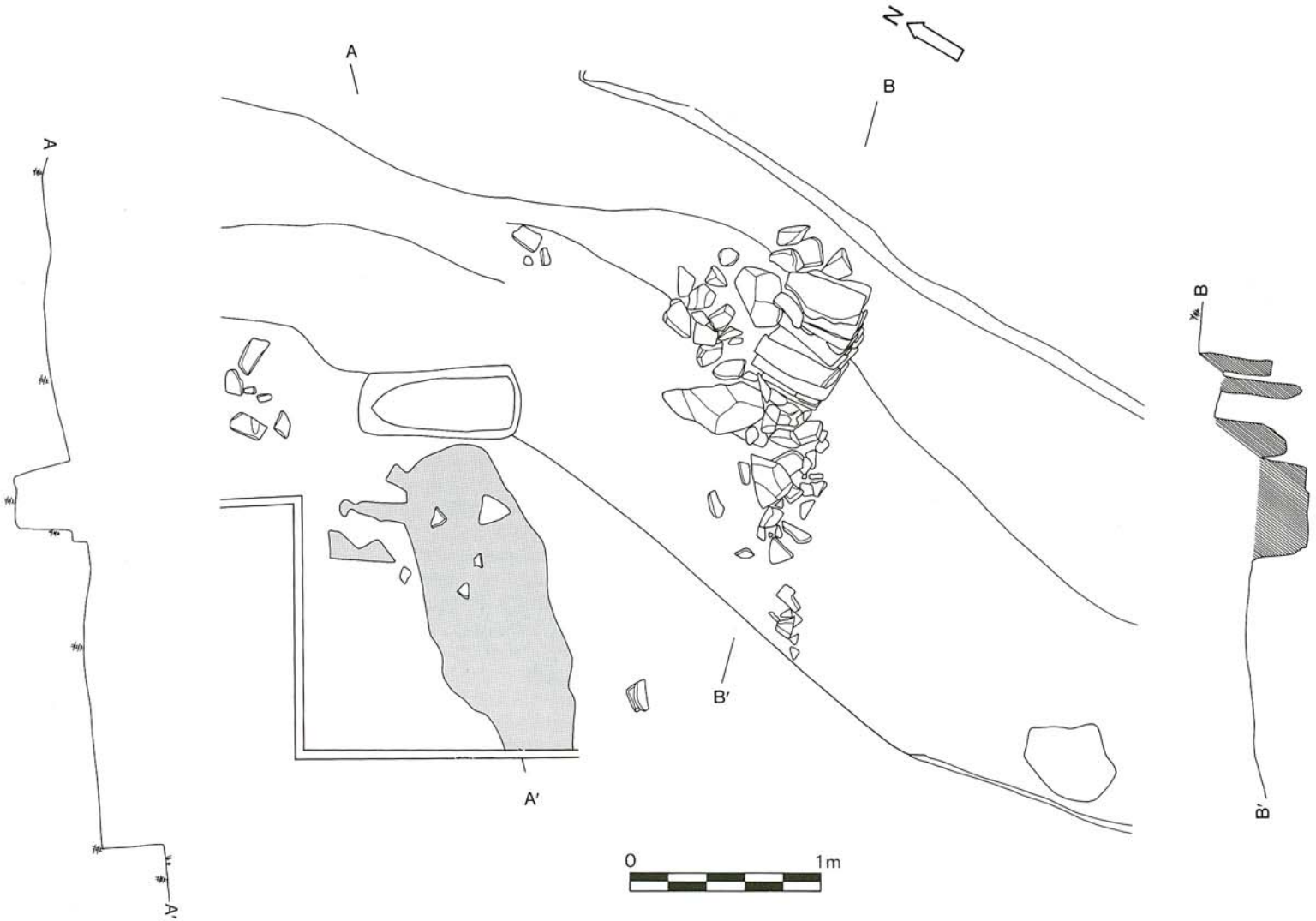
유구의 모습과 거기서 나온 유물의 종류와 상태를 볼 때, 이것은 쓰던 건축자재와 생활용기를 버린 "폐기 구덩이"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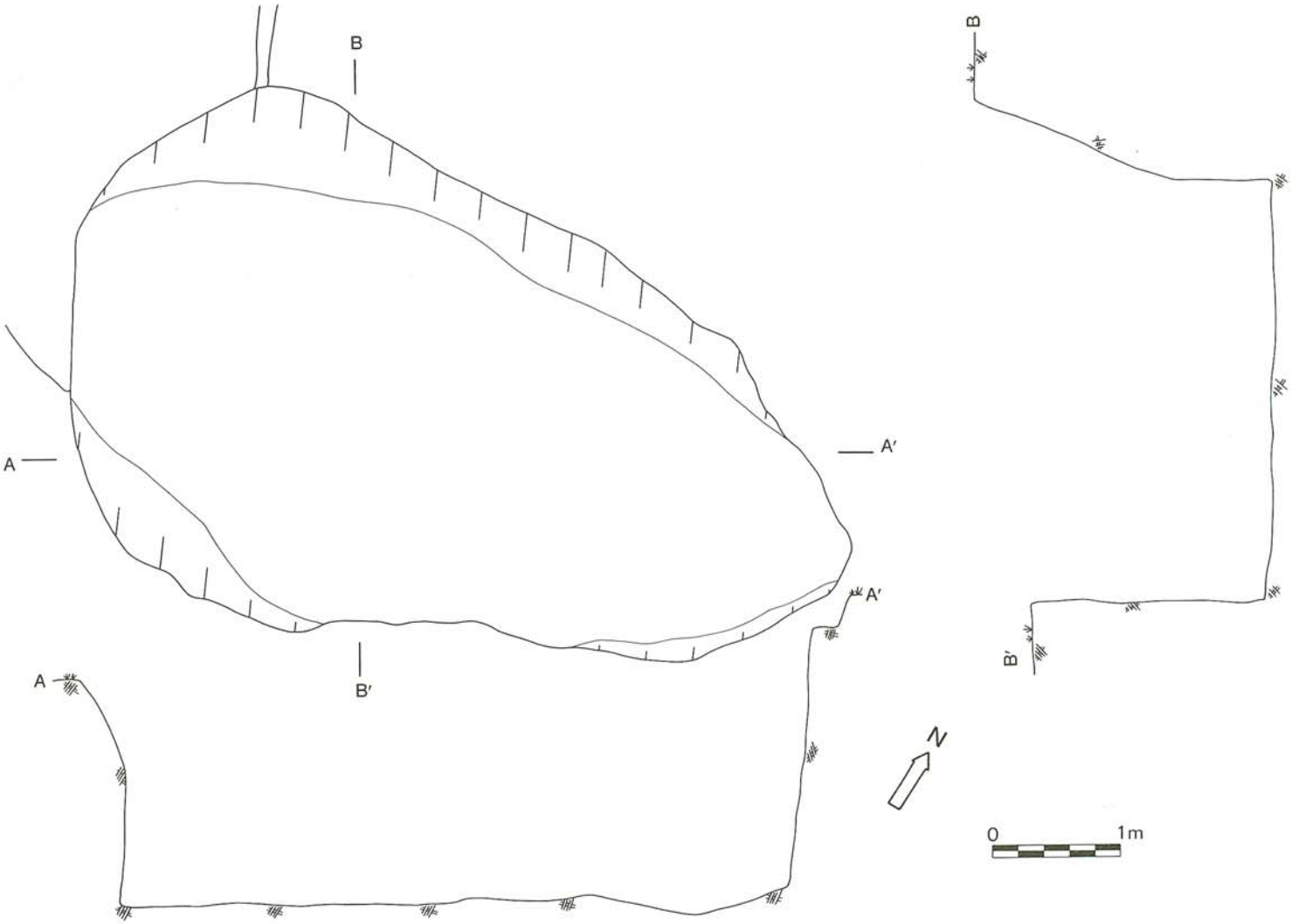
〈그림 3〉 1호 유구의 실측도



〈그림 4〉 2호 유구의 실측도



〈그림 5〉 3호 유구의 실측도



〈그림 6〉 4호 유구의 실측도

〈그림 7〉 5호 유구의 실측도

한편 3호 유구의 남쪽 가장자리에 이웃해서 길이 170cm, 최대너비 97cm, 최대두께 9cm의 숯이 깔린 면이 나타났는데, 그 위에는 기와, 질그릇, 옹기 그리고 자기가 1점씩 흩어져 있었다(사진 12). 이것은 3호의 바닥면보다 20cm 더 높다.

(4) 4호

폐기구덩이의 남쪽 끝에서 드러났는데, 겹친 상태로 보아 폐기구덩이를 만든 뒤에 이것을 판 것으로 생각된다. 위에서 본 모양은 한쪽이 좁아든 긴원꼴인데, 최대지름은 348cm이고 이에 수직하는 최대너비는 210cm이다. 동서축의 세로자른면을 보면 마주보는 두 벽이 거의 수직을 이루는데, 최대깊이는 125cm이다. 또한 남북축의 세로자른면의 경우 남쪽벽은 비스듬하다가 수직이 되며 북쪽벽은 거의 수직인데, 최대깊이는 128cm이다. 한편 바닥면은 수평에 가깝다(사진 13, 그림 6).

북서쪽의 기운 벽면에 마치 타일을 붙인듯 암키와가 잇대어 놓여져 있었으나 그 수는 적다. 그 밖에 질그릇과 옹기 조각이 조금 나왔다. 유구의 전체 모양은 원통형 저장움을 연상시키나, 바닥면의 남쪽 가에는 물이 고여있어 저장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5) 5호

기준점에서 동쪽 방향 13~22m사이에서 돌멩이들과 백자, 분청사기, 질그릇, 옹기 조각 그리고 기와 조각이 섞여 드러났다. 돌멩이와 유물의 분포 규모는 길이는 5.9m, 너비는 2.5m, 두께 약 30cm이며, 동쪽이 서쪽보다 약 20cm 더 높다. 돌멩이는 29×27×24 12×9×9cm쯤 되는 자연석들이며, 약 170개가 넘는다. 그릇 조각과 기와 조각의 수는 다 더해도 수십 점에 불과하다. 유물은 돌멩이 사이와 위에서 나왔으며, 돌을 드러낸 바닥면은 생토였다(사진 14, 그림 7). 전체 지세와 연관지어 보면 돌멩이와 유물들은 비탈과 나란하게 분포한다. 구덩의 동쪽 벽면에 V자로 퇴적된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3호 유구처럼 일부러 구덩이를 판 흔적은 없다. 돌들이 일정한 구조를 이루지 못하고 적은 수의 유물이 뒤섞여 있으며 굵은모래가 많이 섞인 흙에 덮여있어, 건축자재와 생활용기가 버려진 뒤 물의 작용을 받은 곳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金學輝. 1991, 〈先史・歷史遺蹟〉《文興洞－文化遺蹟地表調査－》35~62.

〈사진 1〉 발굴을 시작하기 전의 모습

〈사진 2〉 발굴조사로 드러난 유구

〈사진 3〉 고인돌 1로 보고된 곳의 주변정리 후 모습

〈사진 4〉 드러난 자연석들

〈사진 5〉 고인돌 2로 보고된 곳의 발굴 전 모습

〈사진 6〉 드러난 자연석들

〈사진 7〉 건물터에서 드러난 적심석

〈사진 8〉 건물터에서 드러난 화덕자리

〈사진 9〉 기단으로 여겨지는 유구 2

〈사진 10〉 2호 유구에서 드러난 기와, 질그릇, 분청사기

〈사진 11〉 3호 유구에서 드러난 기와더미와 돌멩이들

〈사진 12〉 3호 유구 아래쪽에서 드러난 숯깔린 면

〈사진 13〉 4호 유구

〈사진 14〉 5호에서 유물 드러난 모습

유물의 분석

기와와 전돌
질그릇
옹 기
자 기

기와와 전돌

문흥동유적에서 나온 유물은 기와와 전돌, 질그릇, 분청사기, 백자, 옹기 그리고 적심석, 주춧돌, 기단 혹은 벽의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는 돌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기와이다. 이것은 각 유구에서 모두 나왔으나, 대부분 2, 3호에서 나왔다. 그러나 완전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암키와 9점과 수키와 1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깨진 상태이다. 그런데 2호와 3호에서 나온 기와 가운데 짝이 맞는 것이 있다.

기와의 종류는 암키와와 수키와 뿐이다. 대부분이 깨진 조각이므로 어느 정도 모양과 특징을 구별할 수 있는 일정한 크기 이상의 것을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래서 암키와는 길이나 너비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도 15cm 이상인 것, 수키와는 10cm 이상인 것을 보고 대상으로 삼았다. (표 1).

표 1. 유구별 암키와와 수키와의 수

기 와 / 유 구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모 듬
암 키 와	13	265	218	11	0	507
수 키 와	11	163	170	4	1	349
모 듬	24	428	388	15	1	856

표에서 보듯이 2, 3호에서 기와가 많이 나왔으며 1, 4호에서 나온 수량은 아주 적다. 1호에서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양이 비슷하나, 2, 3호에선 암키와가 수키와보다 더 많다. 기와 종류별 갯수를 비교해보면 암키와가 수키와보다 약 1.5배나 된다.

아래에서 암키와와 수키와로 나누어 보고하겠다.

1. 암키와

가. 크기

507점의 암키와 가운데 제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3호에서 나온 9점뿐이다. 이들 9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제 크기를 알 수 있는 암키와 (cm)

번호	등록번호	길	너비	두께	번호	등록번호	길이	너비	두께
1	ㅁㅎ-3-445	40.0	29.5	2.4	6	ㅁㅎ-3-458	42.8	31.4	2.2
2	ㅁㅎ-3-446	40.1	29.1	2.2	7	ㅁㅎ-3-460	41.0	28.0	1.9
3	ㅁㅎ-3-449	49.7	31.0	2.1	8	ㅁㅎ-3-462	42.8	28.7	2.2
4	ㅁㅎ-3-452	39.7	26.5	2.0	9	ㅁㅎ-3-442	50.0	31.1	2.3
5	ㅁㅎ-3-455	44.2	34.1	3.1					

이들 암키와 8점의 평균길이는 43.4cm, 평균너비 29.9cm, 평균 두께는 2.3cm이다. 최대길이는 50.0cm, 최소길이는 39.7cm 이고, 최대너비는 34.1cm, 최소너비는 26.5cm이며, 최대두께는 3.1cm, 최소두께는 1.9cm이다.

이같은 크기의 기와가 이른바 소와(小瓦), 중와(中瓦), 대와(大瓦) 가운데 어느 것에 가까운지 살펴보려고 최근에 사용된 기와의 크기 나눔을 참고하였다(표 3).

표 3. 암키와의 종류별 크기(cm)

종 류		길 이	앞 너 비	뒤 너 비	두 께
소 와		33	27	28	2.1
중 와	A	33	30	31	2.5
	B	36	30	31	2.5
대 와		39	33	34	2.5

(황의수 1989, 66에서 옮김)

이 표의 크기를 기준하면 문흥동의 암키와의 길이는 대와보다 크고, 너비와 두께는 중와보다 크거나 작은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점에서 문흥동의 암키와는 대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면 제 크기를 알 수 없는 490점의 암키와는 어떤 크기였을까? 이를 추리해보려고 2, 3호에서 나온 483점의 암키와 두께를 재어 그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4).

2호와 3호에서 나온 암키와의 두께는 2.11~2.30cm짜리가 29.1%와 25.2%, 1.91~2.10cm짜리가 27.2%와 28.4% 그리고 2.31~2.50cm짜리는 17.4%와 19.7%를 차지한다. 다시 말하자면 1.91~2.50cm의 두께인 암키와는 2, 3호에서 73.6%, 73.4%나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두께는 1.71~1.90cm, 2.51~2.70cm이다. 이 자료는 조각난 암키와의 크기가 완전한 모습의 암키와와 거의 같음을 보여준다.

표 4. 2, 3호 암키와의 두께 분포(cm)

두 께 :	0.91 ~1.10	1.11 ~1.30	1.51 ~1.70	1.71 ~1.90	1.91 ~2.10	2.11 ~2.30	2.31 ~2.50	2.51 ~2.70	2.71 ~2.90	2.91 ~3.10	3.11 ~3.30	모듬
갯 2 호 :	0	1	9	25	72	77	46	24	8	1	2	265
수 3 호 :	1	0	3	27	62	55	43	15	9	3	0	218
모 듬	1	1	12	52	134	132	89	39	17	4	2	483

나. 굳기와 색깔

암키와는 굳기와 색깔이 똑같지 않다. 굳기는 손톱으로 긁히는 정도에 따라 경질과 연질로 그리고 색깔은 회청색, 회갈색, 회흑색, 적갈색, 황갈색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구분된 암키와의 각 유구별 갯수는 아래와 같다(표 5).

경질의 암키와는 220점인데, 색깔은 회청색 하나뿐이다. 연질 암키와는 287점이며, 색깔은 회갈색, 회흑색, 적갈색, 황갈색의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적갈색과 회갈색이 많고 황갈색은 드물다. 2, 3호의 기와갖춤새를 보면 경질 회청색, 연질 적갈색, 연질 회갈색, 연질 회흑색, 그리고 연질 황갈색의 순서로 많다.

표 5. 각 유구별 암키와의 굳기와 색깔에 따른 나눔

굳 기 /	색 깔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모듬
경 질	회 청 색	6	113	98	3	0	220
연 질	회 갈 색	1	54	44	5	0	104
	회 흑 색	5	28	26	1	0	60
	적 갈 색	1	66	43	1	0	111
	황 갈 색	0	4	7	1	0	12
모 듬		13	265	218	11	0	507

여기서 대와의 굳기와 색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표 6. 대와의 굳기와 색깔에 따른 나눔

굳 기 / 색 깔 :	회 청 색	회 갈 색	회 흑 색	적 갈 색	황 갈 색	모 듬
경 질	13	0	0	0	0	13
연 질	0	3	2	3	1	9
모 듬	13	3	2	3	1	22

대와 가운데 경질은 회청색뿐이며 13점이다. 연질은 9점인데, 이 가운데 회갈색과 적갈색이 3점씩이고, 회흑색 2점, 황갈색 1점이다. 경질이 연질보다 더 많은 점은 전체 암키와와 다르지만, 연질의 색깔별 구성 비율은 전체 암키와의 그것과 비슷하다.

다. 무늬

암키와의 한쪽 면에는 글자(명문)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의 무늬를, 그리고 맞은편 면에는 베눈자국을 볼 수 있다. 글자는 무늬와 함께 넣어져 있으며, 무늬만 있는 경우 한 가지 무늬만 넣어진 암키와는 드물고 대부분은 두 가지의 무늬가 섞여 있으며, 세 가지의 무늬가 함께 넣어진 것도 있다. 이같은 글자와 무늬는 그것이 새겨진 방망이를 두들기거나 찍어서 만든 것이며, 새기기나 덧붙여서 제작된 것은 없다.

아래에서 글자기와와 무늬기와로 나눠 살펴보겠다.

(1) 글자기와(탑본 1, 사진 1)

글자가 있는 기와는 모두 6점이다. 글자는 "成", "天", "[illegible]와 □□"의 세 가지가 있는데, 한자로서 왼쓰기(左書)를 한 것이다. 아래에서 종류 별로 살펴보겠다.

① "成" 글자기와

모두 2점이 나왔다. 한 점은 2호에서, 다른 한 점은 뒤섞인 데서 찾았다. 2호에서 나온 것(2-680)의 크기는 12.4×9.8×1.6cm이고, 다른 한 점의 크기는 8.8×8.6×1.6cm이다. 둘 다 경질이며 회청색이고, 무늬는 마름모 안에 직선을 나란하게 채운 것과 네모를 대각선으로 나눈 뒤 직선을 수직으로 만나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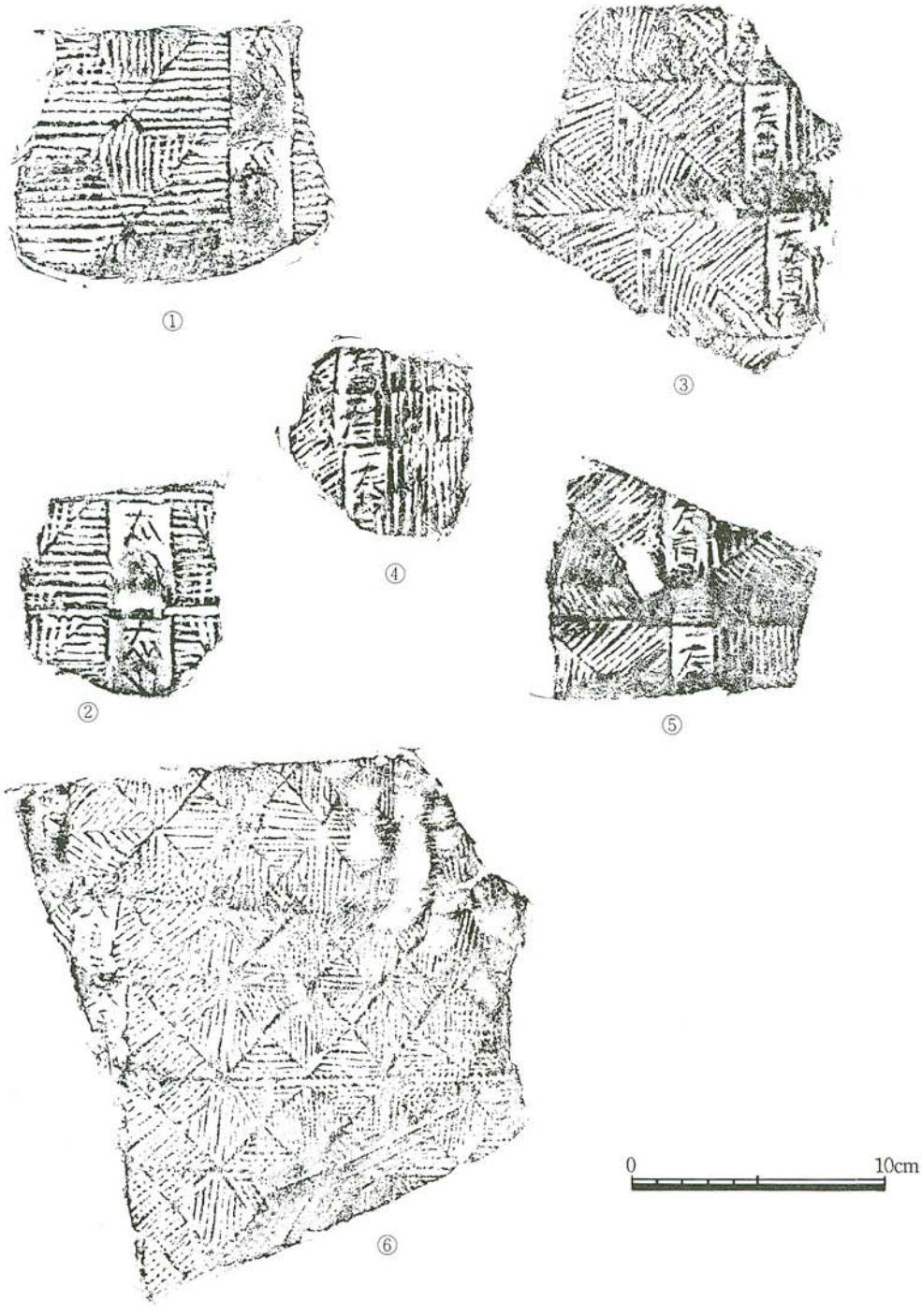
이 "成化"는 명(明)나라 연호로서 1465~1487년을 가리킨다. 이것은 이 유적에 사람이 살았던 때가 15세기 무렵이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실마리이다.

② "天" 글자기와

모두 3점인데, 한 점은 3호에서 그리고 나머지 2점은 뒤섞인데서 나왔다. 3호에서 나온 것(3-202)의 크기는 14.5×14.0×1.9cm이며, 연질의 회흑색이다. 나머지 두 점은 각각 11.6×9.5×2.4cm, 7.3×7.2×1.8cm이고, 연질의 회갈색과 연질의 회흑색이다. 세 점의 무늬는 한 가지인데, 네모를 구획하고 그것을 대각선으로 나눈 뒤 직선을 나란하게 채웠다.

③ "[illegible]와 □□ 글자기와

1점뿐인데, 3호(3-353)에서 나왔다. 크기는 19.9×18.8×1.9cm이며, 회청색의 경질이다. 무늬는 마름모 안에 직선을 채운 것이다.



〈탑본 1〉 글자기와

1. [illegible] (2−680) 2. [illegible] 3. [illegible] (3−202) 4. [illegible] 5. [illegible] 6. [illegible] 와 □□(3−3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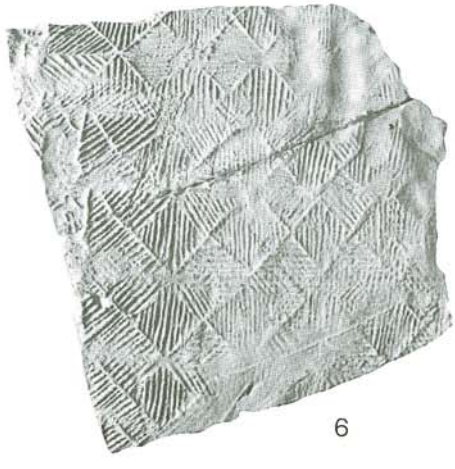
1

2

3

4

5



6

〈사진 1〉 글자기와
1. 符 (2－680) 2. 符 3. 天酉 (3－202)
4. 天酉 5. 天酉 6. 와 □□ (3－353)

(2) 무늬기와

글자기와 6점을 뺀 대부분의 기와에는 여러 가지의 무늬가 넣어져 있다. 이러한 무늬는 자연현상, 생물, 기호 등을 소재로 한 것이다. 무늬를 만든 기법은 두들기기 한 가지이므로, 무늬의 나눔은 생김새를 기준하였다. 생김새에 따라 물고기뼈무늬, 사내끼무늬, 파도무늬, 꽃무늬, 풀무늬, 별빛무늬, 빗금나란무늬, 결은무늬, 마름모 나란선무늬, 겹마름모무늬로 나뉜다. 한편 같은 무늬라도 굵기나 크기가 다른 점에서 더 나눌 수 있다(사진 2).

물고기뼈무늬

사내끼무늬

물고기뼈+사내끼무늬

파도 1

파도 2

파도 3

파도 1+사내끼무늬

풀무늬

별빛+결은무늬

결은무늬

꽃1+ 파도무늬 1

꽃2+ 파도무늬 1

꽃3+ 결은무늬

꽃4+ 결은무늬

마름모나란선무늬

겹마름모무늬 1

겹마름모무늬 2

빗금나란무늬

田+결은무늬

卍 무늬+사내끼

⊠ 무늬+물고기뼈

〈사진 2〉 암키와 무늬모음

아래에서 무늬 별로 대표되는 유물을 살펴보겠다(탑본 2~9 , 사진 3~5).

① 물고기뼈무늬(漁骨文, 樹枝文)

물고기뼈 한 가지로만 겉면을 채운 것으로 4점의 대와가 있다. 이 가운데 무늬가 가장 또렷한 것은 3-463번이다(남은 길이 37.9cm, 너비 28.1cm, 두께 2.4cm). 이것은 전체를 둘로 나누어 물고기뼈무늬를 마주보게 하였는데, 양쪽에 물고기뼈무늬가 6~7개씩 찍혀있다.

② 사내끼무늬(格子文)

대표되는 유물은 3-360번이다. 조각으로 남은 길이 8.1cm, 남은 너비 12.8cm, 두께 2.8cm이다. 사내끼무늬의 눈 크기는 사방 0.5cm이다

한편 사내끼무늬의 위와 아래에 물고기뼈무늬를 배치한 것도 있다. 2-975번이 대표된다(남은 길이 20.8cm, 남은 너비 10.4cm, 두께 1.9cm). 이 유물의 사내끼무늬는 가로 3.9cm, 세로 5.5cm인 긴 네모를 옆으로 3, 길이로 5으로 나누어 15개의 칸을 만든 무늬넣개로 나란히 찍은 것이다.

③ 파도무늬(滄海波文)

파도무늬만으로 겉면을 채운 것으로 3-449번(길이 49.7cm, 너비 31.0cm, 두께 2.1cm)이 있다. 부채꼴 안에 길고 짧은 곡선을 여럿 쌓아 파도를 나타내었는데, 크기는 너비 약 7cm, 길이 약 5 cm이다. 기와의 중간쯤을 경계로 파도무늬를 마주보게 배치하였으며, 양쪽에 3줄씩 겹쳐 찍었다.

이와 거의 같으나 조금 차이나는 것으로 3-566번이 있는데, 조각이다(남은 길이 13.6cm, 남은 너비 17.9cm, 두께 2.1cm). 이것은 수직선으로 칸을 나누고 그 안에 파도무늬를 어슷비슷하게 겹쳐 놓았다. 또 다른 예로 1-21번(남은 길이 12.9cm, 남은 너비 9.0cm, 두께 1.9cm)이 있는데, 여기의 파도무늬는 너비 6.2cm, 길이 4.5cm의 부채꼴 안에 무지개처럼 8개의 길고 짧은 곡선이 포개져 있고, 아래쪽에는 세 줄의 수직선이 있다.

한편 파도무늬와 다른 무늬를 함께 넣은 것도 있다. 하나는 파도무늬와 물고기뼈무늬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파도무늬와 사내끼무늬를 배치한 것이다. 각각을 대표하는 유물은 3-450번(길이 43.2 cm, 남은 너비 27.6cm, 두께 2.4cm)과 3-543번(남은 길이 14.0cm, 남은 너비 19.5cm, 두께 2.1cm)이다.

④ 풀무늬(草文)

줄기에서 잎이 양 옆으로 늘어진 모습의 무늬이다. 2-967번이 대표되는데, 조각으로 남은 길이 23.4cm, 남은 너비 18.9cm, 두께 2.6cm이다. 무늬의 한 단위 크기는 길이 15cm, 너비 6cm쯤 되는데, 세로로 네 개를 나란하게 찍었다.

⑤ 별빛무늬

약 4.5cm의 네모 안 가운데 큰 점(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빛이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무늬이다. 별빛무늬의 위와 아래에는 결은무늬가 넣어져있다. 대표유물은 3-528번이다(남은 길이 18.2

cm, 남은 너비 16.2cm, 두께 1.9cm).

⑥ 결은무늬(集線文)

삿자리나 바구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가닥의 씨와 날이 어긋매기게 짜여진 모습의 무늬이다. 이 무늬 한 가지로만 겉면을 처리한 것은 3－445번이다. 이것은 대와로서 길이 40.0cm, 너비 29.5 cm, 두께 2.4cm 이다. 너비 5cm의 두 세로줄 사이에 약 10줄의 직선을 어슷비슷하게 쌓아놓았다. 이같은 무늬 단위가 6줄 가량 이어진다.

⑦ 꽃무늬(花文)

꽃잎을 무늬로 도안한 것인데, 생김새가 다른 4가지가 있다. 꽃무늬 하나로만 전체를 꾸민 기와는 없다. 이 무늬는 파도무늬나 결은무늬와 함께 쓰였다.

a. 꽃무늬 1+ 파도무늬 1

기와의 가운데에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쳐서 꽃무늬를 가로로 늘어놓고 그 위와 아래에 파도무늬를 배치하였다. 꽃무늬 1은 한 변이 약 4cm인 네모 안에 꽃잎이 9인 둥근 꽃을 표현한 것이다. 대표유물은 3－164번 이다(남은 길이 16.0cm, 남은 너비 17.3cm, 두께 2.1cm).

b. 꽃무늬 2+ 파도무늬 1

앞의 기와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무늬를 배치하였다. 다만 꽃무늬가 다른데, 이것은 꽃잎이 11개이며, 꽃의 지름은 3.5cm이다. 대표유물은 3－460번으로 대와이다(길이 41.0cm, 너비 28.0cm, 두께 1.9cm).

c. 꽃무늬 3+결은무늬

두 가지 무늬의 배치는 위의 유물과 같다. 대표유물은 2－299번인데, 이것은 3호에서 나온 288번과 붙는다. 여기의 꽃무늬는 한 변이 약 4cm인 마름모 안에 국화를 표현한 것이다. 이런 꽃무늬를 가로로 6개 늘어놓고, 그 위와 아래에 결은무늬를 배치하였다.

d. 꽃무늬 4+결은무늬

마름모 안에 꽃잎을 90도 간격으로 4장 표현한 것이다. 꽃무늬의 위와 아래에는 결은무늬가 넣어졌다. 대표유물은 3－158번이다(남은 길이 13.2cm, 남은 너비 9.2cm, 두께 2.4cm).

⑧ 마름모나란선무늬(菱形集線文)

마름모 안에 길고 짧은 직선이 나란하게 채워져있는 모습을 가리킨다. 2호에서 나온 것 가운데 이 무늬가 넣어진 기와(2－966)가 있다. 이것의 크기는 남은 길이 12.5cm, 남은 너비 8.3cm, 두께 1.7cm이다. 가로 마름모 안에는 11개, 세로 마름모 안에는 25개의 직선이 들어있다. 가로 마름모의 한 변 길이는 4cm쯤이다.

⑨ 겹마름모무늬(菱形文)

마름모가 5～10개쯤 겹쳐있는 무늬이다. 대표되는 것으로 2－300, 3－155, 3－424번 기와가 있다.

세 유물의 마름모 선의 굵기와 간격은 같지 않다. 곧 2-300(겹마름모무늬 1)번은 가늘고 좁으며, 나머지 둘은 굵고 넓다.

⑩ 빗금나란무늬(平行集線文)

빗금이 나란하게 줄을 이루는 무늬이다. 대표 유물은 2-639번(남은 길이 22.1cm, 너비 26.4cm, 두께 2.1cm)이다. 무늬의 너비는 5cm쯤이고 길이는 10cm가 넘는다. 이같은 무늬를 가로로 6개 늘어놓았다.

⑪ 田무늬

마름모 안에 田을 넣은 무늬이다. 이 무늬는 결은무늬와 함께 쓰였는데, 가운데에서 한쪽으로 조금 치우친 곳에 이 무늬를 가로로 여러 개 늘어놓았다. 대표유물로 2-977, 3-446, 3-457번이 있는데, 뒤의 둘은 대와이다.

⑫ 跽무늬

한 변이 3cm인 네모 안에 跽를 도안한 무늬이다. 이 무늬는 다른 두 가지의 무늬와 함께 쓰였는데, 그 자리는 가운데쯤으로 여겨진다. 대표유물은 2-691번이다(남은 길이 10.8cm, 남은 너비 9.9cm, 두께 1.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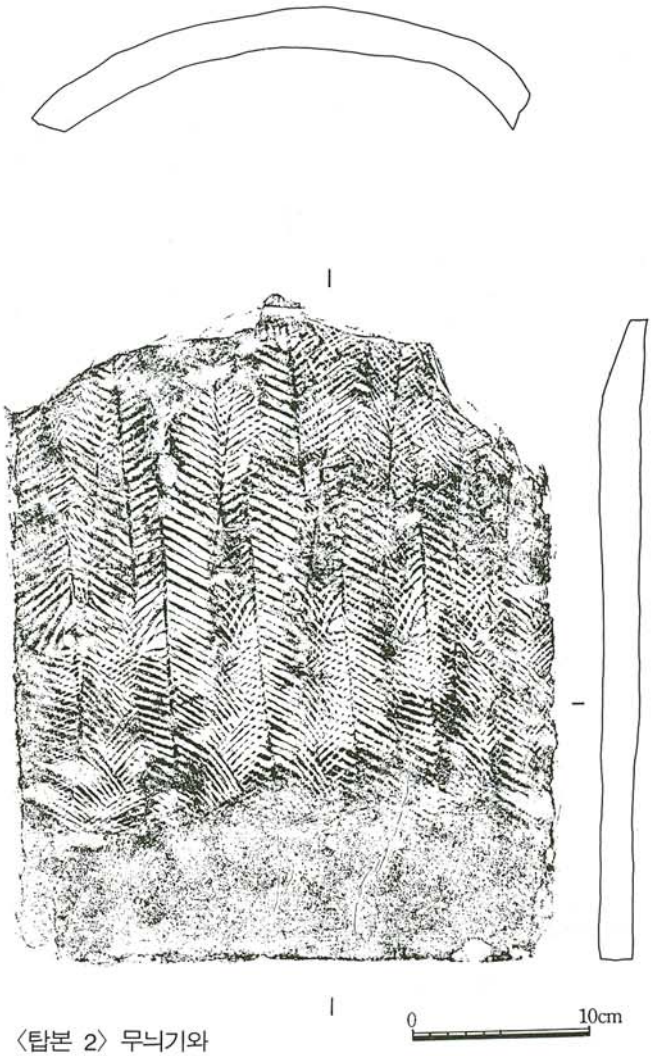
⑬ ⊠무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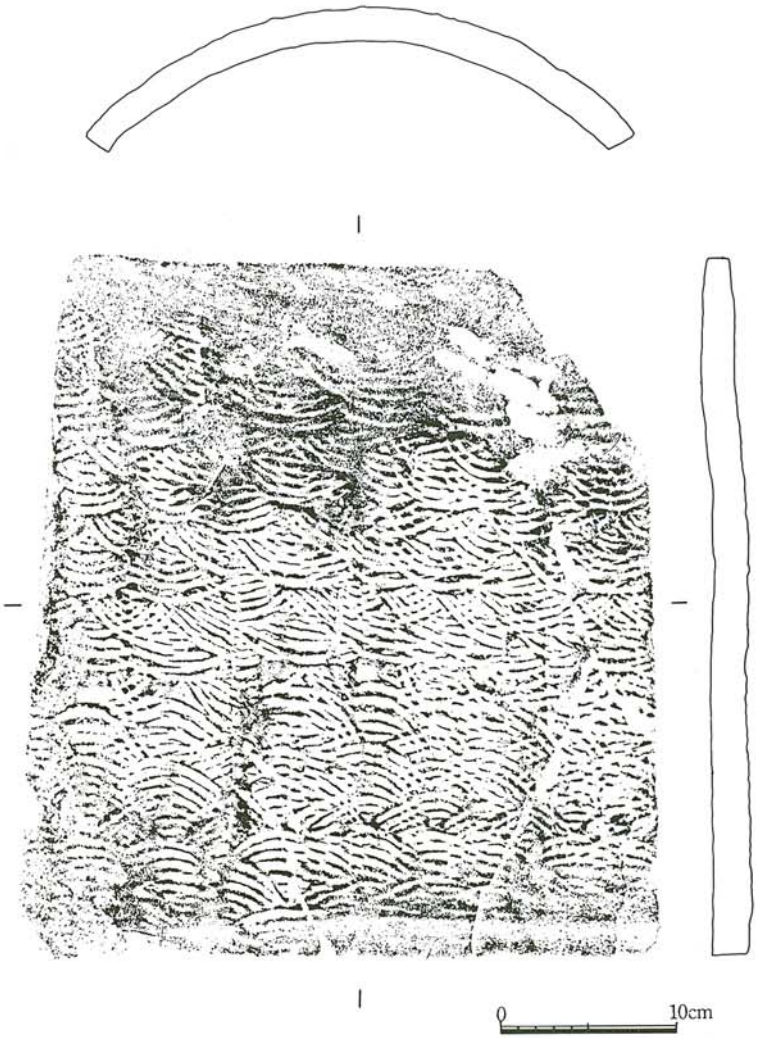
네모를 대각선으로 나눠 생긴 구역 안에 세모를 하나씩 넣은 무늬이다. 이것은 물고기뼈무늬와 함께 쓰였는데, 가운데쯤에 이같은 무늬를 2개씩 옆으로 늘어놓고 그 위와 아래에 물고기뼈무늬를 배치하였다. 대표유물은 3-208번이다(남은 길이 33.0cm, 남은 너비 12.4cm, 두께 1.9cm).

끝으로 각 유구에서 나온 무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표 7).

표 7. 각 유구에서 나온 무늬의 종류 (○: 있음, -: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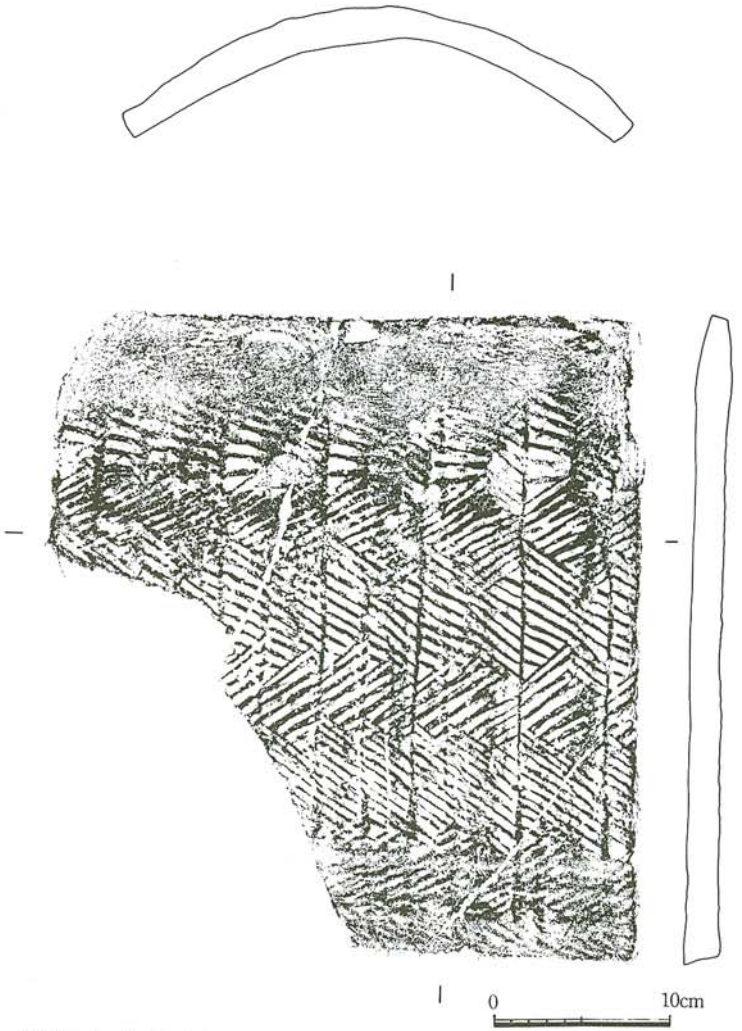
유구/무늬:	물고기뼈	사내끼	파도	풀	별빛	결은	꽃	마름모 나란선	겹 마름모	빗금 나란	田	跽	⊠
1	○	○	○	○	-	-	-	-	-	-	-	-	-
2	○	○	○	○	○	○	○	○	○	○	○	○	-
3	○	○	○	○	○	○	○	-	○	-	○	-	○
4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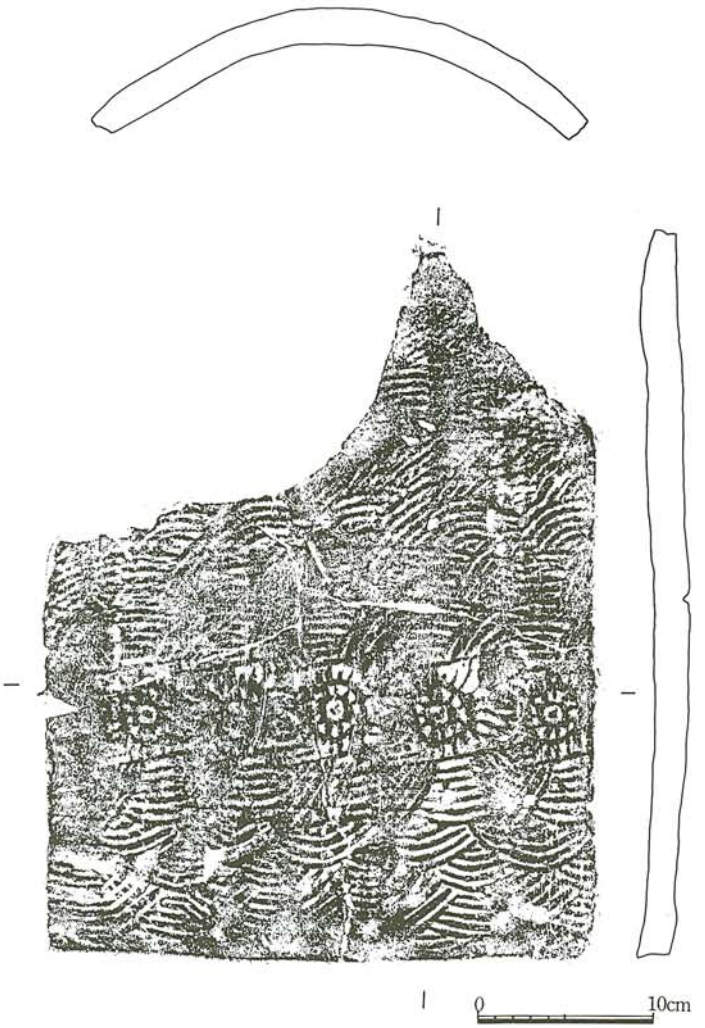




〈탑본 2〉 무늬기와

1. 물고기뼈무늬(3－463) 2. 파도무늬 1(3－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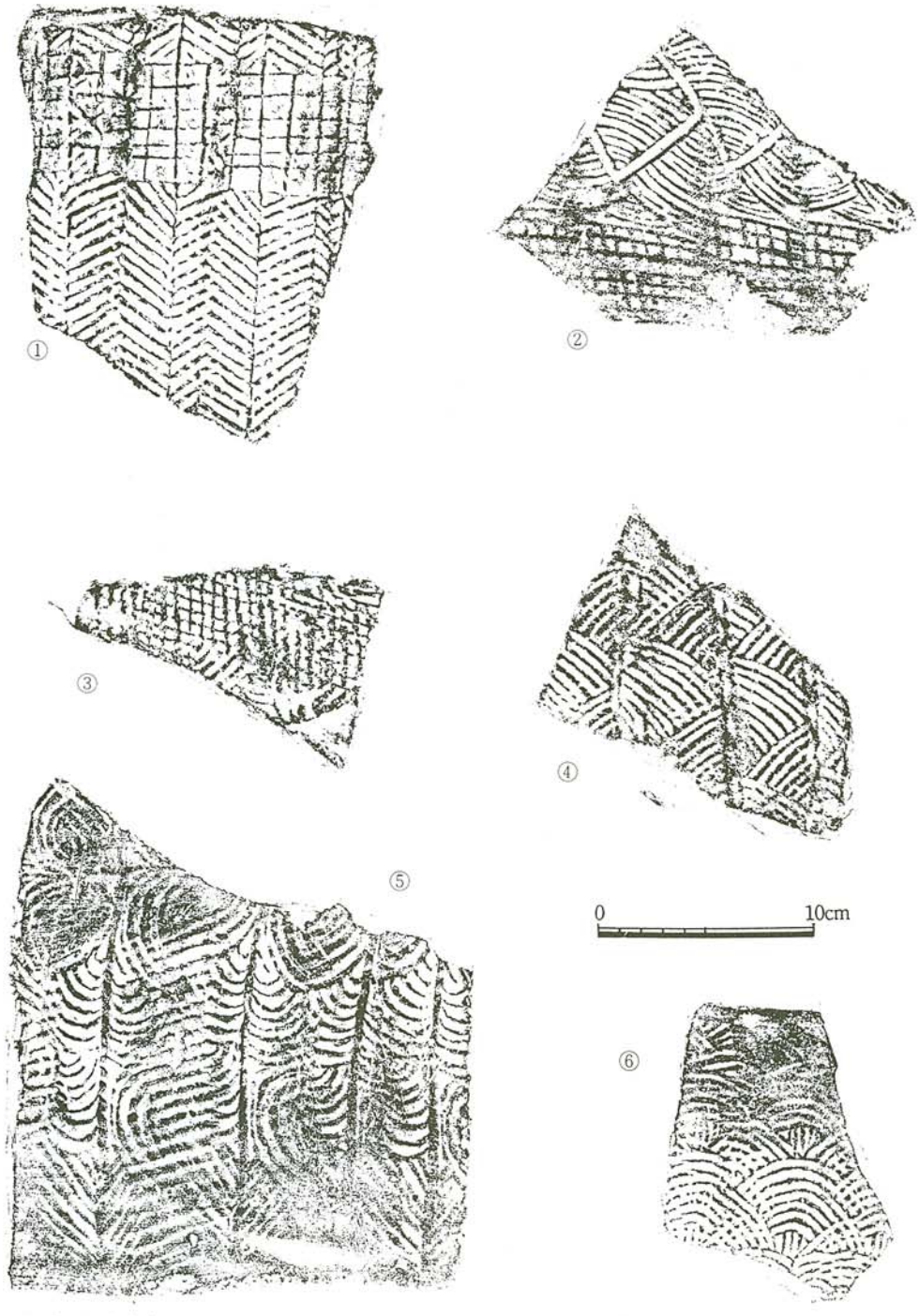




〈탑본 3〉 무늬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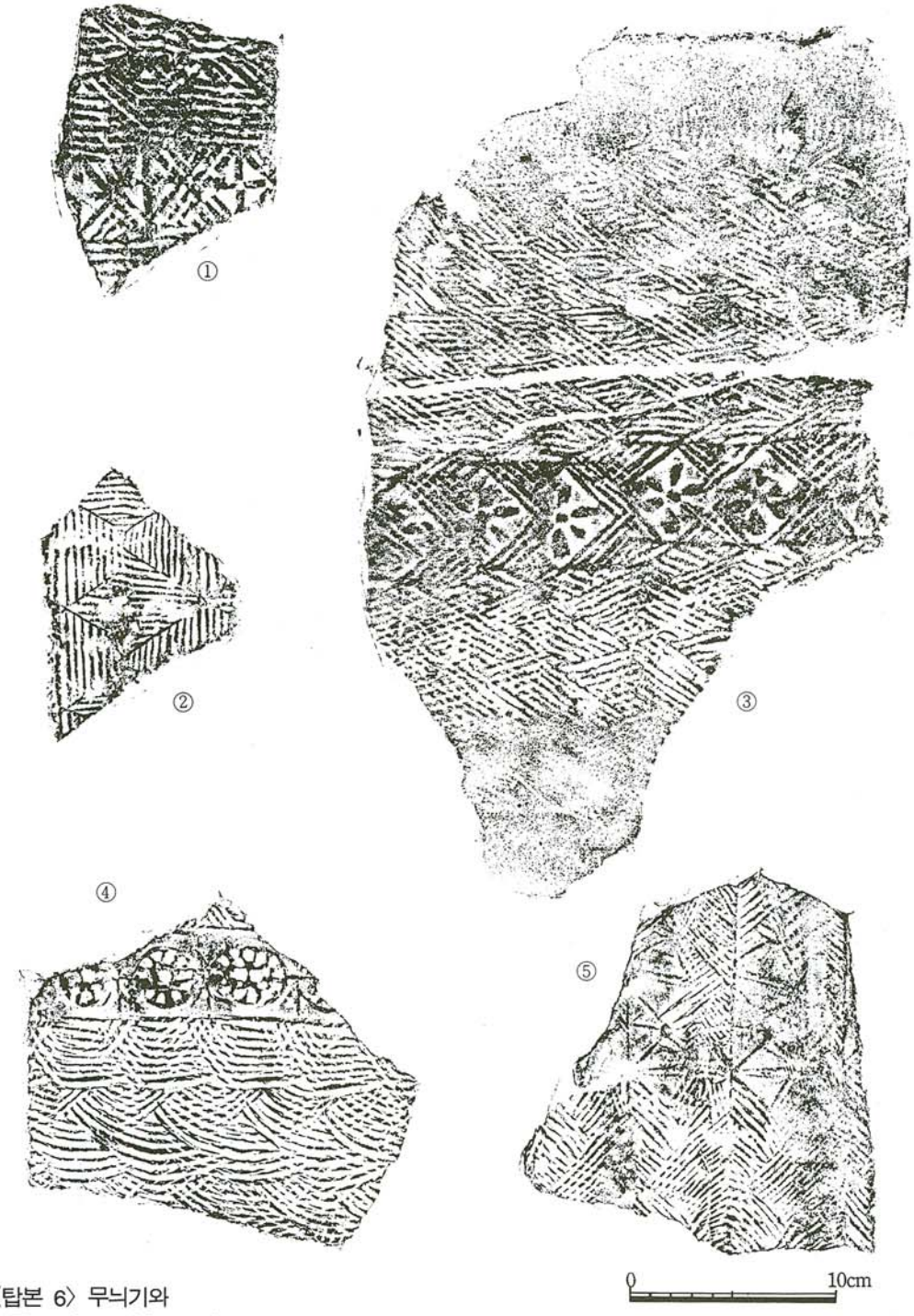
1. 결은무늬(3－445) 2. 꽃2＋파도무늬 1(3－460)

〈탑본 4〉 무늬기와
1. 田+결은무늬(3-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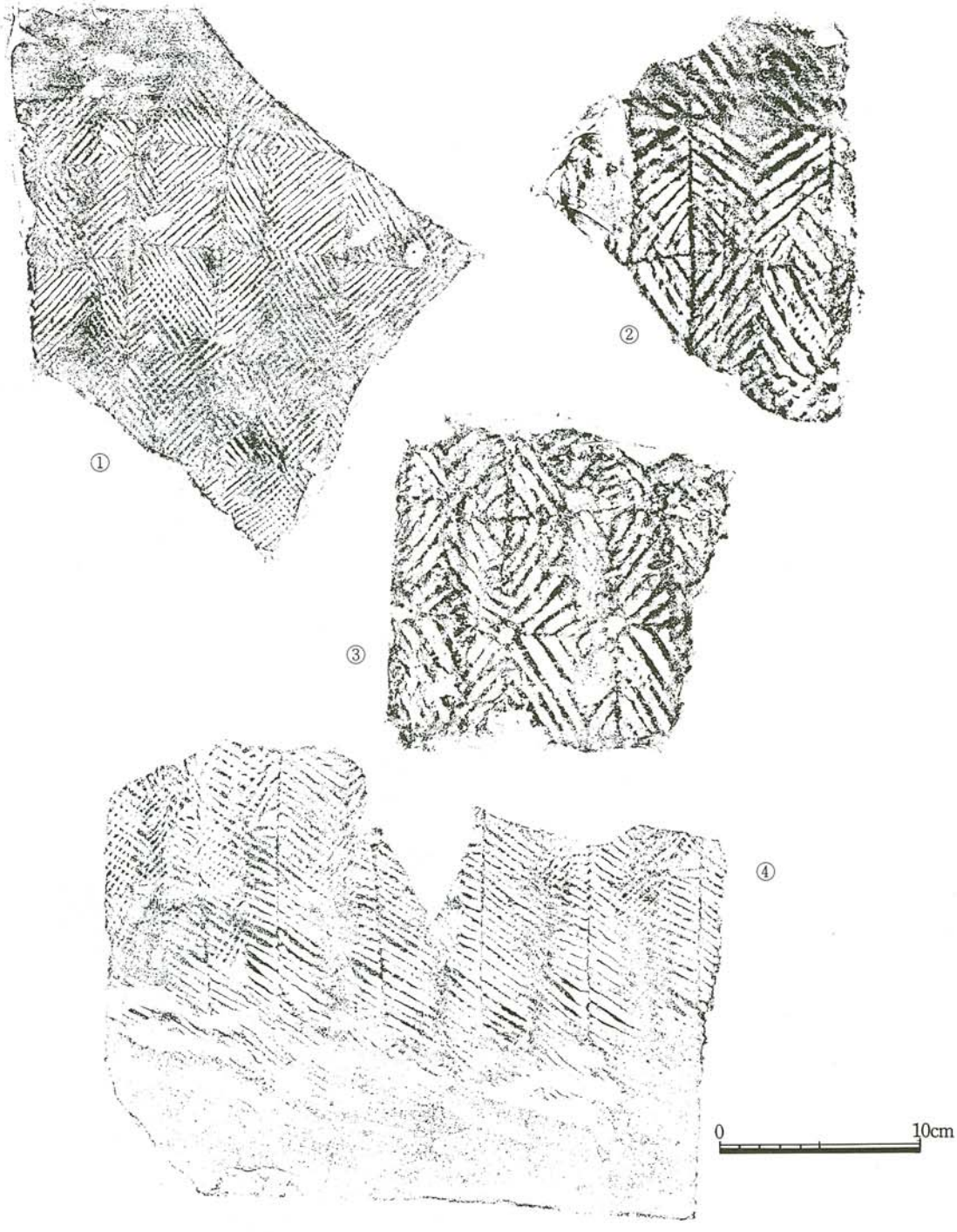
〈탑본 5〉 무늬기와

1. 물고기뼈+사내끼무늬(2-975) 2. 파도1+사내끼무늬(3-543) 3. 사내끼무늬(3-360)
4. 파도무늬2(3-566) 5. 풀무늬(2-967) 6. 파도무늬3(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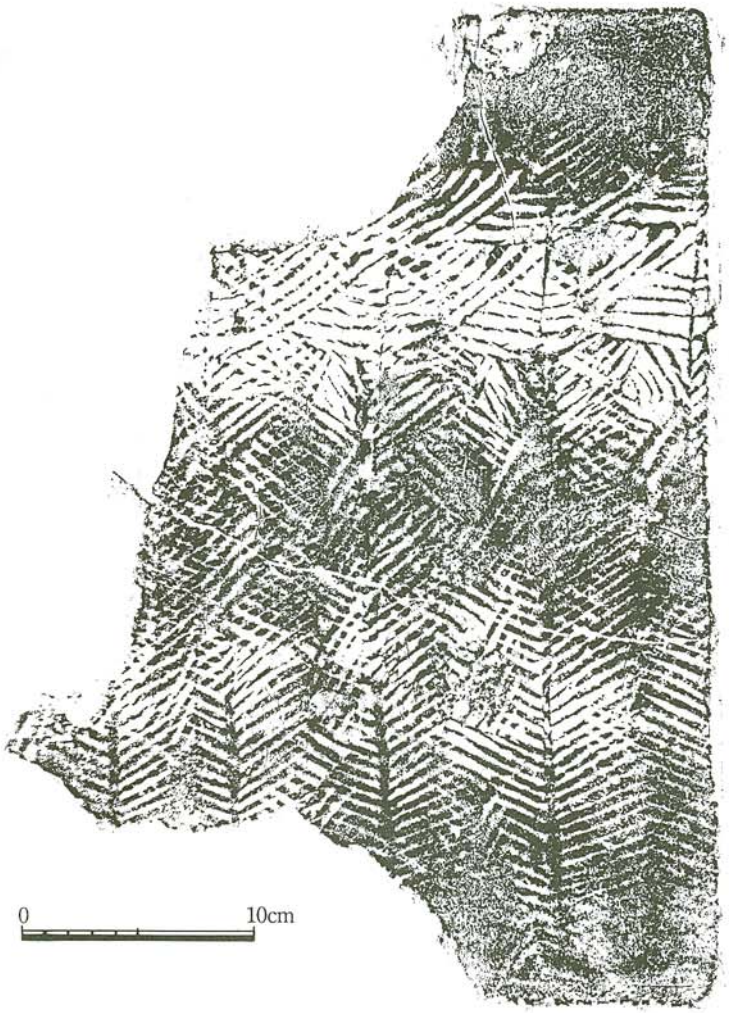


〈탑본 6〉 무늬기와

1.꽃4+결은무늬(3－158) 2. 마름모나란선무늬(2－966) 3. 꽃3+결은무늬(2－299)
4. 꽃1+파도무늬1(3－164) 5. 별빛+결은무늬(3－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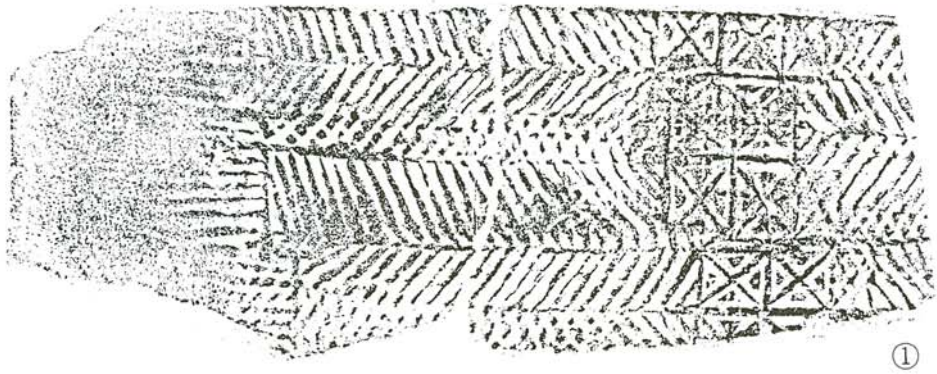


〈탑본 7〉 무늬기와
1.겹마름모무늬1(2－300) 2. 겹마름모무늬 2(3－155) 3. 겹마름모무늬 3(3－424)
4. 빗금나란무늬(2－639)



〈탑본 8〉 무늬기와

1. 물고기뼈+파도무늬1(3－450) 2. 田+결은무늬(3－457)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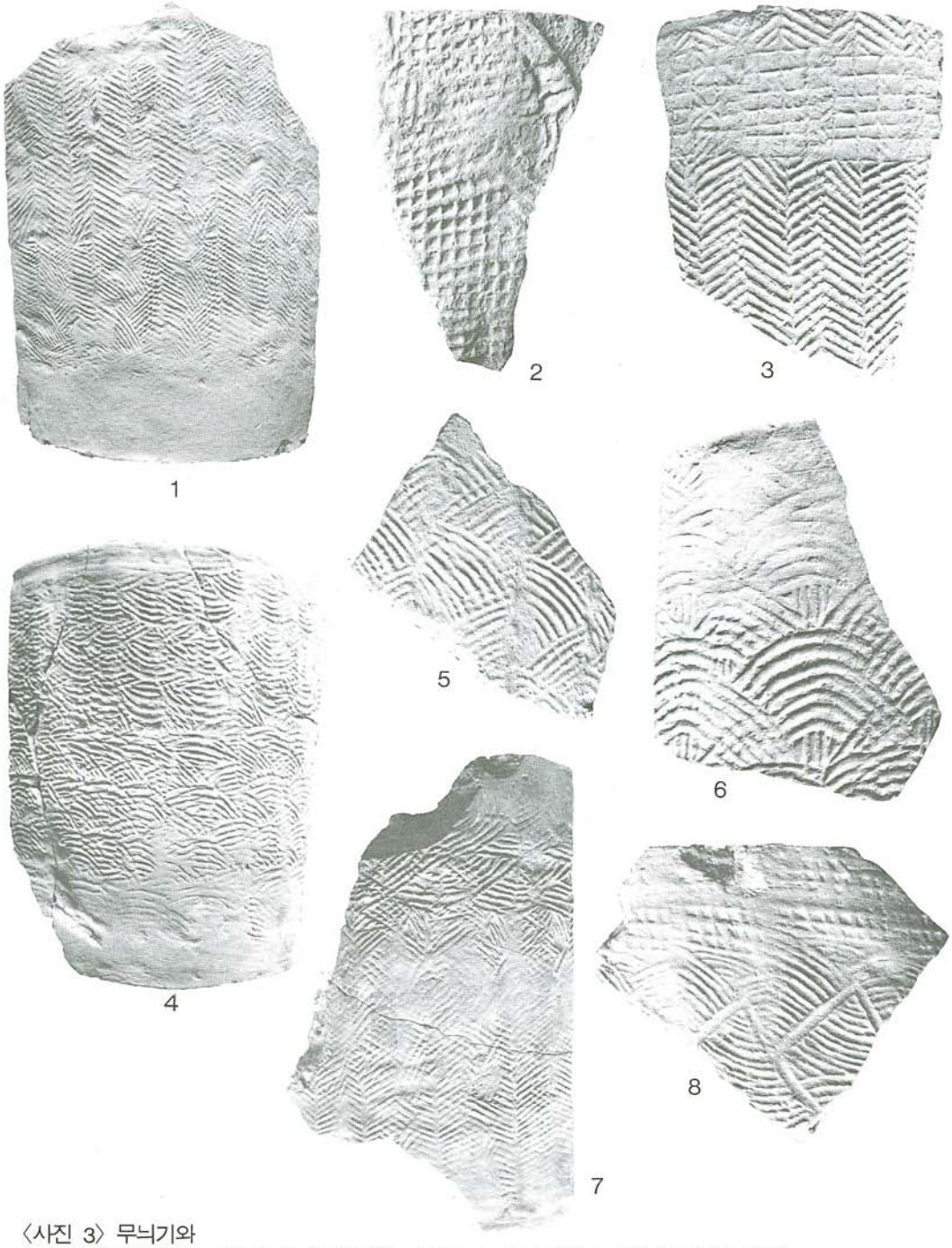
②

③

0 10cm

〈탑본 9〉 무늬기와

1.▨＋물고기뼈무늬(3－208) 2. 田＋결은무늬(2－977) 3.▦＋사내끼무늬(2－6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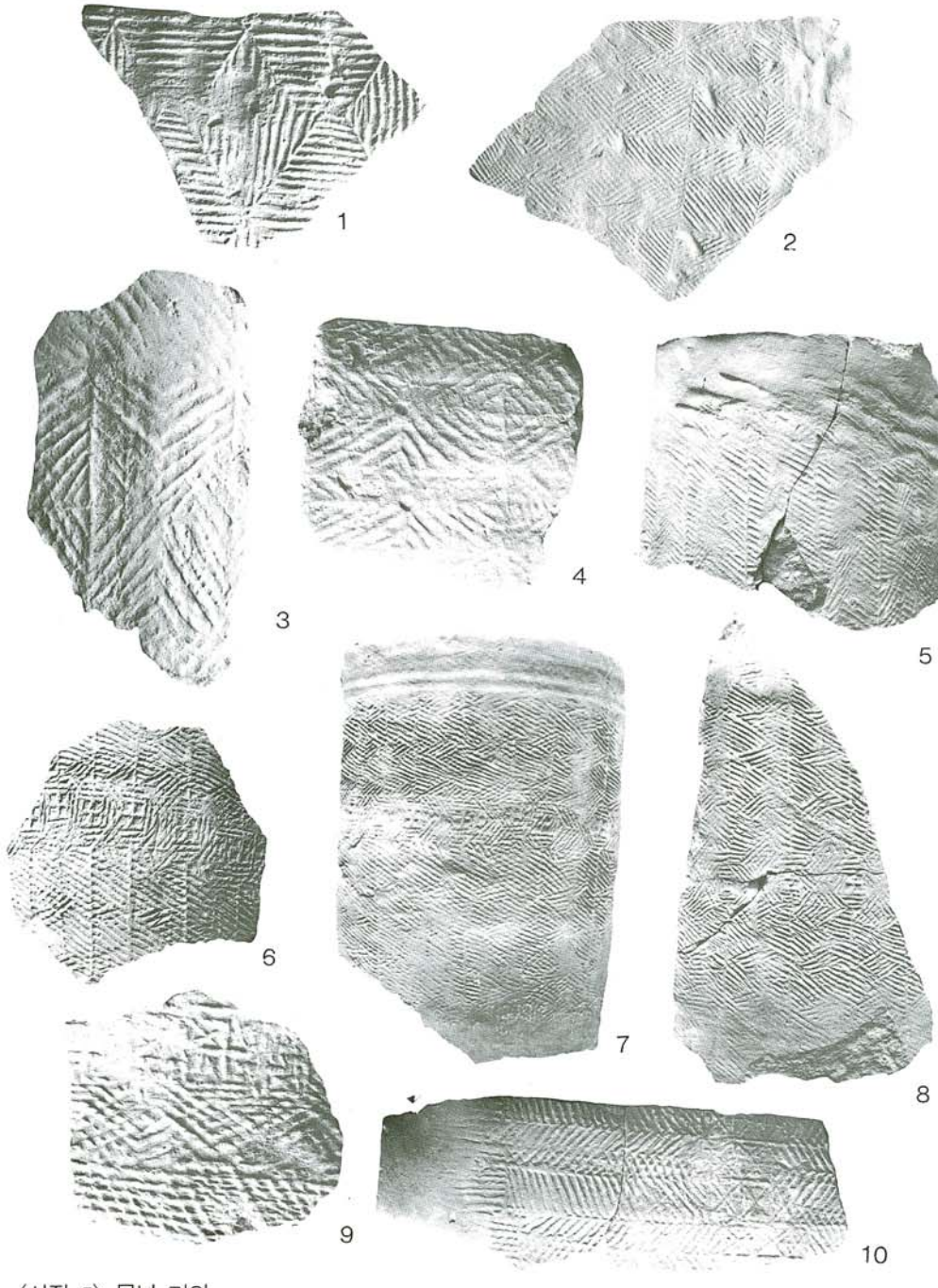


〈사진 3〉 무늬기와

1. 물고기뼈무늬(3－463) 2. 사내끼무늬(3－360) 3. 물고 기뼈＋사내끼무늬(2－975)
4. 파도무늬1(3－449) 5. 파도무늬2(3－566) 6. 파도무늬3(1－21)
7. 물고기뼈＋파도무늬1(3－450) 8. 파도1＋사내끼무늬(3－543)

〈사진 4〉 무늬기와

1. 풀무늬(2－967) 2. 별빛＋결은무늬(3－528) 3. 결은무늬(3－445)
4. 꽃1＋파도무늬1(3－164) 5. 꽃2＋파도무늬1(3－460) 6. 꽃3＋결은무늬(2－299)
7. 꽃4＋결은무늬(3－158)



〈사진 5〉 무늬 기와

1. 마름모나란선무늬(2－966) 2. 겹마름모무늬1(2－300) 3. 겹마름모무늬2(3－155)
4. 겹마름모무늬3(3－424) 5. 빗금나란무늬(2－639) 6. 田＋결은무늬(2－977)
7. 田＋결은무늬(3－446) 8. 田＋결은무늬(3－457) 9. 疋＋사내끼무늬(2－691)
10. ⊠＋물고기뼈무늬(2－208)

2. 수키와

수키와는 등면을 보았을 때 "언강"과 "미구"가 있다. 그리고 맞은쪽 배면의 가장자리를 비스듬하게 만들었다. 언강이란 수키와의 뒤뿌리에 단이 지게 만든 턱이고, 미구는 언강과 이어진 끝 부분으로 여기에 수키와의 앞머리를 올려놓는다.

가. 크기

10cm 이상 되는 수키와는 모두 349점이다. 이 가운데 2호와 3호에서 각각 163점, 170점이 그리고 1, 4, 5호에서는 매우 적은 수가 나왔다. 349점 가운데 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3호에서 나온 1점뿐으로, 최대길이 43.6cm, 최대너비 17.0cm, 최대두께 2.9cm 이다. 이것이 소와, 중와, 대와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 지 살펴보려고 최근에 사용된 기와의 크기 나눔을 참고하였다(표 8).

표 8. 수키와의 종류별 크기(cm)

종 류	길 이	앞 너 비	뒤 너 비	두 께
소 와	27	14	13	1.8
중 와	30	15.5	14.5	2.1
대 와	33	17	16	2.5

(황의수 1989, 66에서 옮김)

길이와 두께는 대와보다 훨씬 크나, 너비는 대와와 같다. 따라서 적어도 대와 이상의 크기라고 하겠다.

나머지 수키와 가운데 너비를 잴 수 있는 것은 8점으로 이들의 최대 크기는 다음과 같다(표 9).

표 9. 수키와의 최대너비(cm)

등 록 번 호 :	3-33	3-77	3-110	3-122	3-340	3-453	3-465	4-1
최 대 너 비 :	18.0	18.5	18.7	17.0	18.7	17.0	15.4	16.0

수키와의 최대너비는 15.4~18.7cm 사이에 드는데, 18.0 18.7cm 사이가 많은 편이고, 평균 최대너비는 17.4cm이다. 이 자료는 문흥동의 수키와가 대와 이상의 크기였음을 드러내준다.

수키와의 크기를 견주어볼 수 있는 것으로 미구가 있다. 수키와 가운데 언강과 미구가 남아있는 것은 모두 66점인데, 기와마다 미구의 크기가 똑같지 않아 이를 재어 보니 다음과 같았다(표 10).

표 10. 수키와 미구의 너비 분포

유구 / 너비 :	2.0~2.5	2.6~3.0	3.1~3.5	3.6~4.0	모 듬
1 호	1	0	1	0	2
2 호	1	3	5	0	9
3 호	1	11	20	22	54
4 호	0	0	1	0	1
모 듬	3	14	27	22	66

미구의 크기는 최대 4.0cm, 최소 2.0cm이다. 이 가운데 3.1~3.5cm인 것이 27점으로 가장 많고, 3.6~4.0cm인 것은 22점으로 두번째이며, 2.0~2.5cm와 2.6~3.0cm인 것은 14점과 3점으로 적다. 크게 보면 3cm 안팎의 크기가 대부분인 셈이다. 그런데 미구의 크기가 차이나는 것이 적지 않으므로, 각 유구의 수키와는 한 곳에서 한 때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굳기와 색깔

수키와는 굳기와 색깔이 똑같지 않다. 굳기는 손톱으로 긁히는 정도에 따라 경질과 연질로 그리고 색깔은 회청색, 회갈색, 회흑색, 적갈색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구분된 수키와의 각 유구별 갯수는 아래와 같다(표 11).

표 11. 각 유구별 수키와의 굳기와 색깔에 따른 나눔

굳 기 /	색 깔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모듬
경 질	회 청 색	10	150	138	2	1	301
연 질	회 갈 색	0	0	5	2	0	7
	회 흑 색	1	10	16	0	0	27
	적 갈 색	0	3	11	0	0	14
모 듬		11	163	170	4	1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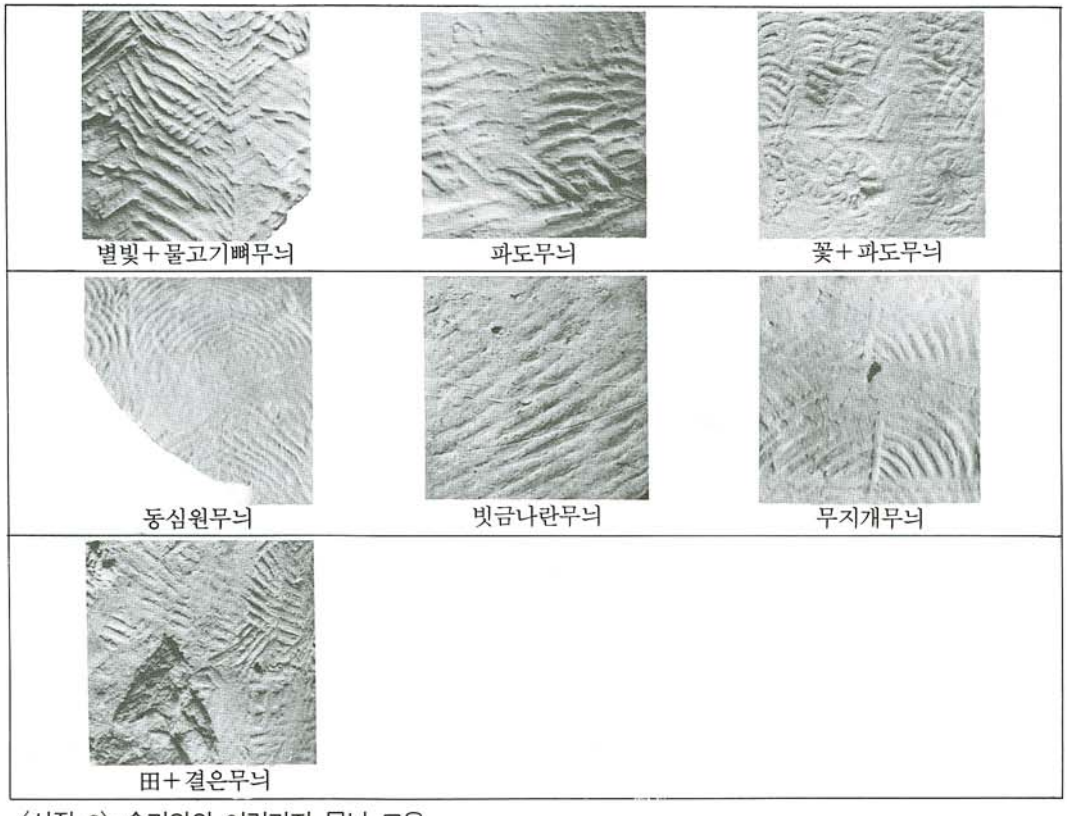
경질의 수키와는 301점인데, 색깔은 회청색 하나뿐이다. 연질 수키와는 48점으로 적은데, 이 가운데 회흑색 27점, 적갈색 14점, 회갈색이 7점 있다. 2호에서 나온 수키와 가운데 경질의 회청색이 150점으로 가장 많다. 3호의 경우는 역시 경질의 회청색이 제일 많다. 2, 3호 모두 연질은 적은 편이다.

다. 무늬

수키와의 겉면에는 여러 가지의 무늬를 볼 수 있으나 글씨는 없다. 무늬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가 넣어진 것이다. 이같은 무늬는 암키와처럼 무늬넣개로 두들겨 찍어서 만든 것이며, 새기기나 덧붙이기 수법은 쓰이지 않았다.

(1) 무늬기와

무늬의 나눔은 암키와와 마찬가지로 생김새를 기준하였다. 무늬는 생김새에 따라 물고기뼈무늬, 파도무늬, 꽃무늬, 별빛무늬, 동심원무늬, 빗금나란무늬, 무지개무늬, 결은무늬 그리고 田 무늬로 나뉜다(사진 6).



〈사진 6〉 수키와의 여러가지 무늬 모음

아래에서 무늬 별로 대표되는 유물을 하나씩 살펴보겠다(탑본 10~12, 사진 7).

① 물고기뼈무늬와 별빛무늬

물고기뼈무늬와 별빛무늬가 넣어진 것으로 2-685번(남은 길이 19.9cm, 남은 너비 16.6cm, 두께

1.6cm)이 대표된다. 물고기뼈의 무늬 너비는 약 5cm 이나 조각이기 때문에 길이는 알 수 없다. 이 유물의 가운데쯤에 암키와에 넣어진 것과 같은 별빛무늬가 있다.

② 파도무늬

이 무늬가 넣어진 유물로 2-85번(남은 길이 21.8cm, 너비 10.2cm, 두께 3.2cm)이 있다.

③ 꽃무늬와 파도무늬

대표 유물은 3-122번(남은 길이 32.3cm, 너비 16.9cm, 두께 2.3cm)이다. 암키와의 꽃무늬 4가지와 다른 모습으로, 꽃잎이 12장이다. 기와의 가운데쯤에 8개의 꽃무늬가 찍혀있고, 그 위와 아래는 4~5개의 곡선으로 이뤄진 파도무늬가 넣어져있다.

④ 동심원무늬

대표되는 유물은 3-271번(남은 길이 19.0cm, 너비 10.8cm, 두께 2.2cm)이다. 10개 이상의 동심원들이 무늬의 한 단위를 이룬는데, 지름은 약 6cm쯤 된다. 5개쯤이 찍혀있다.

⑤ 빗금나란무늬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비 2.5cm쯤 사이에 빗금이 나란하게 넣어진 것이 7줄 이상 이어진 것(2-565번)이고, 다른 하나는 암키와의 빗금나란무늬와 같은 모습의 것(4-6번)이다.

⑥ 무지개무늬

대표 유물로 2-755번(남은 길이 21.0cm, 너비 13.0cm, 두께 2.3cm)이 있다. 세로 3.8cm, 가로 8.4cm 크기 안에 8개의 크고 작은 반원이 포개져있어, 무지개가 뜬 것같은 느낌을 준다. 이 유물은 무지개무늬 한 가지로만 꾸며져있다.

⑦ 田+결은무늬

대표 유물은 2-980번(남은 길이 27.8cm, 너비 13.2cm, 두께 3.0cm)이다. 가운데쯤에 田 무늬를 한 줄 가로로 잇달아 놓고, 그 위와 아래에 결은무늬를 배치하였다. 결은무늬의 너비는 3.5cm 남짓하고 길이는 약 15cm쯤 되는데, 6줄 이상 넣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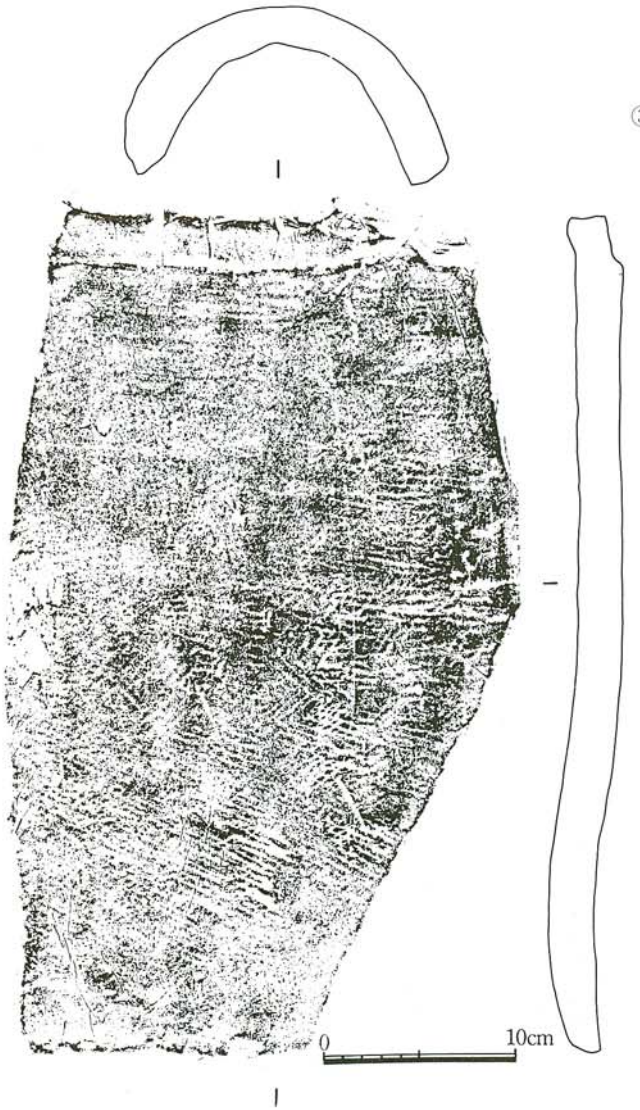
끝으로 각 유구에서 나온 무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표 12).

표 12. 각 유구에서 나온 무늬의 종류

유구/무늬:	물고기뼈	별빛	파도	꽃	동심원	빗금나란	무지개	田	결은무늬	민짜
1	-	-	○	-	○	-	-	-	-	○
2	○	○	○	-	-	○	○	○	○	-
3	○	○	○	○	○	○	-	○	○	○
4	-	-	○	-	-	○	-	-	○	○

①

②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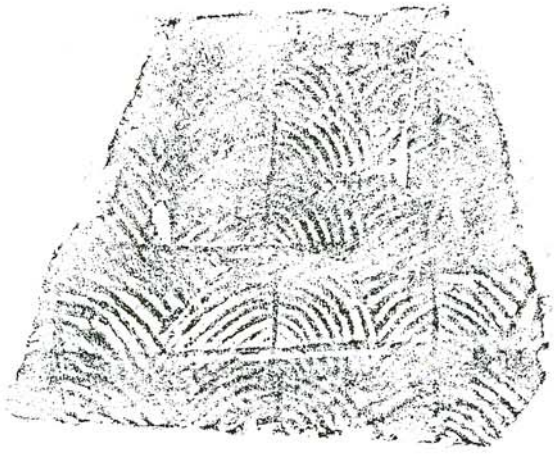
0 10cm

〈탑본10〉 무늬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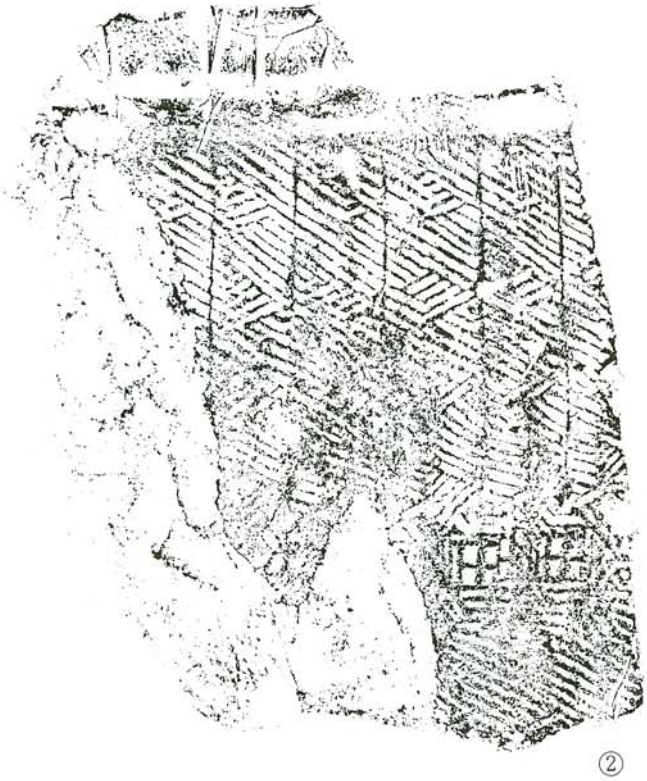
1. 파도무늬(2－85) 2. 별빛＋물고기뼈무늬(2－685) 3. 빗금나란무늬(3－453)

〈탑본11〉 무늬기와

1. 빗금나란무늬(2－565) 2. 동심원무늬(3－271) 3. 꽃＋파도무늬(3－122)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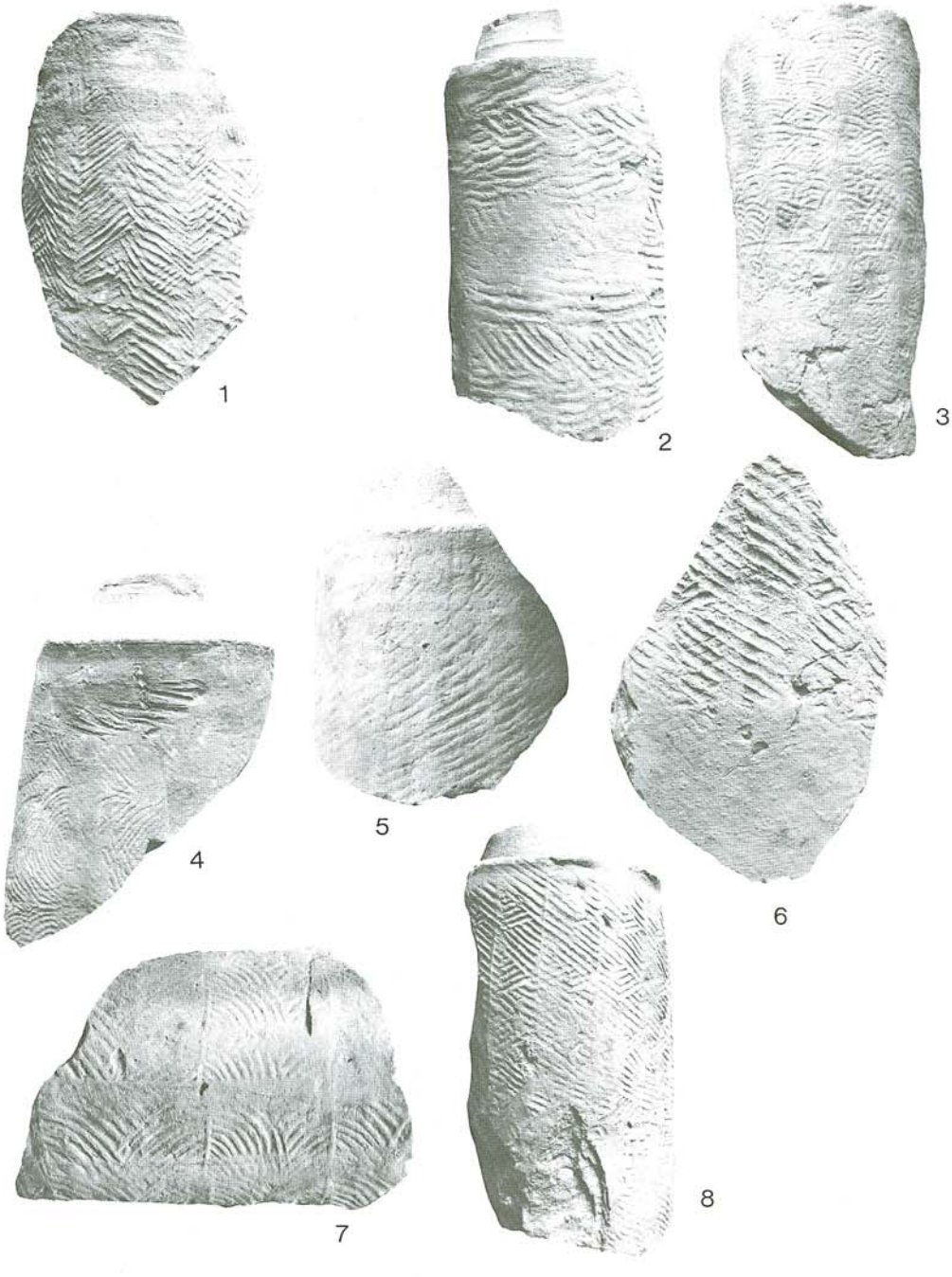


②

0 5cm

〈탑본 12〉 무늬기와

1. 무지개무늬(2－755) 2. 田＋결은무늬(2－980)



〈사진 7〉 무늬기와

1. 별빛+물고기뼈무늬(2-685) 2. 파도무늬(2-85) 3. 꽃+파도무늬(3-122)
4. 동심원무늬(3-271) 5. 빗금나란무늬(2-565) 6. 빗금나란무늬(4-6)
7. 무지개무늬(2-755) 8. 田+결은무늬(2-980)

3. 전돌

전돌은 2호와 3호 유구에서만 나왔는데,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두께를 잴 수 있는 것을 보고 대상으로 삼았다. 그 수는 52점으로 2호에서 20점, 3호에서 32점이다.

가. 크기

온전한 것이 없어 전돌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으로 여겨진다.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5점인데, 크기는 19.2, 20.3, 22.1, 22.2, 22.4cm이다(그림 1~2,사진 8). 이로 볼 때 전돌은 한 변이 20cm 안팎의 크기였다고 하겠다.

한편 전돌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표 13).

표 13. 2, 3호 전돌의 두께 분포 (cm)

두 께 :		2.01 ~2.20	2.81 ~3.20	3.21 ~3.60	3.61 ~4.00	4.01 ~4.40	4.41 ~4.80	4.81 ~5.20	5.21 ~5.40	모 듬
갯	2호:	0	7	8	1	3	1	0	0	20
수	3호:	1	7	8	4	7	4	0	1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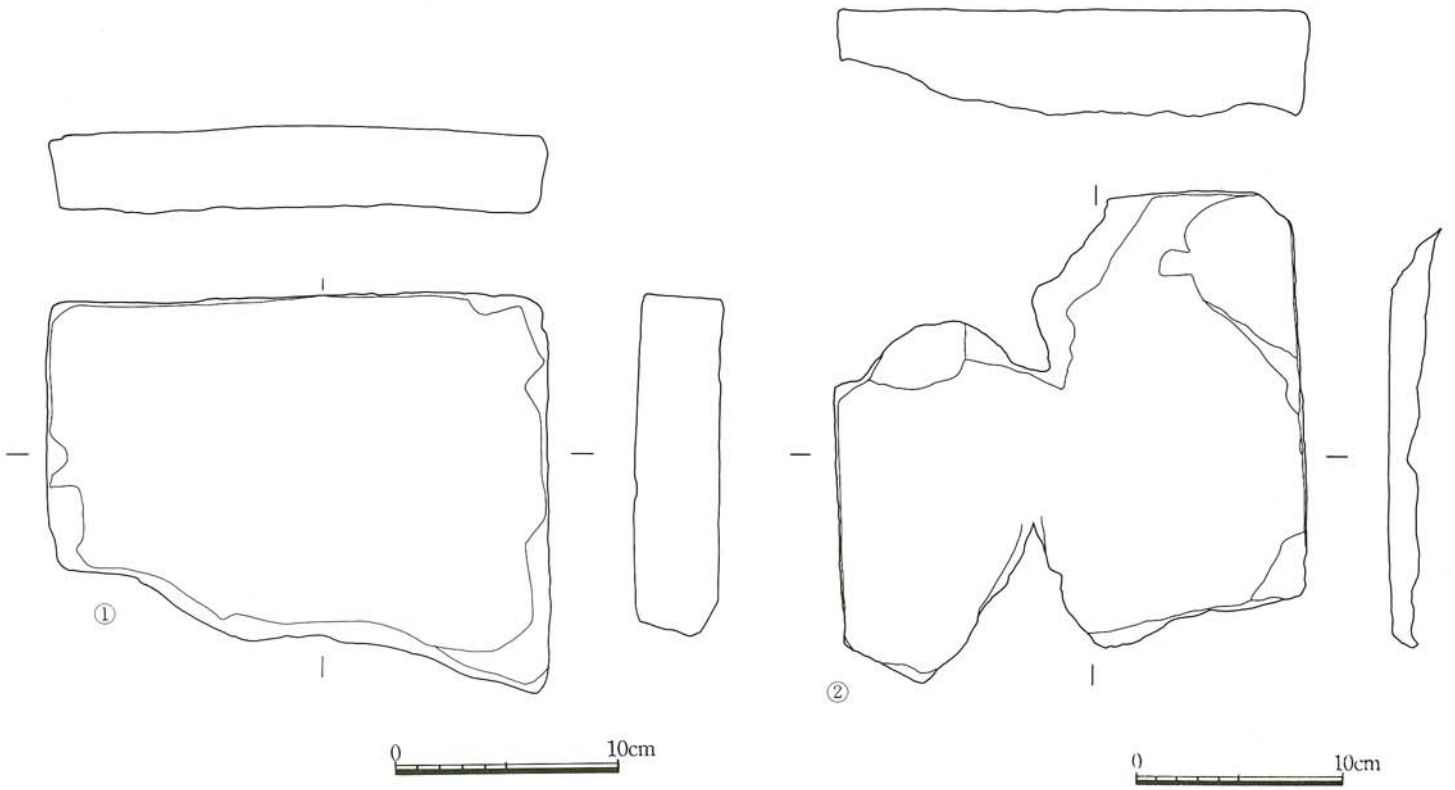
전체를 보면 두께가 2.81~4.00cm인 전돌이 67.3%를 차지하고, 4.01~4.80cm 짜리는 28.8%에 그친다. 한편 2호 유구에서 나온 전돌의 두께는 2.81~3.60cm인 것이 75%나 되지만, 3호유구의 전돌은 46.9%에 그친다. 한편 두께가 3.61~4.80cm인 것은 2호에선 25%뿐이나, 3호에선 46.9%로 많다.

나. 굳기와 색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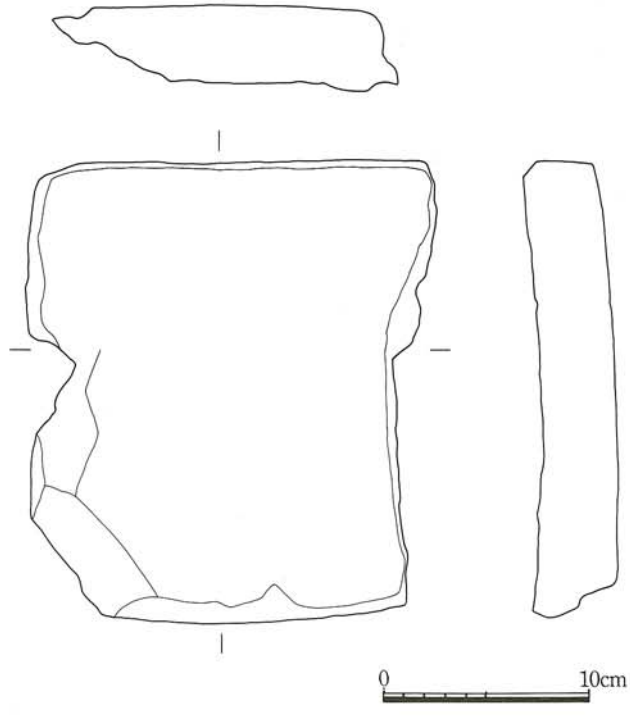
전돌의 굳기는 기와의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모두 경질이다. 색깔은 흑갈색 한 점을 빼고 모두 회청색 계통이다. 보고 대상에서 빠진 것 가운데 불에 타서 그을은 것이 4점 있다.

다. 겉면 특징

전돌의 겉면을 살펴보면 윗면과 옆면은 물손질로 매끈하게 하였으나, 바닥면은 대개 물손질을 하지 않은 거친 상태이다. 무늬가 넣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림 1〉 전돌 1. 3-7 2. 2-17



〈그림 2〉 전돌 3-3

〈사진 8〉 전돌 1. 3-7 2. 3-3

참 고 문 헌

김성구, 1992.《옛기와》1~125(대원사).

金誠龜・申光燮・金鍾萬・姜熙天, 1988.《夫餘 亭岩里 가마터》Ⅰ, 1~59(國立夫餘博物館).

金誠龜・金正完・權相烈・姜炅希, 1991.《昌寧 余草里 기와 가마터》1~74(國立晋州博物館・昌寧郡).

朴慶植, 1989.〈陳田寺址 發掘(1974~75年度)遺物의 考察〉《陳田寺址 發掘報告》61~159(檀國大學校 中央博物館).

박경식・양현주, 1987.〈기와와 塼〉《整備·復原을 위한 慶熙宮址 第二次 發掘調査報告書》141~182(檀國大學校 博物館・서울특별시).

송계현・하인수・최정혜・이해련・나동욱, 1993.《釜山 萬德寺址》1~162(釜山直轄市立博物館).

申光燮・金鍾萬, 1992.《부여 정암리 가마터》Ⅱ, 1~196(國立夫餘博物館・夫餘郡).

尹德香・郭長根, 1992.《되재성당》1~130(全羅北道 完州郡・全北大學校 博物館).

최맹식, 1989.〈미륵사지 기와가마터 조사〉《용암 차문섭교수 회갑기념 사학논총》.

崔孟植・金英澈・權奇允・金美蘭・柳哲・李景珠・車浩權, 1992.《王宮里遺蹟 發掘 中間報告》1~327(夫餘文化財硏究所).

한영희・임학종・권상렬・서오선・김성구・이상구・김영원, 1986.《陜川 竹竹里 廢寺址》1~137(慶尚南道・國立晋州博物館).

황의수, 1989.《조선 기와》1~118(대원사).

질 그 릇

많은 수의 질그릇이 각 유구에서 나왔으나, 모두 깨진 조각이며 완전한 것은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 모습과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여기서 아가리와 몸 조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었다. 곧 아가리는 전이 붙어 있는 것 그리고 몸은 그릇 조각으로서 전과 바닥이 아닌 것을 가리킨다. 크기에 있어 아가리나 바닥 조각은 지름의 20% 이상 남아있는 것, 몸 조각은 길이와 너비가 5cm 이상인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뚜껑이나 손잡이 조각은 모두 살폈으며, 몸 조각 가운데서도 특이한 것은 포함하였다. 다음은 이 기준에 맞는 질그릇의 부분별 갯수를 유구별로 정리한 것이다(표 1).

표 1. 각 유구에서 나온 질그릇의 부분별 갯수

유구 / 부분 :	아가리	몸(손잡이)	바닥	뚜껑	모듬
1 호	13	18 (6)	7	5	43
2 호	37	100 (15)	45	4	186
3 호	47	185 (10)	56	1	289
4 호	5	7 (2)	6	1	19
5 호	2	0	1	0	3
모듬	104	310 (33)	115	11	540

표에서 보듯이 3호에서 289점, 2호에서 186점으로 많이 나왔으며, 1호에서는 43점, 4호와 5호에서는 19점과 3점뿐이다. 이처럼 3호와 2호에서 주로 나왔는데, 유물이 두 유구에 집중된 현상은 기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부분 별로 보면, 몸 조각이 57.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가리와 바닥 부분이 19.3%와 21.3%이며, 뚜껑은 2.0%로 매우 적다. 곧 아가리와 바닥의 수량이 비슷하고 몸 조각이 이들 부분보다 3배 이상 많다.

몸 부분에는 손잡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몸 조각의 10.7%를 차지한다. 33점의 손잡이는 가로띠잡이 한 가지인데, 한 그릇에 보통 2개씩 달려있으므로 이를 기준하면 적어도 17그릇 이상이 버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1호 유구에서 손잡이는 6점으로 전체 질그릇 조각 수 가운데 14.0%, 2호 유구에서는 15점으로 8.1%, 3호 유구에서는 10점으로 3.5%, 4호 유구에서는 2점으로 10.5%를 차지한다. 건물터인 1호에서 손잡이의 출토 비율이 제일 높은 점이 주목된다.

한편 1호와 3호에서 나온 1점씩의 그릇조각(1-81번과 3-7번)이 서로 붙는다. 이 사실은 1호와 3호 두 유구가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 거의 같은 시기에 이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완전한 그릇이 한 점도 나오지 않아서 제 크기와 모습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 남아 있는 각 부분의 조각들 크기와 생김새, 굳기와 색깔 그리고 겉면 처리를 살펴 어떤 종류의 그릇들이었는지를 되짚어보자.

1. 크기

그릇 조각들의 크기는 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었다. 입지름과 바닥지름은 원의 일부를 알 때 이등변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한 방식으로 쟀다. 벽의 살 두께는 가장 두꺼운 데를 재었다. 먼저 입지름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유구별 입지름의 분포 크기(cm)

유구／크기：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2	45~65	모듬
1	0	0	0	1	0	1	4	2	1	0	2	1	0	1	0	0	0	13
2	1	1	4	0	3	3	3	1	2	4	6	4	0	1	2	0	2	37
3	0	0	0	3	6	3	3	4	1	3	6	4	5	3	2	1	3	47
4	0	0	0	1	3	0	0	0	0	0	1	0	0	0	0	0	0	5
5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2
모듬	1	1	4	5	13	7	11	7	4	7	15	9	5	5	4	1	5	104

입지름의 크기는 13~65cm로 나타나는데, 20~29cm, 30~39cm의 크기가 각각 42점과 40점으로 많고, 40cm 이상은 10점, 19cm 이하는 12점으로 적다. 이 가운데 32~33cm 짜리가 14점, 20~21cm 짜리가 12점, 24~25cm 짜리가 10점이다.

분포상을 그려보면 두 개의 곡선이 나타나는데, 첫번째 무리는 14~27cm 짜리로 51점(49.0%)이 모여있고, 두번째 무리는 28~41cm 짜리로 49점(47.1%)이 모여있다.

2호 유구에서 나온 질그릇의 입지름 크기는 29~35cm에 16점이 몰려있으며, 40cm 이상과 15cm 이하는 드물다. 3호 유구의 질그릇 경우 18~27cm, 30~39cm에 각각 19점과 21점이 몰려 있으며, 41cm 이상은 적다.

이어서 바닥 지름의 크기를 살펴보려 한다. 그런데 바닥 조각 가운데 지름을 알 수 없는 것이 2호에서 4점, 3호에서 12점 있다. 이들을 뺀 나머지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유구별 바닥 지름의 크기 분포 (cm)

유구 / 크기 :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모듬
1	0	1	2	1	1	0	2	0	0	0	7
2	0	3	5	6	12	8	3	4	0	0	41
3	0	2	7	10	7	8	5	2	2	1	44
4	1	0	0	1	2	1	0	0	1	0	6
5	1	0	0	0	0	0	0	0	0	0	1
모듬	2	6	14	18	22	17	10	6	3	1	99

바닥 지름의 크기는 10~28cm로 나타나는데, 10~20cm 짜리는 79점이고 21~28cm 짜리는 20점이다. 이 가운데 17~18cm인 것이 22점, 15~16cm인 것은 18점, 19~20cm인 것 17점, 13~14cm인 것 14점이다. 따라서 바닥 지름은 대부분 11~24cm임을 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13~22cm인 것이 많고 25cm 이상이나 10cm 이하의 바닥은 적었음을 알 수 있다.

2호 유구에서는 17~18cm인 것이 12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19~20cm짜리 8점이다. 3호 유구의 경우 15~16cm 짜리가 10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9~20cm 짜리로 8점이다.

바닥과 아가리의 크기 가운데 많이 나온 것들을 견주어보면 입지름이 바닥지름보다 대개 1.25~2.17 배쯤 큰 모습의 그릇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에는 벽의 두께를 재어보았다(표 4).

표 4. 유구별 벽 두께의 크기 분포 (cm)

유구 / 두께 :	0.21 ~0.30	0.31 ~0.40	0.41 ~0.50	0.51 ~0.60	0.61 ~0.70	0.71 ~0.80	0.81 ~0.90	모 듬
1	0	1	4	4	5	3	1	18
2	3	16	25	26	17	9	4	100
3	7	33	53	55	25	7	5	185
4	0	0	0	4	3	0	0	7
모듬	10	50	82	89	50	19	10	310

벽의 살 두께는 0.2~0.9cm의 크기이다. 0.51~0.60cm 짜리가 89점으로 28.7%를 차지하며, 0.41~0.50cm 짜리가 26.5%로 두번째이다. 세번째는 0.31~0.40cm, 0.61~0.70cm 짜리로 16.1% 이다.

2호 유구에서 나온 벽 조각의 두께는 0.51~0.60cm와 0.41~0.50cm 짜리가 절반을 조금 넘고, 3호 유구의 경우는 0.51~0.60cm와 0.41~0.50cm 짜리가 반 이상이다.

따라서 벽 두께는 대부분 0.31~0.70cm 임을 알 수 있고, 0.30cm 이하나 0.7cm 이상은 매우 적

음을 알 수 있다.

2. 굳기와 색깔

질그릇은 굳기와 색깔이 똑같지 않다. 굳기는 손톱으로 긁히는 정도에 따라 경질과 연질로 그리고 색깔은 회색, 회청색, 회갈색, 회흑색, 황회색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구분된 질그릇의 각 유구별 갯수는 아래와 같다(표 5).

표 5. 각 유구별 질그릇의 굳기와 색깔에 따른 나눔

굳 기 /	색 깔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모 듬
	회 색	10	34	41	5	0	90
경	회 청 색	8	43	55	4	2	112
질	회 갈 색	1	1	2	1	0	5
	회 흑 색	1	3	8	0	0	12
	회 색	14	71	116	5	0	206
연	회 청 색	2	3	3	1	0	9
	회 갈 색	1	16	24	0	1	42
질	회 흑 색	4	7	18	1	0	30
	황 회 색	2	8	22	2	0	34
모 듬		43	186	289	19	3	540

질그릇 가운데 연질이 59.6%로 경질보다 더 많다. 색깔로는 회색이 54.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회청색으로 22.4% 이다. 회갈색, 회흑색, 황회색은 각각 8.7%, 7.8%, 6.3%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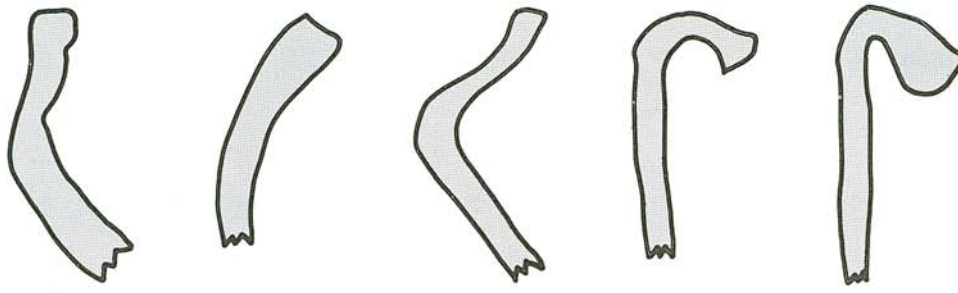
경질은 회청색과 회색이 대부분이고 회갈색과 회흑색은 드물다. 한편 연질은 상당수가 회색이고 회청색은 매우 드물다.

3. 그릇꼴

완전한 모습의 질그릇이 나오지 않았을 때, 전(아가리), 바닥과 몸 조각은 원래의 그릇 모습을 되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전, 바닥 그리고 몸에 달린 손잡이의 생김새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의 그릇꼴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되는 유물을 대상으로 전, 몸, 바닥, 뚜껑의 생김새가 어떠한 가를 살펴보려 한다.

가. 전

전은 생김새, 특히 옆모습의 기울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릇을 바로 놓았을 때, 크게 수직을 이루는 "곧은전", 45도 안팎으로 바라진 "바라진전", 90도 이상 꺾인 "꺾인전"으로 나뉜다. 그리고 바라진전은 곡선으로 바라진 것과 직선에 가깝게 바라진 것으로, 또 꺾인전은 기울기가 90도쯤 되는 것과 90도가 넘는 것으로 세분된다(그림 1).



〈그림 1〉 생김새에 따른 질그릇 전의 나눔

각 유구에서 나온 전의 종류와 수량은 〈표 6〉과 같다.

104점 가운데 꺾인전이 70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바라진전 28점 그리고 곧은전 6점의 순서이다. 꺾인전 가운데는 90도 이상 꺾인전이 90도쯤 꺾인전보다 1.5배, 그리고 바라진전 중에는 직선으로 바라진 것이 곡선으로 바라진 것보다 3.7배나 더 많다.

1호 유구에서는 꺾인전이 69.2%, 2호와 3호 유구에서도 꺾인전이 67.6%, 72.3%로 많다. 바라진전은 2호에서 24.3%, 3호에서 25.5%를 차지한다.

표 6. 각 유구별 전의 종류와 수량

		바라진전		꺾인전		
유구 / 전 :	곧은전	곡선	직선	90도쯤	90도 이상	모 듬
1	1	1	2	5	4	13
2	3	1	8	10	15	37
3	1	3	9	11	23	47
4	0	1	3	1	0	5
5	1	0	0	1	0	2
모듬	6	6	22	28	42	104

대표되는 유물은 다음과 같다(그림 2, 3, 사진 1, 2).

① 1－97

회색이며, 연질이다. 전은 몸에서 바깥쪽으로 90도 이상 꺾은 뒤 테를 두툼하게 처리하였다. 추정 입지름은 31.8cm로 큰 그릇으로 가늠된다.

② 1－100

회흑색이며, 연질이다. 전은 몸에서 바깥쪽으로 90도쯤 꺾었고 가장자리를 도톰하게 하였다. 추정 입지름은 25.6cm이다.

③ 2－97

회색이며, 경질이다. 전은 약간 바라졌으나 곧은전에 가깝다. 전의 아랫쪽에 그릇살을 집어 가는 띠를 돌렸다. 추정 입지름은 19.8cm이다.

④ 2－112

회갈색의 경질이다. 전은 45도쯤 바라졌으며, 위 끝은 둥글게 만들었다. 전의 두께는 1.2cm, 높이는 3.5cm이며, 추정 입지름은 31.0cm여서 대형의 항아리로 가늠된다.

⑤ 2－115

회색이며, 경질이다. 전의 휘임새는 수직에 가깝다. 전의 겉면에는 얕은 홈을 내어 꾸몄다. 추정 입지름은 15.2cm이다.

⑥ 2－166

황회색이며, 연질이다. 전을 45도쯤 바라지게 하였고, 전의 위끝을 두껍고 밋밋하게 처리하였다. 추정 입지름은 19.8cm이다.

⑦ 2－172

회청색의 경질이다. 곧은전에 가깝다. 전의 길이는 짧고 살은 두꺼운 편이다. 추정 입지름은 13.0 cm이다.

⑧ 2－258

회색이며, 경질이다. 곡선으로 바라진전이다. 전의 두께는 0.8cm이며, 입지름은 39.6cm로 아가리가 매우 큰 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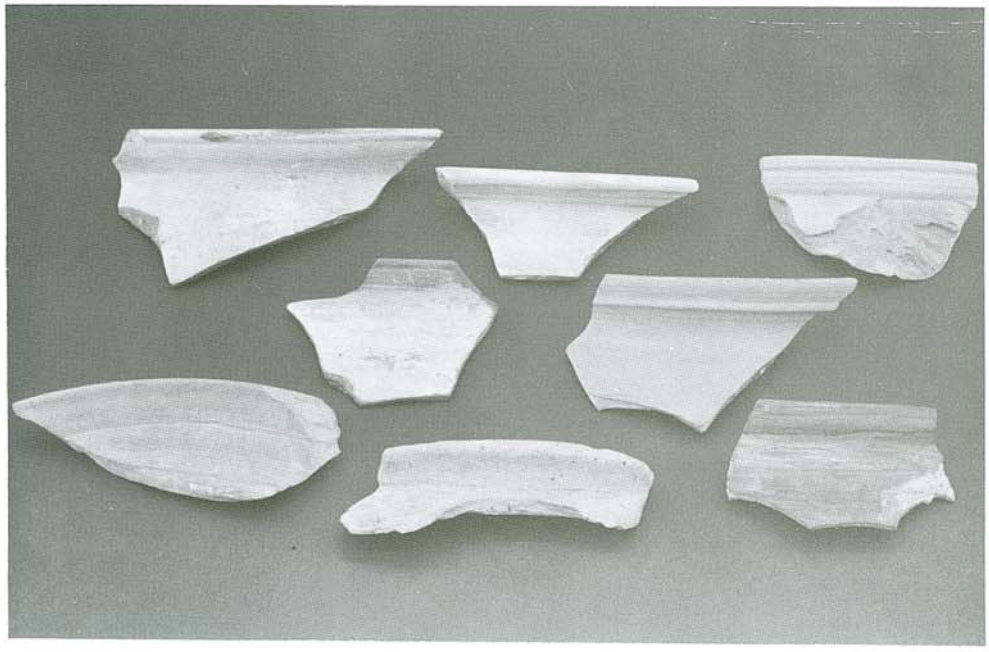
⑨ 3－510

회청색이며, 경질이다. 약간 바라졌으나 곧은전에 가깝다. 전의 윗 부분을 둥글게 마감하였다. 추정 입지름은 18.6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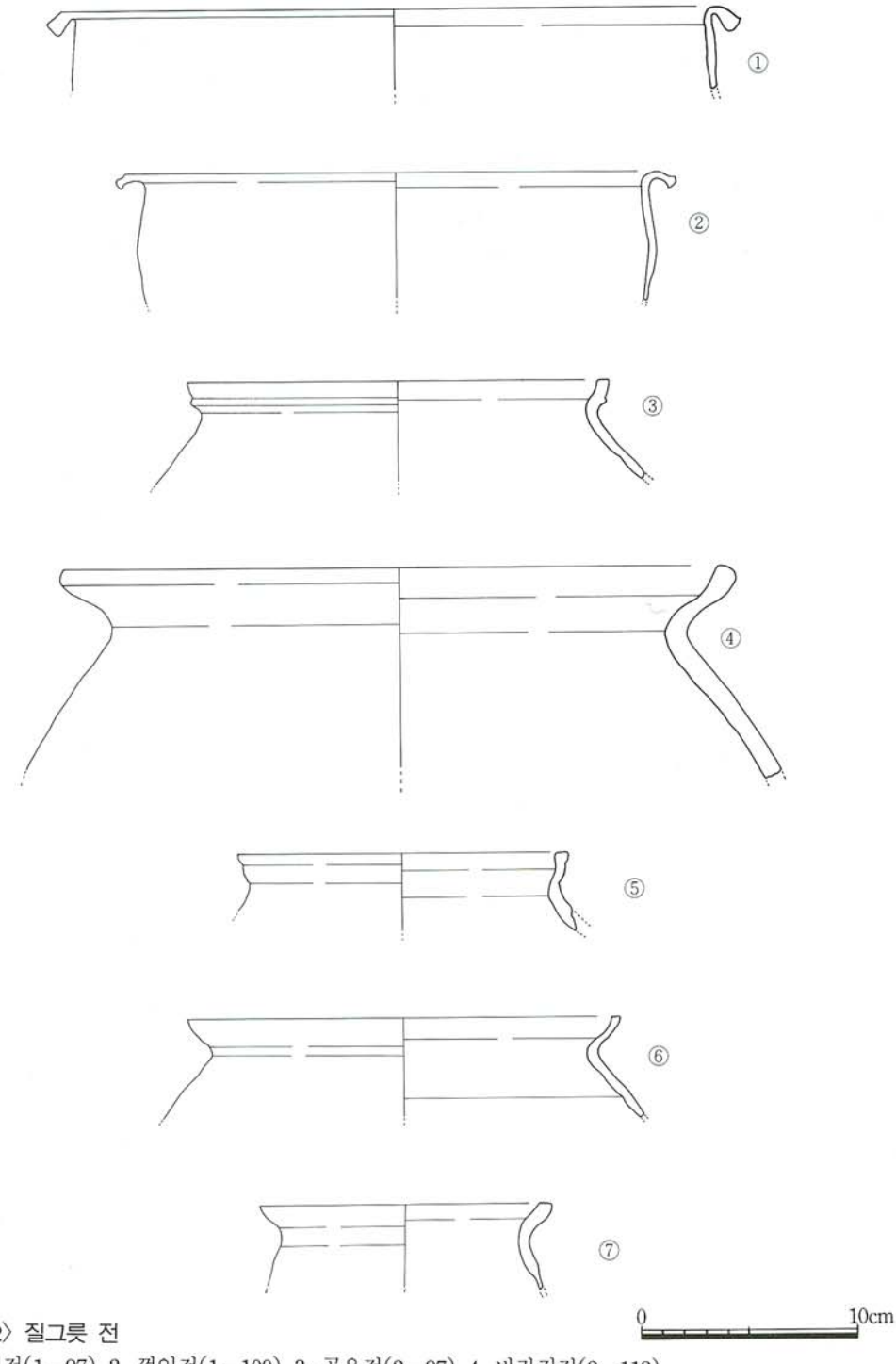
⑩ 3－574

회청색의 경질이다. 전은 바라졌는데,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며 윗면은 밋밋하다. 추정 입지름은 32.7cm로 매우 큰 항아리로 가늠된다.

〈사진 1〉 질그릇 전의 여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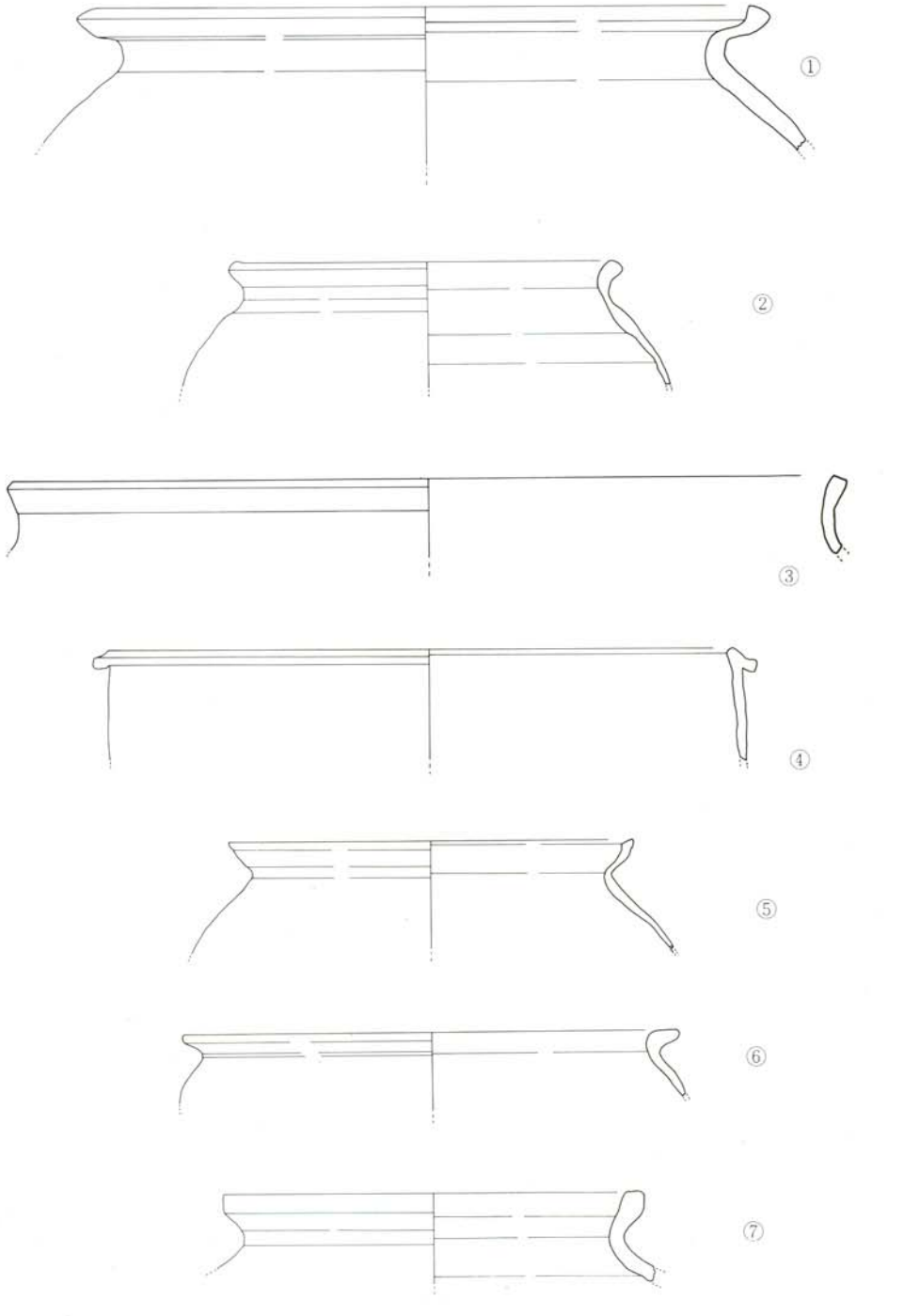


〈사진 2〉 질그릇 전의 여러가지



〈그림 2〉 질그릇 전

1. 꺾인전(1－97) 2. 꺾인전(1－100) 3. 곧은전(2－97) 4. 바라진전(2－112)
5. 곧은전(2－115) 6. 바라진전(2－166) 7. 곧은전(2－172)



〈그림 3〉 질그릇 전

1. 바라진전(2－258) 2. 곧은전(3－510) 3. 바라진전(3－574) 4. 꺾인전(4－2)
5. 바라진전(4－15) 6. 꺾인전(5－6) 7. 곧은전(5－11)

⑪ 4－2

회색이며, 연질이다. 90도 이상 꺾인전이며, 추정 입지름은 31.4cm로 시루꼴의 그릇으로 여겨진다.

⑫ 4－15

황회색이고 연질이다. 45도쯤 바라진전이다. 전은 위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위끝은 밋밋하다. 추정 입지름은 19.0cm이다.

⑬ 5－6

회갈색이며, 연질이다. 90도쯤 꺾인전이나, 다른 유구에서 나온 꺾인전과는 전의 단면 모양이 다르다. 곧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며 세모꼴로 얇아진다. 추정 입지름은 23.5cm이다.

⑭ 5－11

회청색의 경질이다. 곧은전에 가깝다. 전의 위끝은 밋밋하며, 전의 두께는 1.2cm이다. 추정 입지름은 19.9cm이다.

나. 몸

몸 조각은 310점인데 여기에는 손잡이가 33점 포함되어 있다. 몸 조각은 277점으로, 볼록하게 배부른 것, 밋밋하게 전으로 이어지는 것 등이 있다. 한편 손잡이는 모두 가로띠잡이다. 손잡이와 몸 조각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것들은 항아리나 단지, 또는 시루의 조각들로 여겨진다.

대표되는 유물은 다음과 같다(사진 3, 4, 5, 그림 4)

① 2－179번

회청색의 경질이다. 휘임새로 보아 큰 단지나 항아리 크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래질자국 위에 너비 1.1cm의 질띠를 가로로 덧붙였다. 남은 너비 14.2cm, 남은 길이 12.5cm, 두께 0.5cm이다.

② 3－6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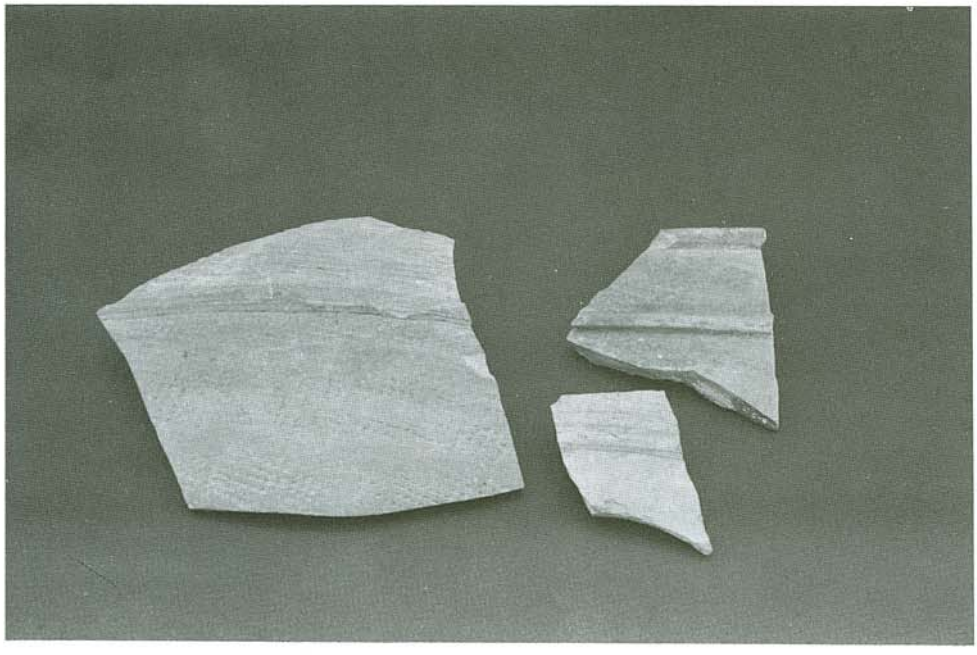
회청색의 경질이다. 물손질로 사내끼무늬를 슬쩍 지운 뒤 새기기로 무늬를 넣었는데, 물결무늬의 위와 아래에 직선을 두 줄씩 배치하였다. 남은 너비 5.12cm, 남은 길이 4.8cm, 두께 0.7cm이다.

③ 3－78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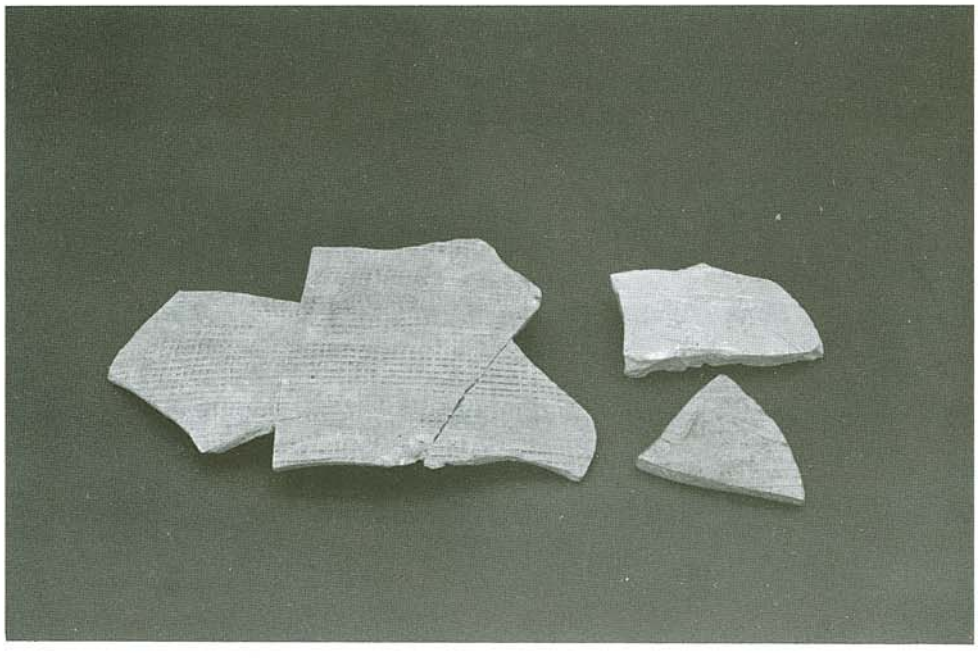
회갈색의 연질이다. 가로 휘임새가 완만하여 매우 큰 그릇의 벽 조각으로 생각된다. 겉면에는 사내끼무늬가 뚜렷하다. 남은 너비 16.2cm, 남은 길이 10.1cm, 두께 0.5cm이다.

④ 4－3번

회색의 경질이다. 가로 휘임새가 완만하다. 수래질 자국 위에 새기기로 직선 두 줄과 물결무늬를 넣었다. 남은 너비 4.6cm, 남은 길이 7.3cm이다.



〈사진 3〉 질그릇 몸의 여러가지



〈사진 4〉 질그릇 몸의 여러가지

〈사진 5〉 가로띠잡이

⑤ 4－4번

회청색의 경질이다. 가로 휘임새가 완만하다. 겉면에는 사내끼무늬 위에 너비 1cm 쯤의 질 띠 두 개를 3.6cm의 간격으로 덧붙였다. 살 두께, 휘임새, 두 줄의 굵은 질띠는 매우 큰 그릇이었음을 가리킨다. 남은 너비 6.7cm, 남은 길이 7.7cm, 두께 0.7cm이다.

⑥ 1－8번

손잡이 조각으로 회흑색의 경질이다. 남은 너비 2.8cm, 남은 길이 5.9cm, 두께 0.5cm이다.

⑦ 2－320번

손잡이 조각인데, 회색의 연질이다. 남은 너비 2.4cm, 남은 길이 7.4cm, 두께 0.7cm이다.

⑧ 3－429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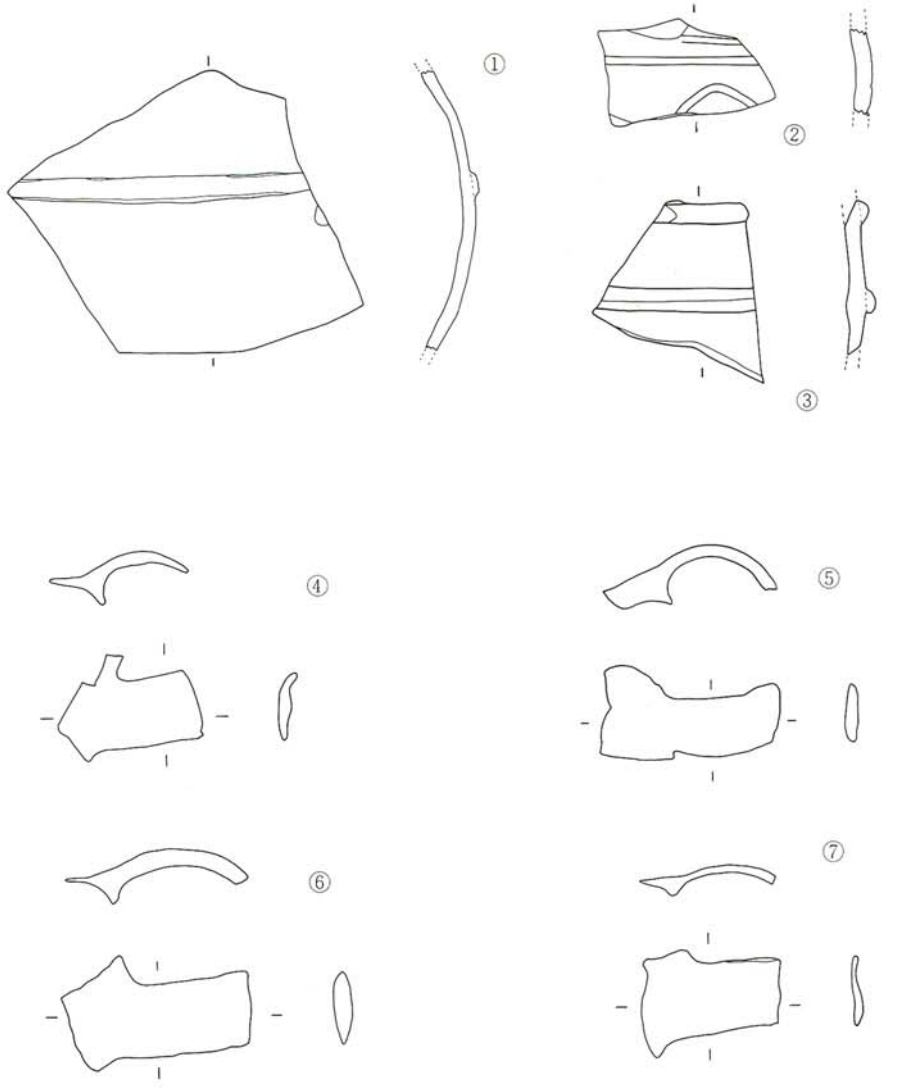
손잡이 조각으로 회색의 연질이다. 남은 너비 2.9cm, 남은 길이 7.7cm, 두께 0.7cm이다.

⑨ 4－17번

손잡이 조각이다. 회흑색이며 연질이다. 남은 너비 2.9cm, 남은 길이 5.8cm, 두께 0.6cm이다.

다. 바닥

바닥은 모두 115점이 나왔는데, 그 모습은 한 가지로 옆 모습은 바깥쪽으로 비스듬한 니은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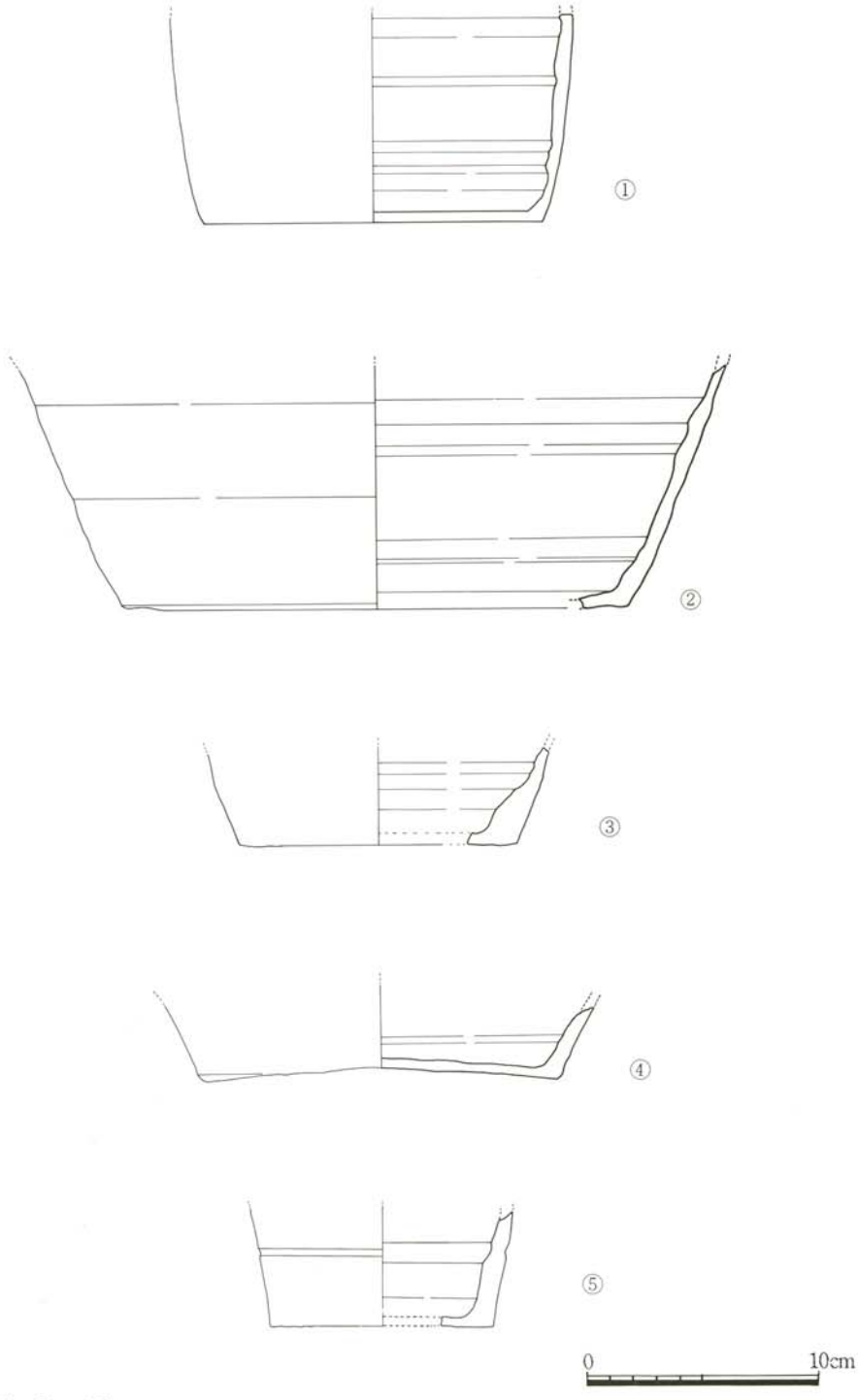
〈그림 4〉 질그릇 벽(몸)
1. 벽(2－179) 2. 벽(4－3) 3. 벽(4－4) 4. 가로띠잡이(1－8)
5. 가로띠잡이(2－320) 6. 가로띠잡이(3－429) 7. 가로띠잡이(4－17)

오늘날의 옹기 바닥과 같다. 이것은 물레판 위에 흙덩어리를 놓고 수래로 두들겨서 납작한 판을 만든 뒤 밑가새로 둥글게 자르고, 그 가장자리에 가래질을 쌓고 수래질을 하여 밖으로 비스듬하게 벽을 만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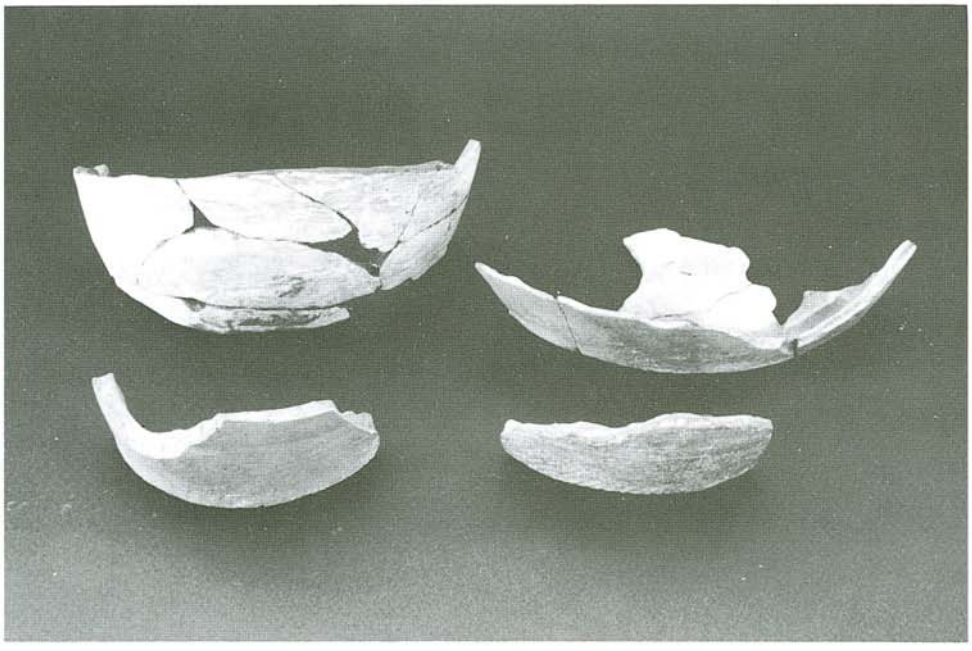
유구별로 대표되는 유물은 다음과 같다(그림 5, 사진 6).

①2－1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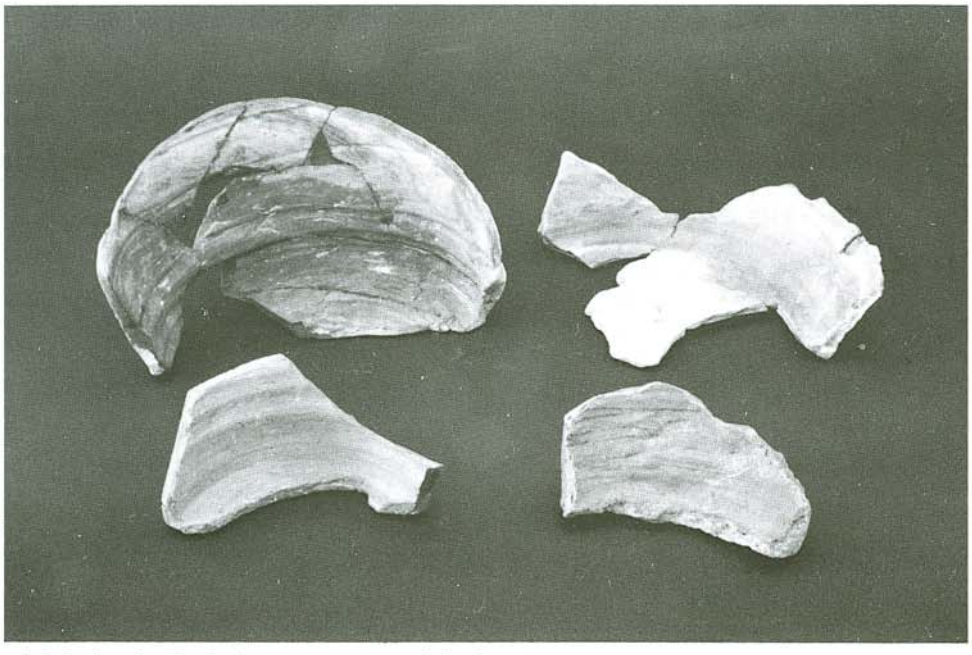
회색이며 연질이다. 바닥은 1/3쯤 남아있는데 벽과 이어진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추정지름은



〈그림 5〉 질그릇 바닥
1. 2－1　2. 2－2　3. 2－120　4.3－70　5. 5－10



(1) 바깥 모습



〈사진 6〉 질그릇 바닥 (2) 안 모습

14cm이다.

②2－2번

벽과 이어지는 바닥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회색이며 경질이다. 추정지름 21.6cm이다. 크기로 보아 항아리의 바닥으로 여겨진다.

③2－120번

벽과 이어지는 바닥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회청색의 경질이다. 추정지름 12cm이다.

④3－70번

바닥은 1／3 남짓 남았으며 벽과 이어진다. 회갈색이며 연질이다. 추정지름은 15cm인데, 단지의 바닥 쯤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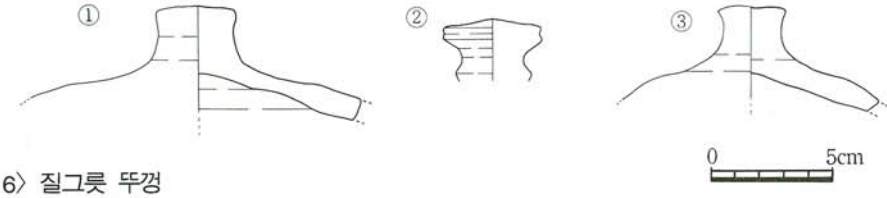
⑤5－10번

회청색이며 경질이다. 추정지름 9.6cm이다. 모양과 크기로 보아 병의 바닥으로 여겨진다.

라. 뚜껑(그림 6, 사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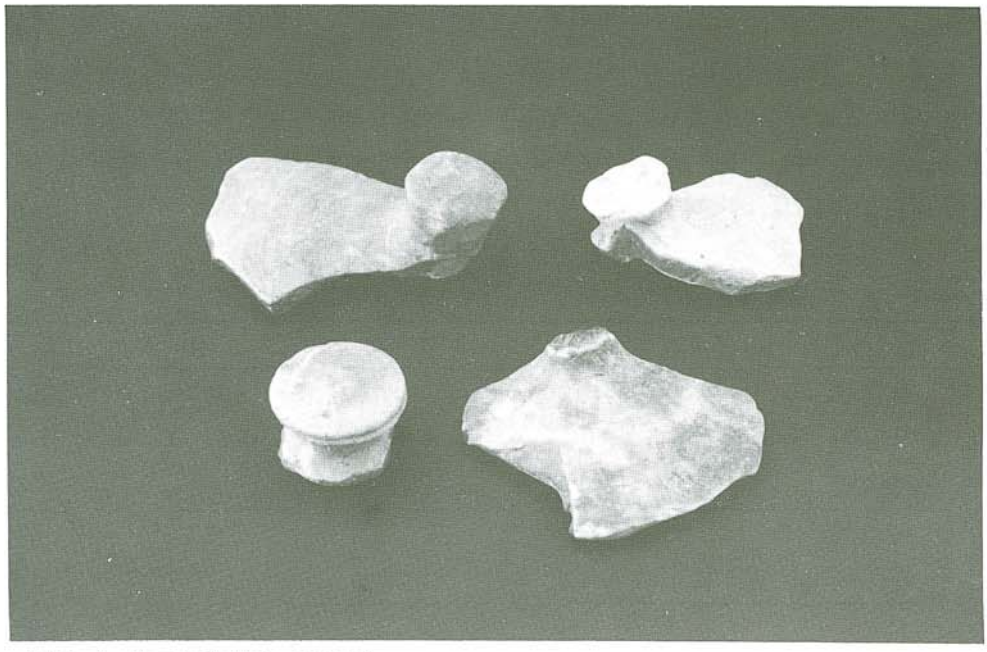
꼭지가 달리거나 떨어져나간 뚜껑 조각과 꼭지가 여기에 속한다. 모두 11점 인데, 완전한 뚜껑이 없어 본래 크기는 알 수 없다. 남아있는 조각의 지름은 8.8cm(1－5번), 15.4cm(2－182번), 7.1cm(3－16번) 쯤이며 휜 정도를 볼 때, 오늘날 공기나 뚝배기의 뚜껑 정도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뚜껑의 안쪽면에는 물레질 자국이 뚜렷하나, 겉면은 물손질된 상태이며 더 이상의 꾸밈이 없다.

꼭지의 모습은 2 가지인데, 하나는 잡이의 가운데를 오목하게 깍아내었고(1－1번) 다른 하나는 빚은 채 깍아내지 않은 것이다(2－182번, 3－16번). 1－1번의 꼭지 크기는 너비 4.0cm, 높이는 2.3cm이고, 2-182번은 너비 3.2cm, 높이 2.5cm이다. 1－1번 꼭지는 크기나 모양으로 보아 앞의 유물들보다 더 큰 질밥솥 정도의 뚜껑에 달린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림 6〉 질그릇 뚜껑

1. 2－182 2. 1－1 3. 3－16



〈사진 7〉 질그릇 뚜껑의 여러가지

4. 무늬

질그릇의 겉면에는 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자국들이 있고, 또 일부러 만든 무늬가 있다. 벽 만들기와 동시에 생긴 자국들은 주로 수래(두들개)의 오목볼록한 면이 찍힌 것이지만, 그것을 지울 수 있는 데도 그대로 남긴 점에서 겉면을 꾸민 무늬로 볼 수 있다. 한편 벽을 완성한 뒤 연장으로 새기거나 질흙을 덧붙여 무늬를 만든 것이 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생긴 것을 모두 무늬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무늬의 종류는 크게 두들긴무늬, 새긴무늬, 덧무늬와 무늬 없는 민짜로 나뉜다. 이들 무늬 가운데 두들긴무늬는 수래의 면에 새겨진 무늬에 따라 사내끼무늬, 빗사내끼무늬, 빗금나란무늬로 그리고 새긴무늬는 무늬의 생김새에 따라 직선무늬, 물결무늬로 더 나뉜다.

그런데 한 조각에 한 가지의 무늬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두·세 가지의 무늬가 함께 넣어진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두들긴무늬+새긴무늬", 또는 "두들긴무늬+새긴무늬+덧무늬" 같은 것이다. 후자의 경우 모두 세었으므로 무늬의 수는 실재 몸 조각 수보다 34나 더 많아졌다. 이제 몸에 넣어진 무늬의 종류를 유구별로 살펴보자(표 7).

몸에 넣어진 무늬 가운데 두들긴무늬가 253점으로 첫 자리를 차지하고, 두번째는 무늬없는 것으로 51점이며, 세번째는 새긴무늬로 30점이고, 덧무늬는 10점으로 제일 적다. 두들긴무늬 가운데

사내끼무늬가 96.4%로, 또 새긴무늬 중에는 직선무늬가 70%로 가장 많다.

이로 볼 때 그릇꼴이 완성된 뒤 겉면치레로 일부러 넣은 무늬는 29.7%에 그치므로 질그릇의 겉면치레에는 별로 마음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질그릇은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제 몫을 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현상은 당시의 그릇갖춤새에서 화려한 몫을 맡은 분청이나 백자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7. 각 유구별 질그릇의 무늬 종류

무 늬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모 듬
두	사 내 끼	10	80	151	3	0	244
들	빗사내끼	0	5	2	1	0	8
긴	빗금나란	0	0	1	0	0	1
새	직 선	0	8	12	1	0	21
긴	물 결	0	6	1	2	0	9
	덧	0	5	3	2	0	10
민	짜	8	13	28	2	0	51
모	듬	18	117	198	11	0	344

참 고 문 헌

박성원, 1993. 〈질그릇의 제작과정〉《조선시대 질그릇》 149~155(연세대학교 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 1991.《고려시대 질그릇》 1~114(연세대학교 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 1993.《조선시대 질그릇》 1~129(연세대학교 박물관).

尹龍二, 1991. 〈고려시대 질그릇(陶器)의 變遷과 特色〉《고려시대 질그릇》 117~127(연세대학교 박물관).

尹龍二, 1993. 〈朝鮮時代 질그릇(陶器)의 變遷과 特色〉《조선시대 질그릇》 133~139(연세대학교 박물관).

이기길, 1991. 〈고려시대 질그릇의 제작기법 연구-물그릇 만들기를 중심으로-〉《고려시대 질그릇》 129~142(연세대학교 박물관).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1987.《統一新羅·高麗 질그릇》 1~137(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鄭明鎬, 1993. 〈조선시대 질그릇의 종류와 쓰임새〉《조선시대 질그릇》 141~147(연세대학교 박물관).

옹 기

여기서 옹기라 함은 그릇 가운데 질그릇, 분청, 백자가 아닌 것으로, 자기처럼 단단하고 겉면에 유약이 입혀졌으며 녹두색, 밤색, 흑갈색을 띄는 것을 가리킨다. 문흥동유적에서 발굴된 옹기는 모두 깨진 조각이며 완전한 것은 없다. 따라서 아가리나 바닥 조각은 지름의 20% 이상 남아있는 것, 몸 조각은 길이와 너비가 3cm 이상인 것을 다루었다. 다음은 이 기준에 맞는 옹기의 부분별 갯수를 유구별로 정리한 것이다(표 1).

표 1. 각 유구에서 나온 옹기의 부분별 갯수

유규 ／ 부분 :	아가리	몸	바닥	모듬
1호	0	12	1	13
2호	0	31	3	34
3호	3	34	5	42
4호	0	2	0	2
5호	0	1	0	1
모 듬	3	80	9	92

분류 기준에 드는 옹기의 수는 모두 92점이다. 이 가운데 몸이 80점으로 86.9%를 차지하고, 바닥은 9점이며 아가리는 3점이다. 옹기는 3호에서 42점, 2호에서 34점, 1호에서 13점 그리고 4호와 5호에서는 2점, 1점뿐이다.

완전한 그릇이 한 점도 없어서 어떤 크기와 모습의 그릇인 지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 남아있는 각 부분의 조각들 크기와 생김새, 색깔 그리고 겉면 처리를 살펴 어떤 종류의 그릇들이었는 지를 되짚어보자.

1. 크기

그릇 조각들의 크기는 질그릇과 마찬가지 기준으로 재었다. 먼저 입지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아가리 조각은 3점으로 모두 3호에서 나온 것인데, 그 지름은 15cm(3－47번), 19cm(3－286번), 25cm(3－232번) 이다.

표 2. 입지름 (cm)

유구／ 지름 :	15	19	25	모듬
3	1	1	1	3

이어서 바닥의 크기를 살펴보았는데, 바닥 조각 가운데 지름을 잴 수 있는 것은 2호와 3호에서 2점씩이다(표 3). 바닥 지름의 크기는 14~30cm로 나타난다.

2호 유구의 옹기는 바닥지름이 30cm(2-167번), 28cm(2-343번)로 크고, 3호의 옹기는 바닥지름이 14cm(3-507번), 16cm(3-618번)로 작다.

표 3. 바닥지름 (cm)

유구/ 지름 :	14	16	28	30	모듬
2	0	0	1	1	2
3	1	1	0	0	2
모 듬	1	1	1	1	4

다음에는 벽의 두께를 재어보았다(표 4).

표 4. 유구별 벽 두께의 크기 분포 (cm)

유구/두께 :	0.21 ~0.30	0.31 ~0.40	0.41 ~0.50	0.51 ~0.60	0.61 ~0.70	0.71 ~0.80	0.81 ~0.90	0.91 ~1.00	10 모듬
1	2	4	2	4	0	0	0	0	12
2	3	8	10	7	2	0	0	1	31
3	0	9	13	8	2	2	0	0	34
4	0	0	0	1	1	0	0	0	34
5	0	0	1	0	0	0	0	0	1
모 듬	5	21	26	20	5	2	0	1	80

벽의 살 두께는 0.2~1.0cm의 크기이다. 0.41~0.50cm 짜리가 26점으로 가장 많고, 0.31~0.40cm 짜리는 21점, 0.51~0.60cm 짜리는 20점이며, 0.21~0.30cm 짜리와 0.61~0.70cm 짜리는 5점씩이고, 0.71~0.80cm 짜리가 2점, 0.91~1.00cm 짜리는 1점 뿐이다.

2호 유구에서 나온 벽 조각의 두께는 0.41~0.50cm 짜리가 10점으로 가장 많고, 0.31~0.40cm 짜리가 8점, 0.51~0.60cm 짜리가 7점으로 많다. 3호 유구의 경우는 0.41~0.50cm 짜리가 13점으로 제일 많고, 0.31~0.40cm 짜리는 9점이며, 0.51~0.60cm 짜리는 8점이다.

따라서 벽 두께는 대부분 0.31~0.60cm 임을 알 수 있고, 0.6cm 이상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각이 제법 큰 것이 있어 배지름을 재어보니 약 24cm(2-344번), 약 36cm(2-345번)로 나타난다.

2. 색깔

옹기의 색깔은 녹두색과 밤색 그리고 흑갈색으로 나뉜다. 밤색의 조각이 녹두색과 다른 점은 유약이 묻지 않은 듯한 것이지만, 한 조각에서도 두 가지 색깔을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분 녹두색이고 일부만 밤색이다. 흑갈색 조각은 오늘날의 장독과 똑같다. 각 유구별 옹기의 색깔은 아래와 같다(표 5).

표 5. 각 유구별 옹기의 색깔 나눔

색깔/유구 :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모 듬
녹두색	10	26	32	2	1	71
밤 색	3	7	5	0	0	15
흑갈색	0	1	5	0	0	6
모 듬	13	34	42	2	1	92

표에서 보듯이 녹두색이 71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밤색으로 15점이며, 흑갈색은 6점으로 제일 적다. 녹두색과 밤색은 3호와 2호에서 가장 많이 나왔고, 흑갈색은 3호에서 5점이 나왔다.

3. 그릇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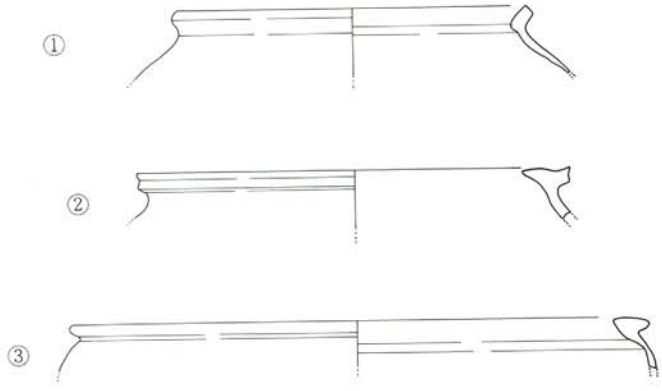
완전한 모습의 옹기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전과 바닥 그리고 몸 조각의 생김새와 크기를 통해 원래의 그릇꼴을 되짚어보려 한다.

가. 전(그림 1,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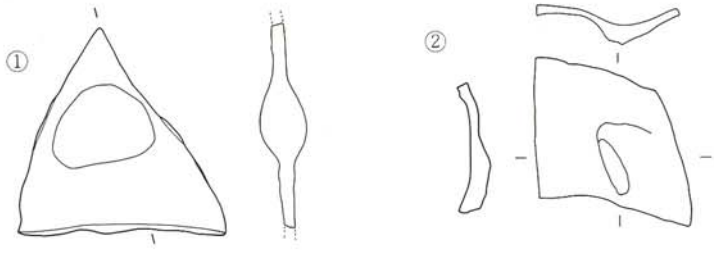
전은 3호에서만 3점 나왔다. 질그릇 전의 분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바라진 전" 한 점(3-47번)과 "꺾인 전" 두 점(3-232, 3-286번)으로 나뉜다. 바라진 전은 더 세분하면 "직선" 바라진 전이다. 꺾인 전은 꺾인 기울기가 90도쯤 되는데, 깨진 면을 자세히 보면 겹전임을 알 수 있다.

나. 몸(그림 2, 사진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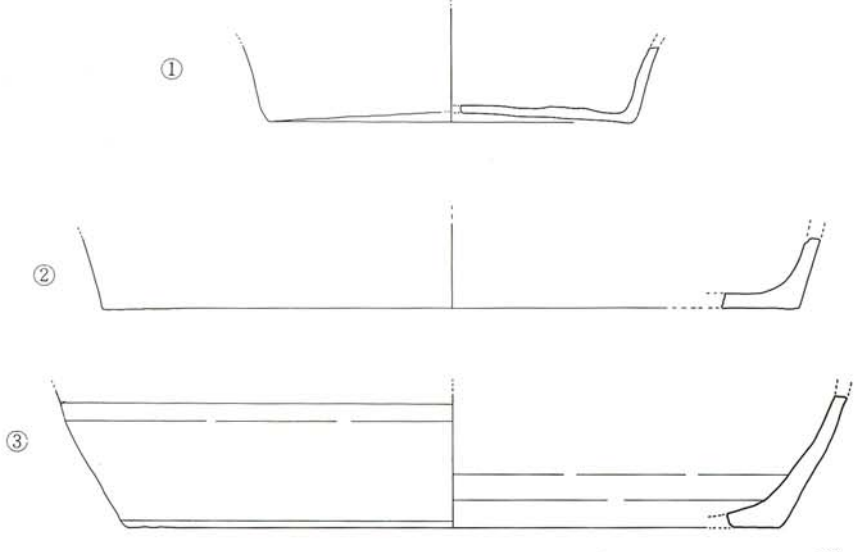
몸 조각 대부분의 안쪽면에는 받침모루로 쓰인 조막 자국이 그리고 겉면에는 수래자국이 선명하다. 몸 조각의 옆 모습은 곡선으로 휘어진 것이 많으므로, 배부른 모양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몸 조각 가운데는 가로띠잡이의 한쪽 끝이 붙어있는 것(3-425번)도 있다. 한편 그릇살 속에 기포가 불거진 것으로 2-344번과 4-24번이 대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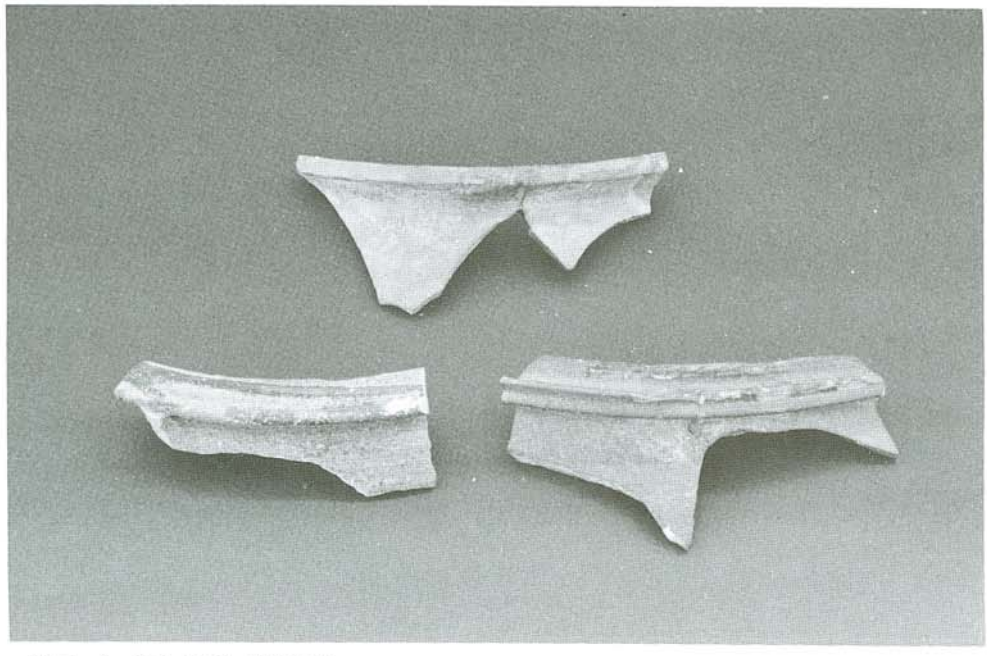
〈그림 1〉 옹기의 전
1. 바라진전(3－47) 2. 꺾인전(3－286) 3. 꺾인전(3－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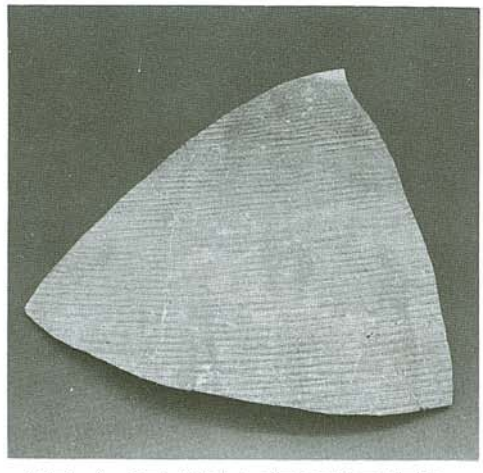
〈그림 2〉 옹기의 벽(몸)
1. 벽(4－24) 2. 벽(3－4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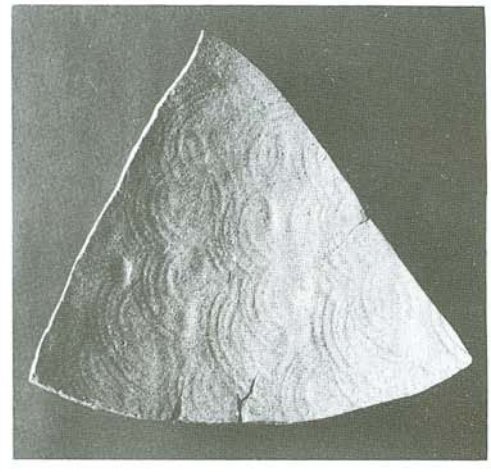


〈그림 3〉 옹기의 바닥
1. 3－618 2. 2－167 3. 2－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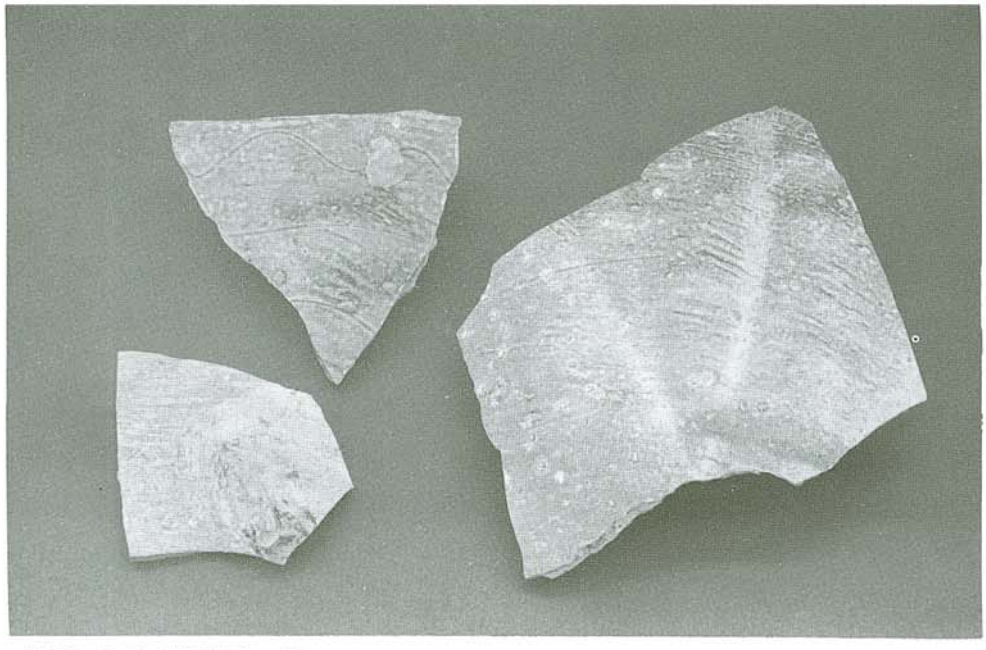


〈사진 1〉 옹기 전의 여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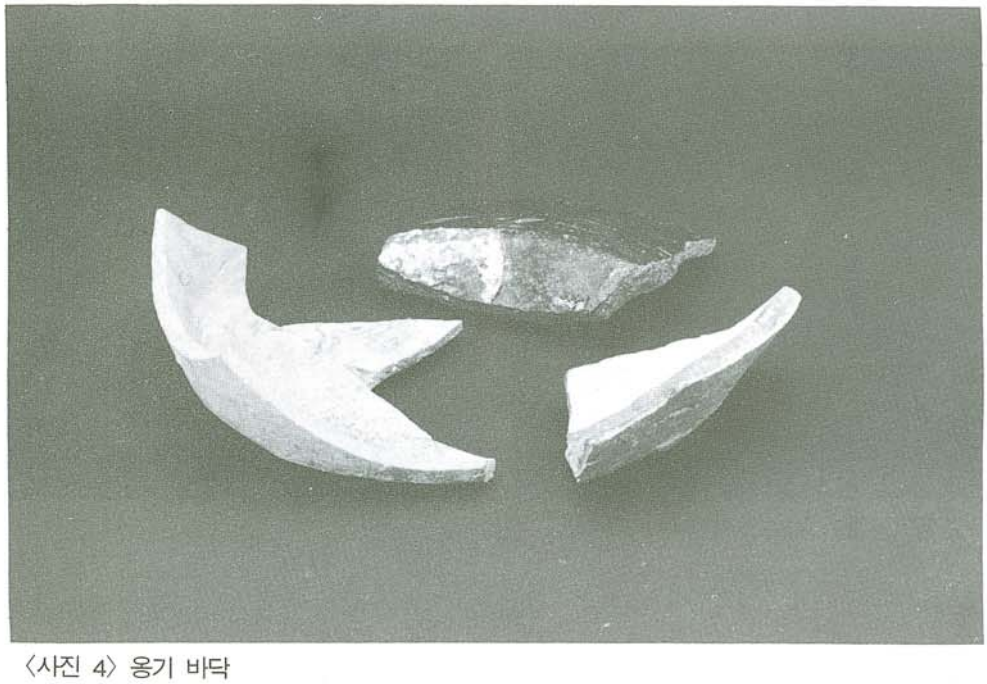




〈사진 2〉 옹기 벽의 수래자국과 조막자국



〈사진 3〉 옹기 벽(몸) 조각



〈사진 4〉 옹기 바닥

다. 바닥(그림 3, 사진 4)

바닥은 모두 9점이 나왔다. 모두 한 가지인데 옆 모습은 바깥쪽으로 바라진 니은자를 이룬다. 이같은 모습은 오늘날의 항아리나 독의 바닥과 같으며, 함께 나온 질그릇 바닥과도 같다.

4. 무늬

옹기의 겉면에는 질그릇과 마찬가지로 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자국들이 있고, 또 일부러 만든 무늬가 있다. 그래서 질그릇의 무늬 구분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었다. 곧 무늬의 종류는 크게 두들긴무늬, 새긴무늬 그리고 무늬없는 민짜로 나뉜다. 두들긴무늬는 무늬 생김새가 나란한 선들로 나타나 빗금나란무늬로 이름하고, 새긴무늬는 직선무늬, 물결무늬로 더 나뉜다.

보통 한 조각에 한 가지의 무늬만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두 세 가지의 무늬가 함께 넣어진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빗금나란무늬+직선무늬", 또는 "빗금나란무늬+직선무늬+물결무늬" 같은 것이다. 후자의 경우 모두 세었기 때문에 무늬의 수는 실재 몸 조각 수보다 4나 더 많다. 아래에서 몸에 넣어진 무늬의 종류를 유구별로 살펴보자(표 6).

몸에 넣어진 무늬 가운데 민짜가 48점으로 가장 많고, 두번째는 두들긴무늬인 빗금나란무늬가 32점으로 많으며, 새긴무늬인 직선무늬와 물결무늬는 2점씩으로 적다. 이렇듯 옹기의 겉면치레는 분청보다 매우 소박한 꾸밈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각 유구별 옹기의 무늬 종류

무 늬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모 듬
빗금나란무늬	5	13	12	2	0	32
직선무늬	0	0	1	1	0	2
물결물결	0	0	0	2	0	2
민 짜	7	18	22	0	1	48
모 듬	12	31	35	5	1	84

참 고 문 헌

光州市立民俗博物館, 1992.《甕器特別展》1~119 (光州市立民俗博物).

金眞于, 1972.《韓國甕器工房의 實態硏究－製作技法, 用語를 中心하여－》~90 (弘益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弘益大學校 陶藝研究所, 1990.《韓國 甕器와 日本 陶磁器의 製作技術 比較 研究》1~169.
鄭明鎬·Eddy,R.I., 1973.〈韓國 甕器店의 作業과정에 대하여(上)〉《考古美術》119, 8~17.
鄭明鎬·Eddy,R.I., 1973.〈韓國 甕器店의 作業과정에 대하여(下)〉《考古美術》120, 11~21.

자 기

1, 2, 3, 5호 유구에서 분청사기와 백자가 나왔으나 거의 깨진 조각으로 완전한 것은 없다. 그러나 조각일지라도 굽, 전의 생김새, 무늬의 종류, 그릇살의 두께 변화와 휘임새 등에 근거하여 상당수 그릇꼴을 가려낼 수 있고, 나아가 그릇 종류별 개체수도 셈할 수 있다.

문흥동 자기의 그릇꼴 종류는 대접, 접시, 병, 잔, 마상배, 발, 단지, 항아리, 바래기, 뚜껑 등이다. 그런데 대접과 접시는 여러 모로 비슷해서 조각만으로는 더 이상 구별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체수를 셈할 때 굽이 3할 이상 남은 것을 대상으로 "대접·접시"로 묶어 세었다. 그리고 전이나 몸 조각으로서 확실한 그릇꼴을 알 수 없지만 무늬의 특징으로써 개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각 유구에서 나온 분청사기와 백자 조각 가운데 위의 분류에 따른 개체수는 다음과 같다(표 1).

표 1. 유구별 분청사기와 백자의 개체수

자기/유구:	1	2	3	4	5	모 듬
분청사기	28	32	34	0	5	99
백 자	4	16	13	0	18	51
모 듬	32	48	47	0	23	150

분청사기는 99점, 백자는 51점으로 분청사기가 백자보다 2배 남짓 많다. 유구별로 보면 2호와 3호에서 반 수 이상 그리고 5호에서 적게 나왔으며 4호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2호와 3호 유구에서 나온 자기 가운데 짝이 맞는 것이 10점씩 있다. 이 가운데 분청사기는 3점이고, 백자는 7점이다. 2호와 3호의 유물 가운데 기와도 서로 붙는 것이 있었다.

아래에서 분청사기와 백자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분청사기

가. 그릇갖춤새

먼저 유구별로 그릇갖춤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표 2. 유구별 분청사기의 그릇갖춤새

유구/그릇꼴 :	대접·접시	바래기	마상배	병	편병	발	단지	항아리	뚜껑	기타	모듬
1	16	0	1	3	1	1	2	1	0	3	28
2	26	0	2	1	0	2	0	0	1	0	32
3	21	1	1	0	0	6	0	0	0	5	34
5	4	0	0	0	0	1	0	0	0	0	5
모듬	67	1	4	4	1	10	2	1	1	8	99

각 유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대접·접시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는 3호에서 6점 나온 발과 1호에서 3점으로 셈된 병이 주목된다. 그릇꼴이 가장 다양하게 나온 유구는 1호이다. 2, 3호에서는 단지나 항아리가 없고 대접·접시, 바래기, 마상배, 병, 발 등으로 이뤄져있으나, 5호에서는 대접·접시와 발 뿐이다.

나. 겉면 꾸밈

분청사기는 같은 그릇꼴이라도 겉면을 꾸민 방법에 따라 인화, 박지, 조화, 귀얄, 덤벙, 무문 등 6가지로 나뉜다(표 3). 여기서 무문으로 분류한 것은 바탕흙이나 유약은 분청사기와 같으나 백토 분장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겉면 꾸밈 기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인 것이 "덤벙"이고, 두번째는 "무문"이며, 세번째는 "귀얄", 그리고 네번째는 "인화"이며 다섯번째는 "조화"이고 "박지"는 1점뿐이다.

덤벙과 무문 그리고 인화 기법은 대접 접시에 가장 많이 쓰였고, 귀얄은 발과 대접 접시에 많이 쓰였다. 마상배의 겉면은 덤벙 기법, 병과 편병의 겉면은 주로 조화와 귀얄 기법 그리고 단지는 귀얄 기법으로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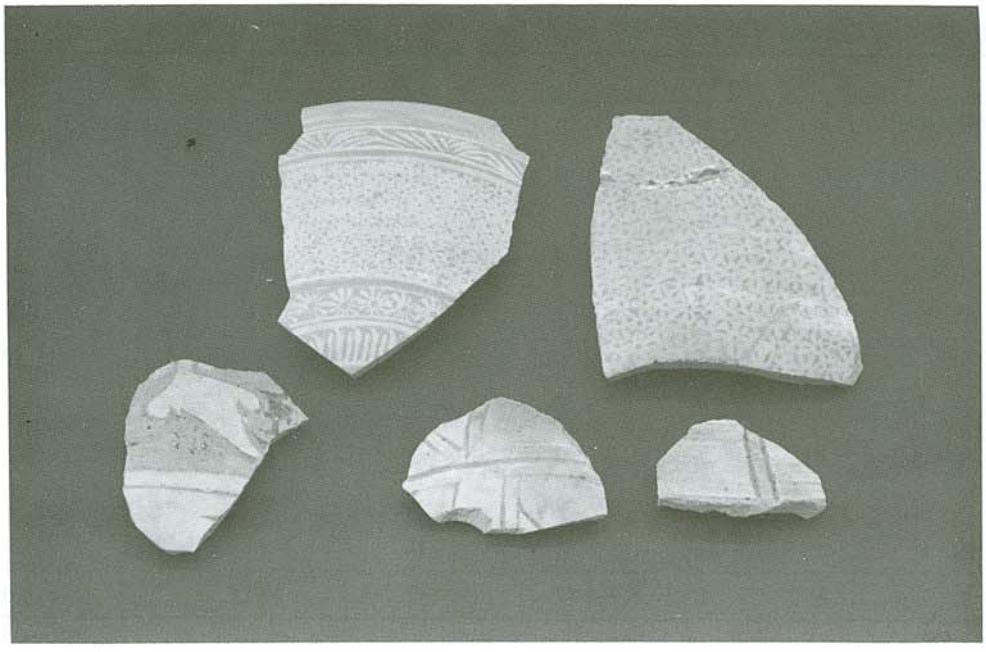
다. 대표 유물

아래에서 유구별로 대표되는 분청사기를 하나씩 살펴보자.

(1) 1호 유물(그림 1-①, ②, 사진 1, 2)

① 대접(1-25)

전체의 1/8쯤 남아있으나 굽 부분은 없다. 유약과 바탕흙은 밝은 회청색이다. 안팎면에는 인화 기법으로 국화무늬를 넣었고, 그 아래 위에 연판과 당초무늬를 배치하였다. 입지름은 21.0cm이다.



〈사진 1〉 1호 유구에서 나온 분청사기 (인화, 박지, 조화 기법)

〈사진 2〉 1호 유구에서 나온 분청사기 (귀얄, 덤벙, 무문 기법)

표 3. 분청사기 그릇꼴별 무늬넣기의 구분

	인 화	박 지	조 화	귀 얄	덤 벙	무 문	모 듬
대접·접시	4	0	0	7	30	26	67
바래기	0	0	0	0	1	0	1
마상배	0	0	0	0	4	0	4
병	0	0	2	2	0	0	4
편 병	0	0	1	0	0	0	1
발	0	0	0	9	0	1	10
단 지	0	0	0	2	0	0	2
항아리	1	0	0	0	0	0	1
뚜 껑	1	0	0	0	0	0	1
기 타	2	1	4	0	0	1	8
모 듬	8	1	7	20	35	28	99

② 항아리(1－26)

몸 조각으로 남아있는 크기는 길이 8.9cm, 너비 7.6cm, 두께 1.0cm 이다. 유약과 바탕흙은 밝은 회청색이다. 겉면에는 인화기법으로 국화무늬를 넣었다.

③ 항아리 또는 단지(1－22)

항아리나 단지의 몸조각으로 남아있는 크기는 길이 6.1cm, 너비 5.0cm, 두께 0.9cm 이다. 바탕흙은 짙은 회색이며, 유색은 녹색을 띤다. 겉면에는 박지기법으로 모란잎을 표현하였다.

④ 병(1－21)

병의 목 부분인데 크기는 길이 3.1cm, 너비 4.5cm 이다. 조화기법으로 무늬를 넣었다.

⑤ 편병(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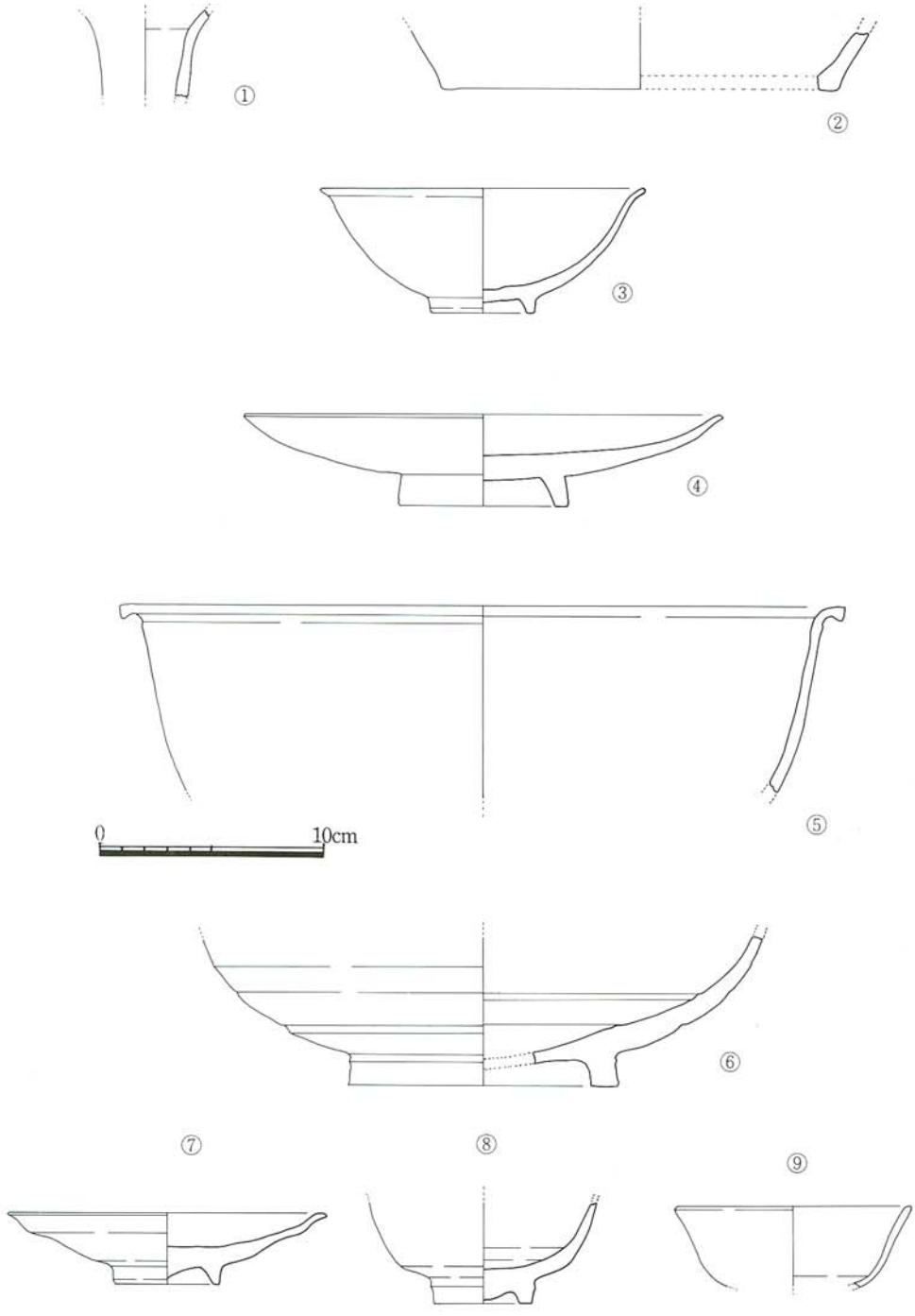
편병의 몸 조각으로 크기는 길이 4.0cm, 너비 5.4cm, 두께 0.8cm 이다. 바탕흙은 회색이고 유색은 녹색이 감도는 회청색을 띤다. 조화기법으로 무늬를 성글게 넣었다.

⑥ 병(1－15)

병의 목 조각으로 길이 4.4cm, 너비 4.5cm, 두께 0.7cm 이다. 귀얄기법으로 무늬를 넣었다.

⑦ 단지(1－13)

바닥 조각이다. 크기는 길이 3.7cm, 너비 6.6cm 이다. 귀얄기법으로 겉면을 꾸몄으며 바닥의 지름은 약 17.9cm이다.



〈그림 1〉 분청사기의 그릇꼴

1. 병(1－15) 2. 단지(1－13) 3. 대접(2－58) 4. 접시(2－56) 5. 발(2－52)
6. 발(3－103) 7. 접시(3－73) 8. 바래기(3－86) 9. 마상배(3－102)

⑧ 대접 · 접시(1－3)

굽이 절반 남아있다. 유약과 바탕흙의 색은 짙은 회청색이다. 덤벙기법으로 안쪽면 전체와 바깥면의 윗 부분만 백토로 분장하였다. 대마디굽이며, 모래비짐눈 자국이 안바닥과 굽에 남아있다. 굽지름 5.5cm, 굽높이 0.5cm이다.

⑨ 마상배(1－159)

마상배의 다리 부분이다. 바탕흙은 짙은 회청색이다. 안팎면이 백토로 분장되었다. 굽지름은 4.4 cm이다.

⑩ 대접 · 접시(1－162)

굽이 반쯤 남아있는 조각이다. 유약은 밝은 회청색이다. 무늬가 없다. 대마디굽이며, 모래비짐 자국이 남아있다. 굽지름은 6.0cm, 굽높이 1.3cm이다.

(2) 2호 유물(그림 1－③～⑤, 사진 3)

① 뚜껑(2－55)

뚜껑 조각으로 크기는 길이 8.7cm, 너비 8.0cm, 두께 1.2cm 이다. 바탕흙은 밝은 회청색이다. 겉면에는 상감기법으로 당초무늬를 그리고 인화기법으로 국화무늬를 넣었다.

② 접시(2－56)

제 모습과 크기를 알 수 있는 접시이다. 유약과 바탕흙은 밝은 회청색이다. 안쪽면에는 인화기법으로 국화무늬를 빈틈없이 넣었고, 겉면에는 연판과 국화무늬를 넣었다. 굽은 단정하게 깎였고, 포개구이한 흔적이 없다. 굽안에는 "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입지름 21.2cm, 높이 4.1cm, 굽지름 7.4cm, 굽높이 1.4cm이다.

③ 대접(2－58)

3／4 이상 남아있어 제 모습을 알 수 있다. 유약과 바탕흙은 밝은 회청색이다. 안쪽면에는 인화기법으로 국화무늬와 빗방울무늬(雨點紋)를 빈틈없이 넣었고, 겉면에는 무늬가 없다. 안바닥에 모래비짐 받침 자국이 5개 있다. 입지름 16.4cm, 높이 5.6cm, 굽지름 4.7cm, 굽높이 0.7cm이다.

④ 병(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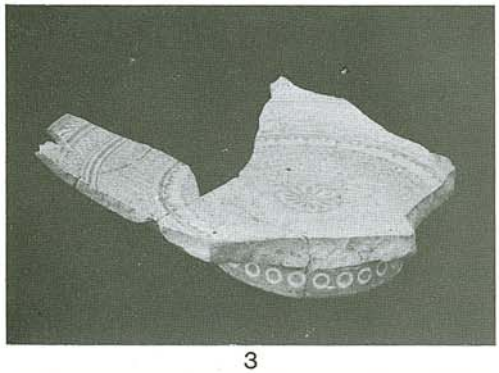
병의 바닥에 가까운 몸 조각으로 길이 8.0cm, 너비 10.0cm, 두께 0.8cm 이다. 바탕흙에는 고운 모래알갱이가 섞여있으며, 짙은 회색이다. 유약은 녹색이 감도는 회청색이다. 조화기법으로 간단한 선 무늬를 넣었다.

⑤ 대접 · 접시(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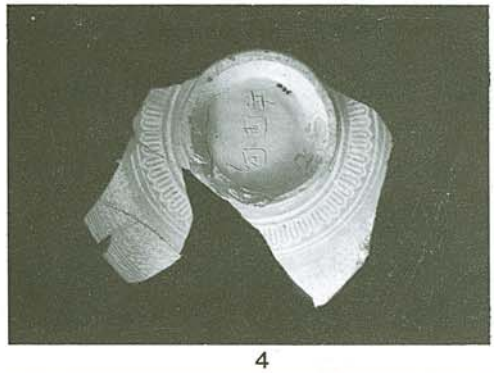
굽은 온전하나 전은 없다. 바탕흙은 짙은 회색이며 잡물이 섞여있다. 안쪽면에 귀얄자국이 남아있다. 대마디굽이며, 모래비짐 자국이 대여섯 개 있다. 굽지름 5.7cm, 굽높이 1.0cm이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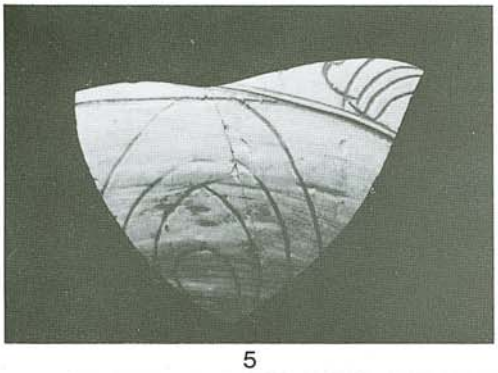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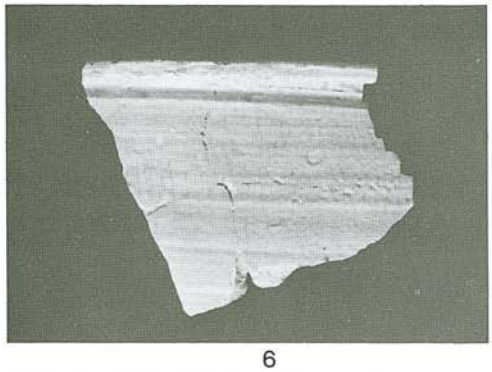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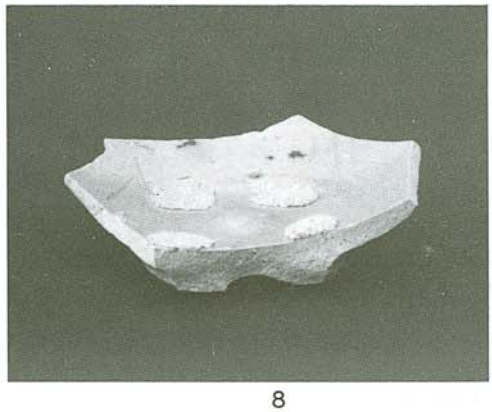


5



6

7



8

〈사진 3〉 2호 유구에서 나온 분청사기

1. 뚜껑(2－55) 2. 대접(2－58) 3. 접시(2－56 안쪽) 4. 접시(2－56 바닥)
5. 병(2－53) 6. 발(2－52) 7. 대접・접시(2－59) 8. 대접・접시(2－186)

⑥ 발(2－52)

전을 포함한 아가리 조각이다. 크기는 길이 8.8cm, 너비 11.5cm 두께 0.6cm 이다. 바탕흙은 회색이다. 귀얄기법으로 겉면을 꾸몄다.

⑦ 접시(2－29)

굽은 조금 깨졌고 전이 일부 남아서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다. 덤벙기법으로 안쪽면 전체와 바깥면의 대부분을 백토로 분장하였다. 대마디굽이며, 모래비짐눈 자국이 안바닥에 남아있다. 입지름 14.8cm, 높이 3.9cm, 굽지름 5.1cm, 굽높이 1.0cm이다.

⑧ 대접・접시(2－186)

굽은 온전하나 나머지는 깨져 없다. 유약은 밝은 회청색이다. 무늬가 없다. 대마디굽이며, 모래비짐 자국이 안팎면에 4개씩 남아있다. 굽지름은 5.0cm, 굽높이 0.7cm이다.

(3) 3호 유물(그림 1－⑥～⑨, 사진 4)

① 대접(3－109)

아가리 조각으로 크기는 길이 5.9cm, 너비 7.3cm, 두께 0.7cm 이다. 바탕흙은 짙은 회청색이다. 겉면에는 상감기법으로 당초무늬를 그리고 인화기법으로 국화무늬를 넣었다. 입지름은 19.0cm이다.

② 발(3－103)

바닥 부분으로 매우 큰 편이다. 바탕흙은 회색을 띤다. 안팎면을 귀얄무늬로 꾸몄다. 안쪽면에는 모래비짐 자국이 뚜렷하다. 굽지름은 약 12cm이다.

③ 발(3－120)

아가리 조각으로 크기는 길이 6.0cm, 너비 7.6cm, 두께 0.6cm 이다. 바탕흙은 짙은 회색이다. 안팎면을 귀얄기법으로 꾸몄다. 입지름 21.4cm이다.

④ 접시(3－73)

굽이 2／3쯤 그리고 전은 일부 남아있다. 유약은 회청색을 띤다. 안쪽면 전체와 바깥면의 윗부분을 백토로 덧씌웠다. 안바닥에는 모래비짐 자국이 있다. 입지름 13.8cm, 높이 3.7cm, 굽지름 4.6 cm, 굽높이 0.9cm이다.

⑤ 접시(3－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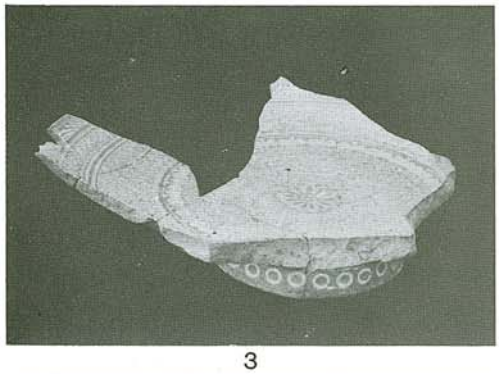
굽은 온전하나 전은 조금만 남아있다. 유약과 바탕흙은 회청색이다. 덤벙기법으로 겉면을 꾸몄다. 대마디굽이며 모래비짐 자국이 넷 있다. 입지름 11.6cm, 높이 3.7cm, 굽지름 4.4cm, 굽높이 0.7cm 이다.

⑥ 바래기(3－86)

굽이 4／5쯤 남아있으나 전은 없다. 덤벙기법으로 장식되었다. 대마디굽이며 모래비짐 자국이 셋 있다. 굽지름 4.3cm, 굽높이 1.1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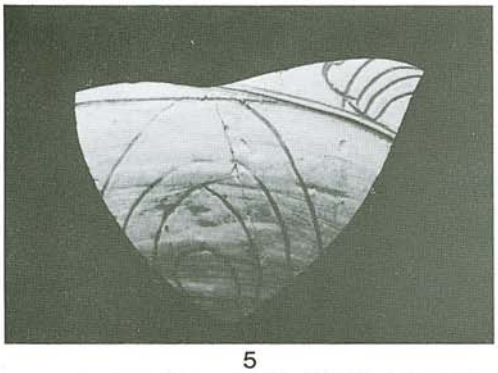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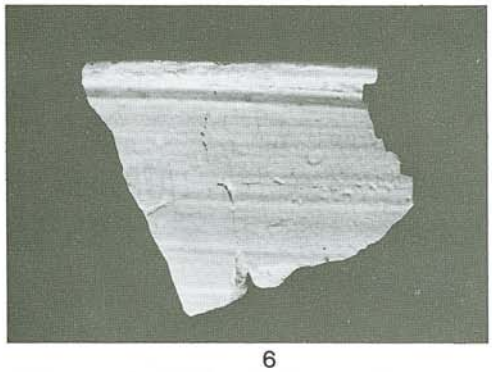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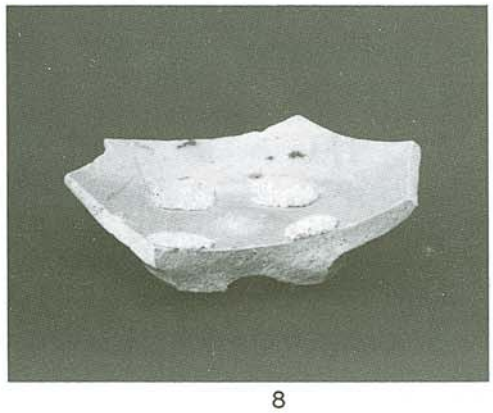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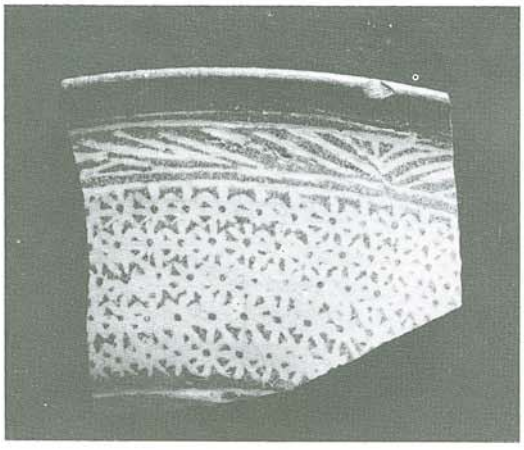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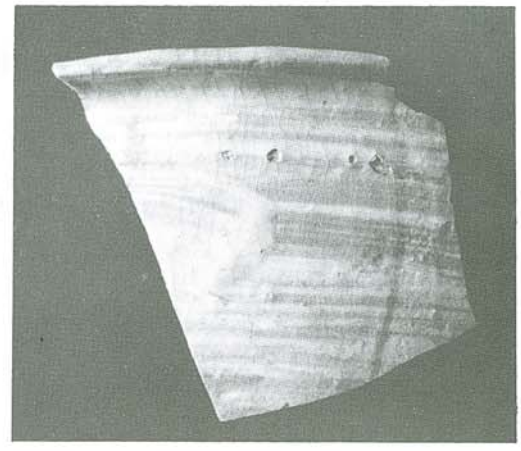
8

〈사진 3〉 2호 유구에서 나온 분청사기

1. 뚜껑(2－55) 2. 대접(2－58) 3. 접시(2－56 안쪽) 4. 접시(2－56 바닥)
5. 병(2－53) 6. 발(2－52) 7. 대접 · 접시(2－59) 8. 대접 · 접시(2－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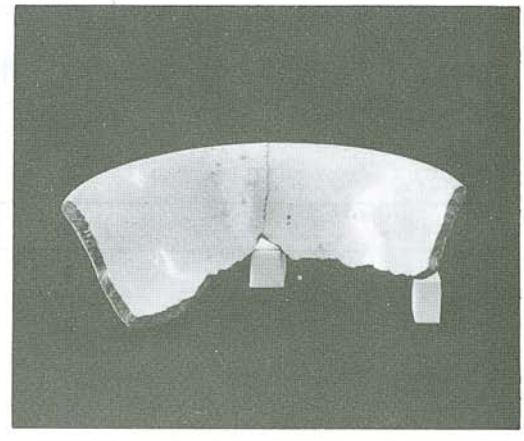


1



2

3



4

5

〈사진 4〉 3호 유구에서 나온 분청사기

1. 대접(3－109) 2. 발(3－120) 3. 발(3－73) 4. 마상배(3－102)
5. 바래기(3－86), 접시(3－101), 발(3－236), 접시(3－73)

⑦ 마상배(3－102)

마상배의 잔 부분이다. 바탕흙은 짙은 회청색이다. 안팎면이 백토로 분장되었다. 입지름은 10.4 cm이다.

⑧ 발(3－236)

굽이 4／9쯤 남아있을 뿐이다. 유약과 바탕흙은 밝은 회청색이다. 무늬가 없다. 굽지름은 10.9cm, 굽높이 1.6cm이다.

2. 백자

가. 그릇갖춤새

먼저 유구별로 그릇갖춤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백자 가운데 절대 다수가 대접·접시이며, 마상배와 바래기 그리고 잔은 1점씩이다.

표 4. 유구별 백자의 그릇갖춤새

대접	접시	마상배	바래기	잔	모듬
1 호	3	1	0	0	4
2 호	15	0	0	1	16
3 호	13	0	0	0	13
5 호	17	0	1	0	18
모 듬	48	1	1	1	51

나. 대접 · 접시의 굽 나눔

대접 · 접시류는 굽의 생김새에 따라 크게 "수직굽, 대마디굽, 오목굽, 납작굽"의 4가지로 나뉘고, 수직굽은 다시 "바라진굽, 곧은굽, 오므라진굽"으로, 오목굽은 "굽다리와 몸체와의 경계가 뚜렷한 것과 불분명한 것"으로 세분된다. 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사진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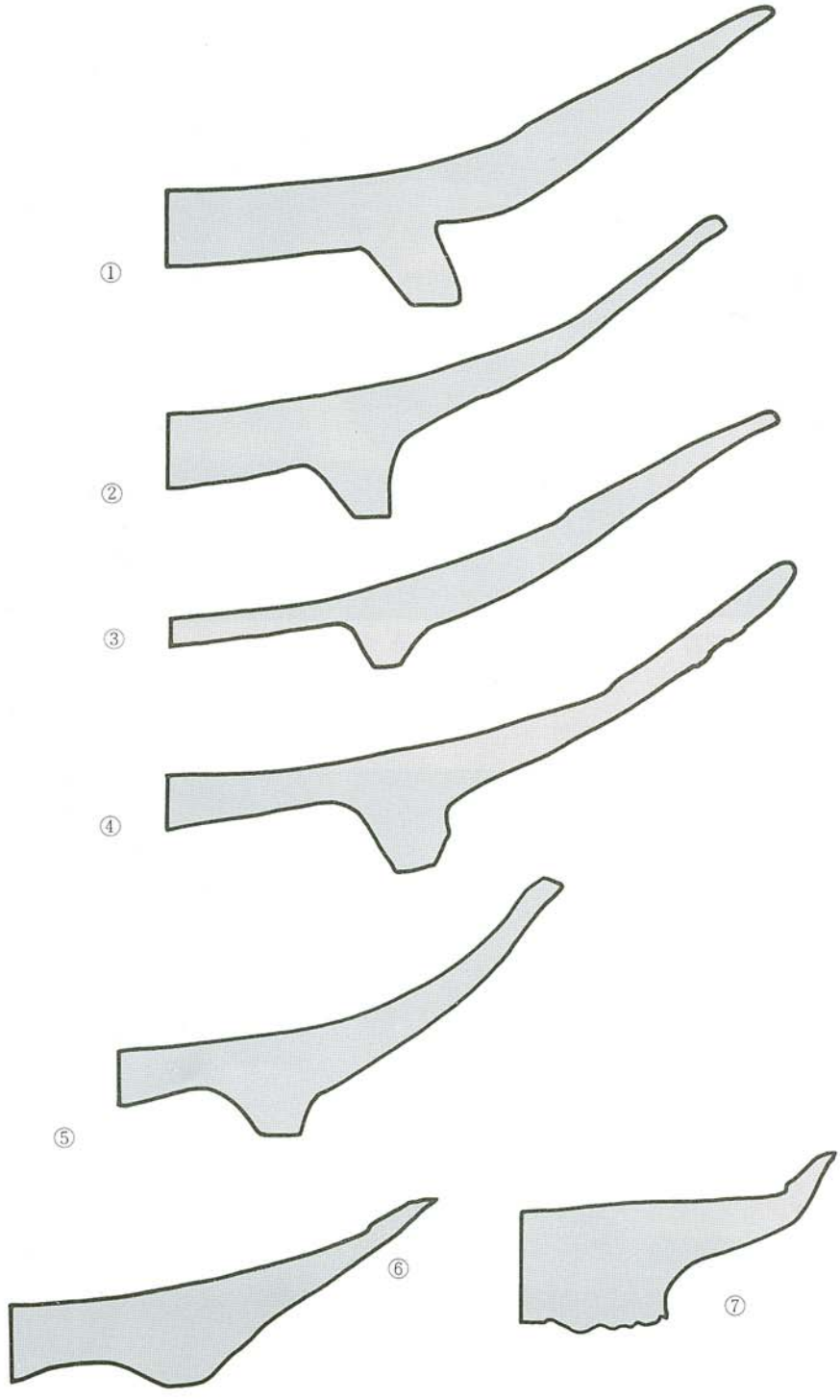
Ⅰ. 바라진굽 : 굽의 바깥선이 밖으로 바라진 것

Ⅱ. 곧은굽 : 굽의 바깥선이 수직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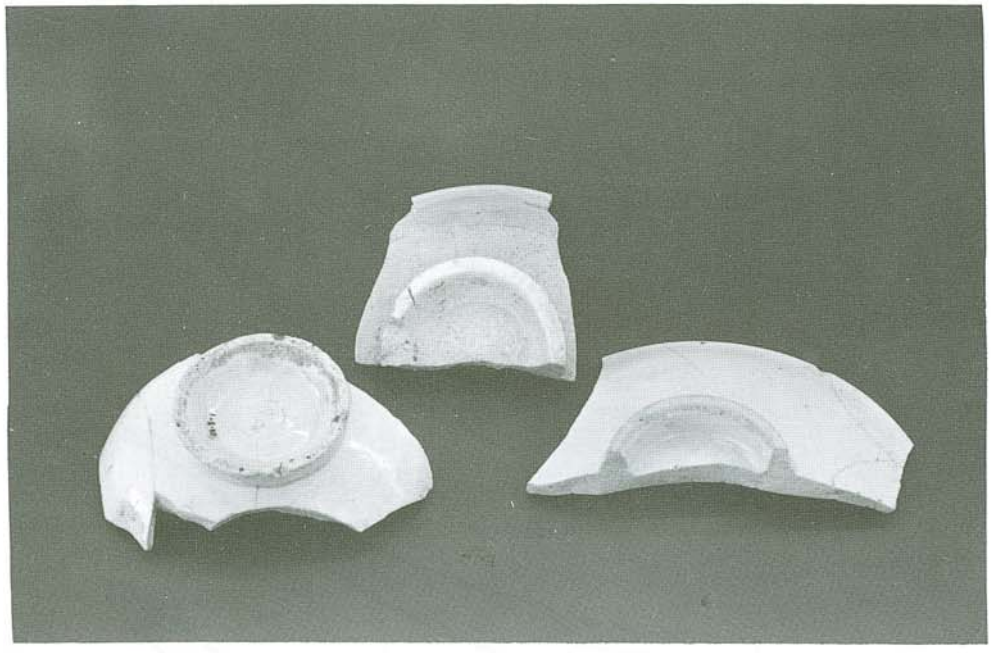
Ⅲ. 오므라진굽 : 굽의 바깥선이 안으로 오므러든 것

Ⅳ. 대마디굽 : 굽의 겉면에 대나무의 마디 같은 자국이 남아 있는 것

Ⅴ. 오목굽 1 : 굽안을 오목하게 깎아낸 것으로 굽다리와 몸체와의 경계가 뚜렷한 것



〈그림 2〉 백자 대접 · 접시의 굽 나눔
1. 바라진굽(Ⅰ) 2. 곧은굽(Ⅱ) 3. 오므라진굽(Ⅲ)
4. 대마디굽(Ⅳ) 5. 오목굽1(Ⅴ) 6. 오목굽2(Ⅵ) 7. 납작굽(Ⅶ)



〈사진 5〉 백자 대접 · 접시의 굽(바라진굽, 곧은굽, 오므라진굽)

〈사진 6〉 백자 대접 · 접시의 굽(대마디굽, 오목굽 1 · 2, 납작굽)

Ⅵ. 오목굽 2 : 굽안을 오목하게 깎아낸 것으로 굽다리와 몸체와의 경계가 불분명한 것

Ⅶ. 납작굽 : 굽 안을 깎아내지 않아 바닥이 편평한 것

각 유구별 대접 접시의 굽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표 5).

표 5. 대접·접시의 굽 나눔

	수직굽			오목굽				
유구	바라진	곧은	오므라진	대마디굽	오목1	오목2	납작굽	모듬
1 호	0	1	0	0	1	0	1	3
2 호	1	4	5	4	1	0	0	15
3 호	1	4	5	3	0	0	0	13
5 호	0	4	2	0	7	4	0	17
모듬	2	13	12	7	9	4	1	48

대접 · 접시의 굽은 수직굽, 오목굽, 대마디굽, 납작굽의 순서로 많은데, 그 가운데 곧은굽과 오므라진굽이 많고 오목굽 1과 대마디굽이 보통이며 바라진굽과 납작굽은 아주 적다. 2, 3호에서는 오므라진굽과 곧은굽이 많고 그 다음이 대마디굽이며 오목굽이나 납작굽은 없거나 1점뿐이다. 한편 5호에서는 오목굽이 가장 많고 수직굽이 다음이며 대마디굽과 납작굽은 없다.

다. 대접 · 접시의 받침 나눔

대접 · 접시의 굽에는 포개구울 때 위 아래의 그릇들이 붙는 것을 막으려고 받침을 썼다. 굽받침은 사용된 재료에 따라 모래비짐받침, 바탕흙비짐받침, 고운모래받침, 굵은모래받침의 4가지로 나뉜다. 유구별 대접 · 접시의 굽받침 재료는 다음과 같다(표 6).

굽받침으로 모래비짐받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바탕흙비짐받침이며, 고운모래받침과 굵은모래받침은 1점씩이다. 2, 3호에서는 모래비짐받침이 가장 많고 바탕흙비짐받침은 거의 없지만, 5호에서는 바탕흙비짐받침이 제일 많고 모래비짐받침은 그 반쯤 된다.

표 6. 굽받침으로 사용된 재료

유구	모래비짐받침	바탕흙비짐받침	고운모래받침	굵은모래받침	모듬
1 호	1	1	0	1	3
2 호	12	2	1	0	15
3 호	13	0	0	0	13
5 호	6	11	0	0	17
모듬	32	14	1	1	48

여기서 굽 종류에 따라 어떤 받침이 쓰였는 가를 살펴보았다(표 7).

표 7. 굽 종류에 따른 받침 재료의 선호도

	모래비짐	바탕흙비짐	고운모래받침	굵은모래받침	모듬
바라진	1	1	0	0	2
곧은	13	0	0	0	13
오므라진	11	0	1	0	12
대마디	7	0	1	0	7
오목1	0	9	0	0	9
오목2	0	4	0	0	4
납작	0	0	0	1	1
모 듬	32	14	1	1	48

수직굽인 곧은굽과 오므라진굽 그리고 대마디굽에는 모래비짐의 받침이 대부분이지만, 오목굽에는 바탕흙비짐받침만이 쓰인 점이 두드러진다.

라. 대표 유물

아래에서 유구별로 대표되는 백자를 하나씩 살펴보자.

(1) 1호 유물(그림 3-①~③, 사진 7)

① 접시(1-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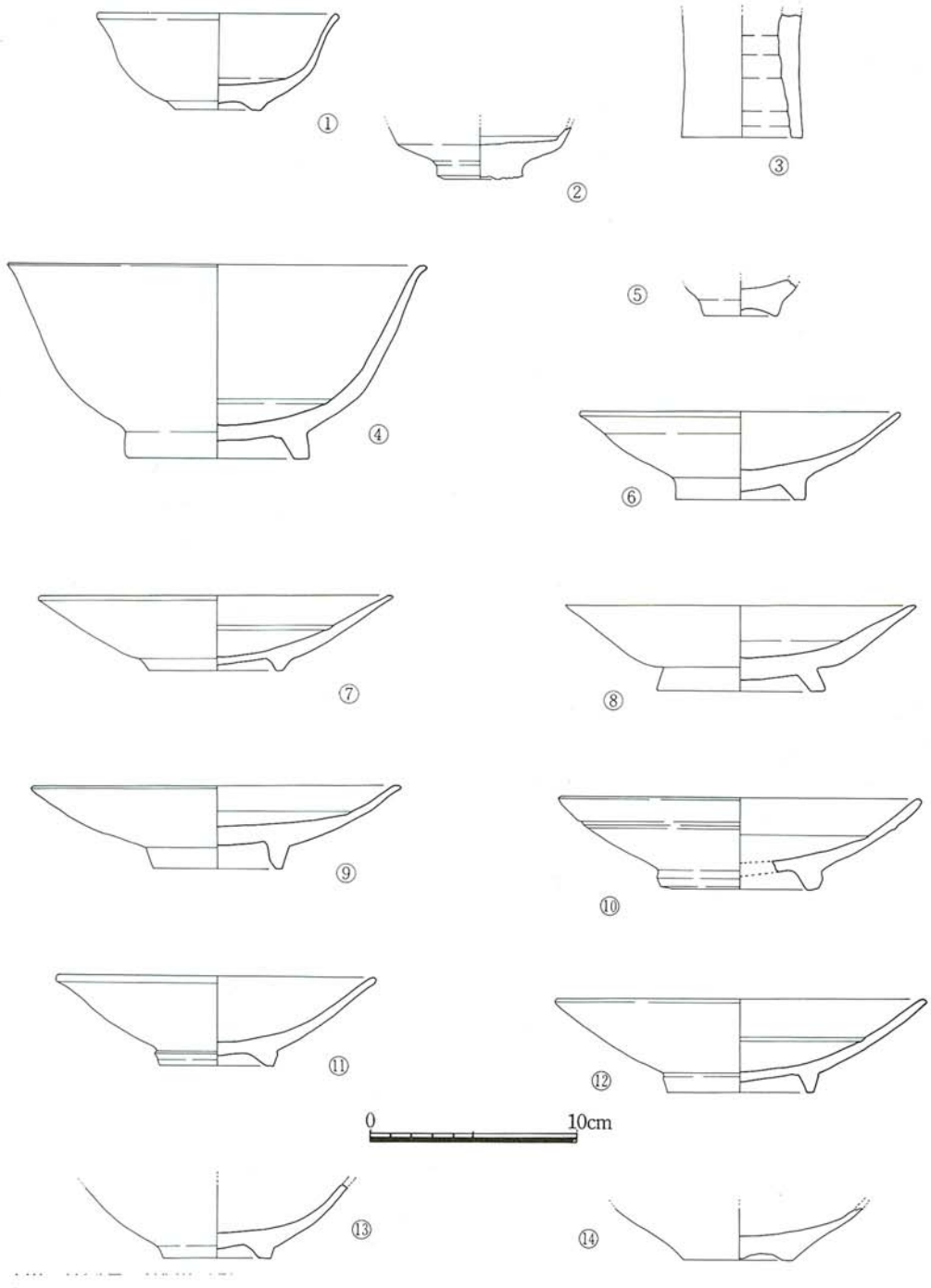
굽이 1/2쯤 그리고 전이 일부 남아있다. 청색이 감도는 짙은 회색을 띤다. 아가리가 바라지고 안바닥에 굽지름보다 넓은 둥근 깎임이 있다. 오목 1굽이며, 받침으로 바탕흙을 썼다. 입지름 11.2 cm, 높이 4.6cm, 굽지름 4.1cm, 굽높이 0.4cm이다.

② 대접 · 접시(1-164)

굽과 몸이 일부 남아있다. 유색과 바탕흙은 짙은 회색을 띤다. 납작굽이며 굽받침으로 굵은모래가 쓰였다. 굽지름은 5.8cm이다.

③ 마상배(1-172)

마상배의 다리 부분이다. 바탕흙은 상아색이다. 굽받침으로 모래가 이용되었다. 남은 굽높이 6.0 cm, 굽지름 5.8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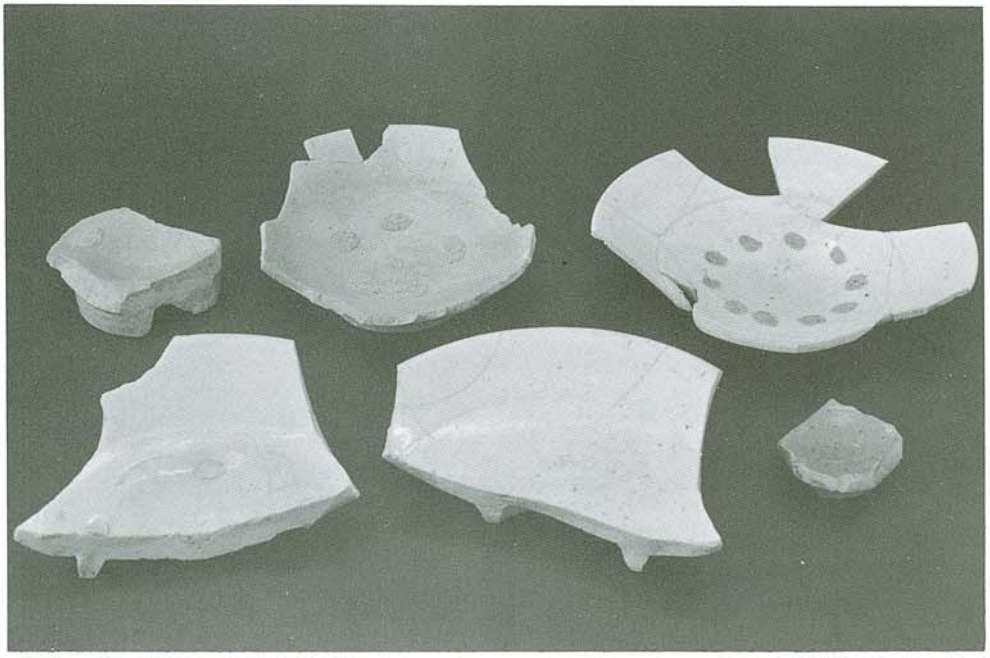


〈그림 3〉 백자의 그릇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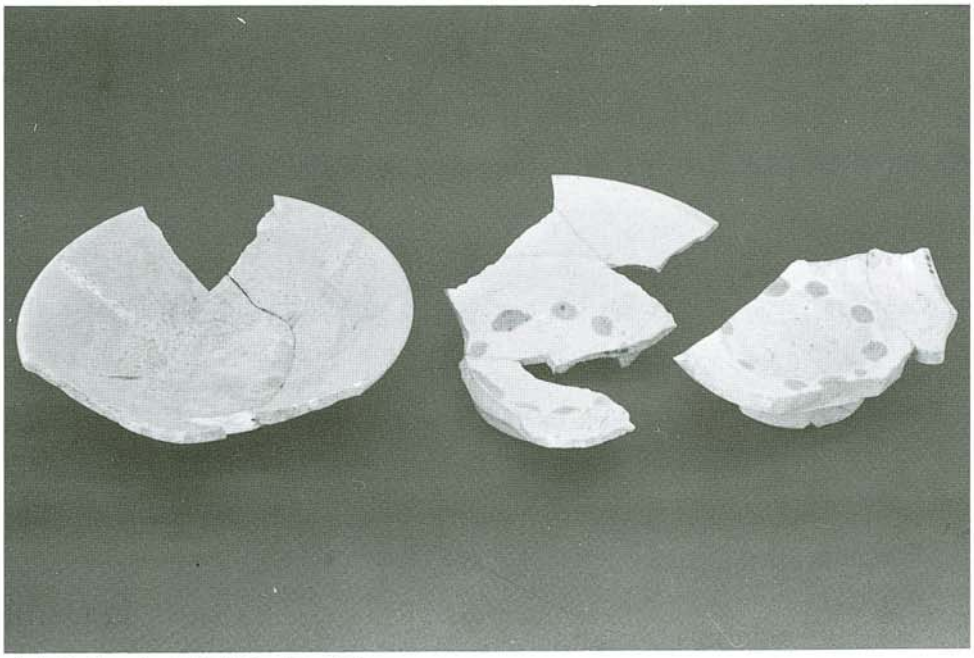
1. 접시(1－160) 2. 대접・접시(1－164) 3. 마상배(1－172) 4. 대접(2－192) 5. 잔(2－191)
6. 접시(2－279) 7. 접시(2－280) 8. 접시(2－286) 9. 접시(2－287) 10. 접시(3－210)
11. 접시(3－223) 12. 접시(3－301) 13. 대접・접시(5－253) 14. 대접・접시(5－265)

〈사진 7〉 1호 유구에서 나온 백자 마상배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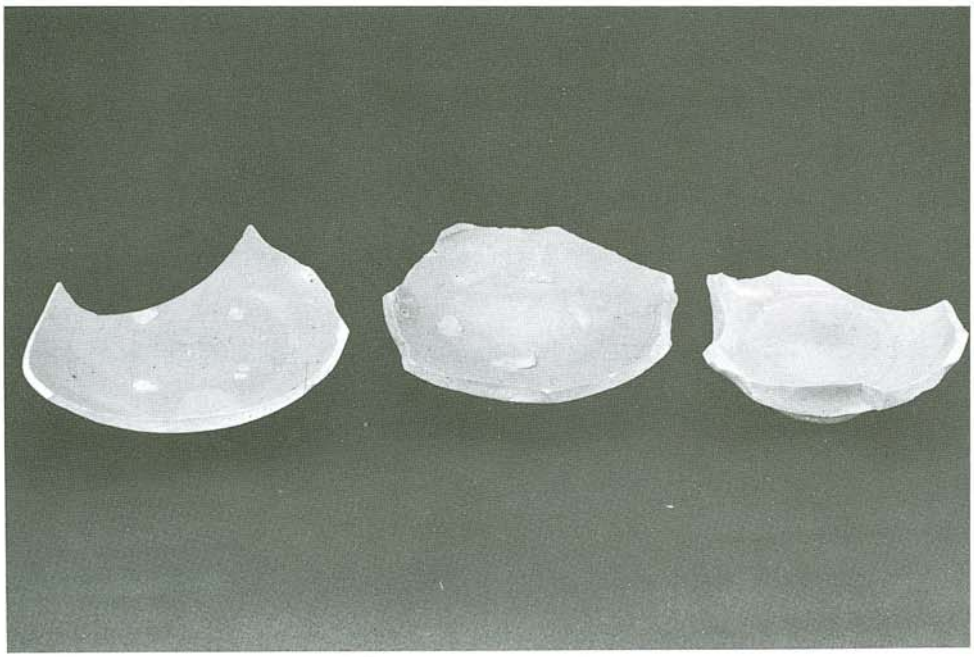
〈사진 8〉 2호 유구에서 나온 백자 대접



〈사진 9〉 2호 유구에서 나온 백자



〈사진10〉 3호 유구에서 나온 백자



〈사진11〉 5호 유구에서 나온 백자

(2) 2호 유물(그림 3-④~⑨, 사진 8~9)

① 대접(2-192)

굽이 1/2 남짓 그리고 전까지 남아있다. 안바닥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는 둥근 새긴 선이 있다. 곧은굽이며 모래비짐눈을 받쳐 구웠다. 입지름 19.7cm, 높이 9.3cm, 굽지름 8.6cm, 굽높이 1.3cm이다.

② 대접・접시(2-196)

굽 부분이 거의 전부 남아있다. 대마디굽이고 굽안 중심부가 볼록하며, 모래비짐받침 자국이 5군데 있다. 굽지름 6.4cm, 굽높이 1.4cm이다.

③ 접시(2-279)

전과 몸 부분이 군데군데 깨졌으나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다. 바탕흙과 유약은 회색조의 어두운 백색이다. 곧은굽이며 5개의 모래비짐을 받쳐 구웠다. 입지름 15.3cm, 높이 4.2cm, 굽지름 6.2cm, 굽높이 1.0cm이다.

④ 접시(2-280)

전과 몸 부분이 1/3쯤 깨졌지만 전체 모습을 알 수 있다. 유약과 바탕흙은 청색이 감도는 밝은 회백색을 띤다. 오므라진굽이며 10개의 모래비짐 자국이 있다. 안바닥에는 지름 11.1cm, 너비 0.4cm의 새긴 원이 있다. 입지름 16.6cm, 높이 3.6cm, 굽지름 6.4cm, 굽높이 0.6cm이다.

⑤ 접시(2-286)

굽이 반쯤 그리고 전까지 일부 남아있다. 유약과 바탕흙은 청백색이다. 바라진굽이며, 바탕흙으로 눈을 만들었다. 입지름 16.7cm, 높이 4.1cm, 굽지름 8.1cm, 굽높이 1.1cm이다.

⑥ 접시(2-287)

전체의 1/3쯤 남아있다. 유약과 바탕흙은 청색이 감도는 밝은 회백색이다. 오므라진굽이며 받침으로 모래를 썼다. 입지름 17.4cm, 높이 4.0cm, 굽지름 6.1cm, 굽높이 1.1cm이다.

⑦ 잔(2-191)

굽만 남아있으나, 지름이 3.6cm이고 높이는 0.8cm로 아주 작아 잔으로 생각된다. 청색이 감도는 짙은 회색이다.

(3) 3호 유물(그림 3-⑩~⑫, 사진 10)

① 접시(3-210)

굽이 3/5쯤 남아있고 거기서 전까지 이어진다. 황색이 가미된 어두운 백색이다. 대마디굽이며 모래비짐자국이 세 군데 남아있다. 입지름 17.1cm, 높이 4.4cm, 굽지름 7.6cm, 굽높이 0.9cm이다.

② 접시(3-223)

굽은 온전하고 나머지는 3/5쯤 남아있다. 색깔은 황색이 더해진 어두운 백색이다. 대마디굽이며

모래비짐자국이 다섯 개이다. 입지름 15.0cm, 높이 4.3cm, 굽지름 5.5cm, 굽높이 0.8cm이다.

③ 접시(3－301)

굽은 1／6쯤 깨져 없고, 전과 몸 부분은 1／6쯤 남아있다. 색깔은 청색을 띤 밝은 회백색이다. 오므라진굽이며 모래비짐으로 받쳐 구운 자국이 아홉 개 남아있다. 입지름 17.2cm, 높이 4.4cm, 굽지름 7.0cm, 굽높이 0.8cm이다.

④ 대접・접시(3－303)

굽은 온전하나 나머지는 일부만 남아있어 전의 모습을 알 수 없다. 바라진굽이고 안바닥에는 모래비짐받침 자국이 9 개 보인다. 굽지름 6.2cm, 굽높이 1.0cm이다.

(4) 5호 유물(그림 3－⑬～⑭, 사진 11)

① 대접・접시(5－253)

굽은 온전하나 몸 일부만 남아있고 전은 없다. 바탕흙은 녹색이 감도는 짙은 회색이다. 오목굽 1이고 안바닥에는 바탕흙비짐받침 자국이 4 개 있다. 굽지름 5.1cm, 굽높이 0.6cm이다.

② 대접・접시(5－256)

굽이 1／3쯤 남아있고 전은 없다. 전반으로 녹색이 감도는 짙은 회색이다. 오목굽 1이고 굽안쪽에는 바탕흙비짐받침이 3 개 붙어있다. 굽지름 5.2cm, 굽높이 0.9cm이다.

③ 대접・접시(5－265)

굽은 온전하나 몸 일부만 남아있고 전은 없다. 유색은 청색을 띤 짙은 회색이다. 오목굽 2이고 안바닥에는 바탕흙비짐받침 자국이 5개 있다. 굽지름은 5.4cm이다.

④ 대접・접시(5－266)

굽은 온전하나 몸 일부만 남아있고 전은 없다. 유색은 청색이 감도는 짙은 회색이다. 오목굽 2이고 안바닥에는 바탕흙비짐받침 자국이 4개 보인다. 굽지름은 5.2cm이다.

⑤ 바래기(5－252)

굽은 온전하나 전은 깨져 없다. 벽의 휘임새로 보아 바래기로 생각된다. 바탕흙은 청색을 띤 회색이다. 굽지름 4.9cm, 굽높이 0.6cm이다.

참 고 문 헌

姜敬淑, 1989.《韓國陶磁史》1～469(一志社).

姜敬淑, 1991.〈粉青沙器 연구 현황〉《考古美術史論》2, 135～151(忠北大學校 考古美術史學科).

鄭良謨, 1978.〈白磁論〉《白磁》185～194(中央日報 季刊美術).

鄭良謨, 1979.〈粉青沙器의 編年〉《粉青沙器》179~200(中央日報 季刊美術).
국립광주박물관, 1991.《고흥 운대리》1~187.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1993.《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459.

기와, 전돌, 질그릇의 만든 기술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광물조성

질그릇 전에 대하여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광물 조성

문희수 · 이기길

1. 머리글

16세기쯤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흙으로 어느 정도의 온도에서 기와, 전돌과 질그릇을 만들었는지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같은 배경에서 광주 문흥동유적에서 발굴된 기와, 전돌과 질그릇을 대상으로 편광현미경관찰과 X-선회절분석을 하여, 재료를 이루는 물질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 유물 종류별 재료의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하고, 나아가 재료의 출처와 구운온도를 밝혀보려 한다.

2. 시료 고르기

수많은 유물 가운데 색깔과 굳기를 기준으로 분석할 시료를 골랐다. 유물의 색깔은 회청색, 회흑색, 회갈색, 회색, 황갈색, 황회색, 적갈색의 7가지로, 그리고 굳기는 경질과 연질의 두 가지로 나뉜다. 두 기준에 따라 암키와 6점, 수키와 3점, 전돌 3점, 질그릇 8점을 뽑았다(사진 1~3). 이들 시료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과학 분석용 시료의 특징 (cm)

번호	등록번호	종류	길이	너비	두께	무게	색깔	굳기
1	2-679	암키와	14.1	9.1	1.6	300	회청색	경질
2	4- 53	암키와	10.6	17.1	2.2	500	회갈색	연질
3	2-728	암키와	17.9	15.5	2.2	540	적갈색	연질
4	2-654	암키와	.1.3	13.5	2.2	510	회흑색	연질
5	2-225	암키와	16.3	16.7	1.9	624	회갈색	연질
6	3-476	암키와	18.0	17.6	2.1	700	황갈색	연질
7	3-588	수키와	7.1	7.0	2.2	160	적갈색	연질
8	1- 5	수키와	15.1	8.2	2.3	320	회흑색	연질
9	2-508	수키와	17.2	10.5	2.6	670	회청색	경질
10	2- 13	전 돌	10.8	14.8	3.5	440	회갈색	연질
11	3- 3	전 돌	7.4	7.2	4.1	380	회청색	경질

12	3− 20	전 돌	8.6	9.4	3.2	320	회청색	연질
13	3−519	질그릇	10.1	5.1	0.5	35	황회색	연질
14	2−138	질그릇	4.0	6.1	0.6	15	회갈색	연질
15	2− 52	질그릇	9.1	7.1	0.6	50	회 색	연질
16	2− 41	질그릇	8.0	7.0	0.5	37	회 색	경질
17	4− 22	질그릇	6.1	5.1	0.4	20	회청색	연질
18	2−231	질그릇	8.0	7.0	0.7	40	회청색	경질
19	3− 66	질그릇	5.0	4.0	0.4	15	회흑색	연질
20	3− 61	질그릇	5.0	7.0	0.6	33	회흑색	경질

3. 편광현미경 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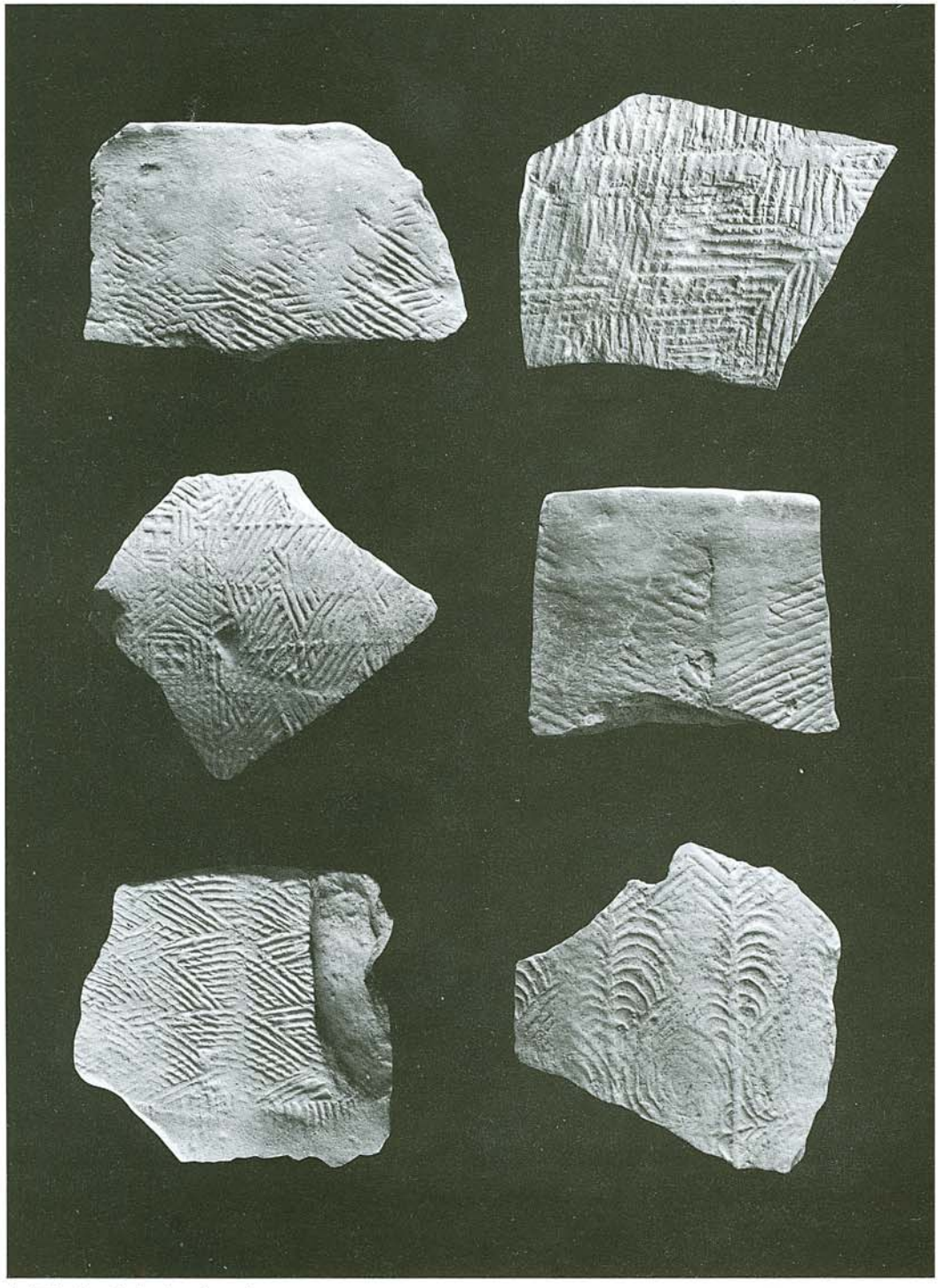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일부를 박편으로 만들어 편광현미경으로 이들의 조직과 광물 조성을 살폈다(사진 4~23). 모달분석(Modal analysis) 시 0.03mm이하는 광학적인 특성 때문에 식별이 어려워 석기로 구분하고, 그 이상 크기의 입자만을 자세히 분류하였는데 편차를 줄이려고 한 시료에서 300점을 세어 각 광물의 백분율을 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0.03mm이하 크기의 입자라 할지라도 결정질 물질인 광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는 X−선회절분석의 결과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또한 큰 입도의 결정질 물질이 소량 함유되는 경우 모달분석에서는 찾아지지만 X−선회절분석에서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광물이 소량 함유되거나 입도가 작은 광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분석결과는 똑같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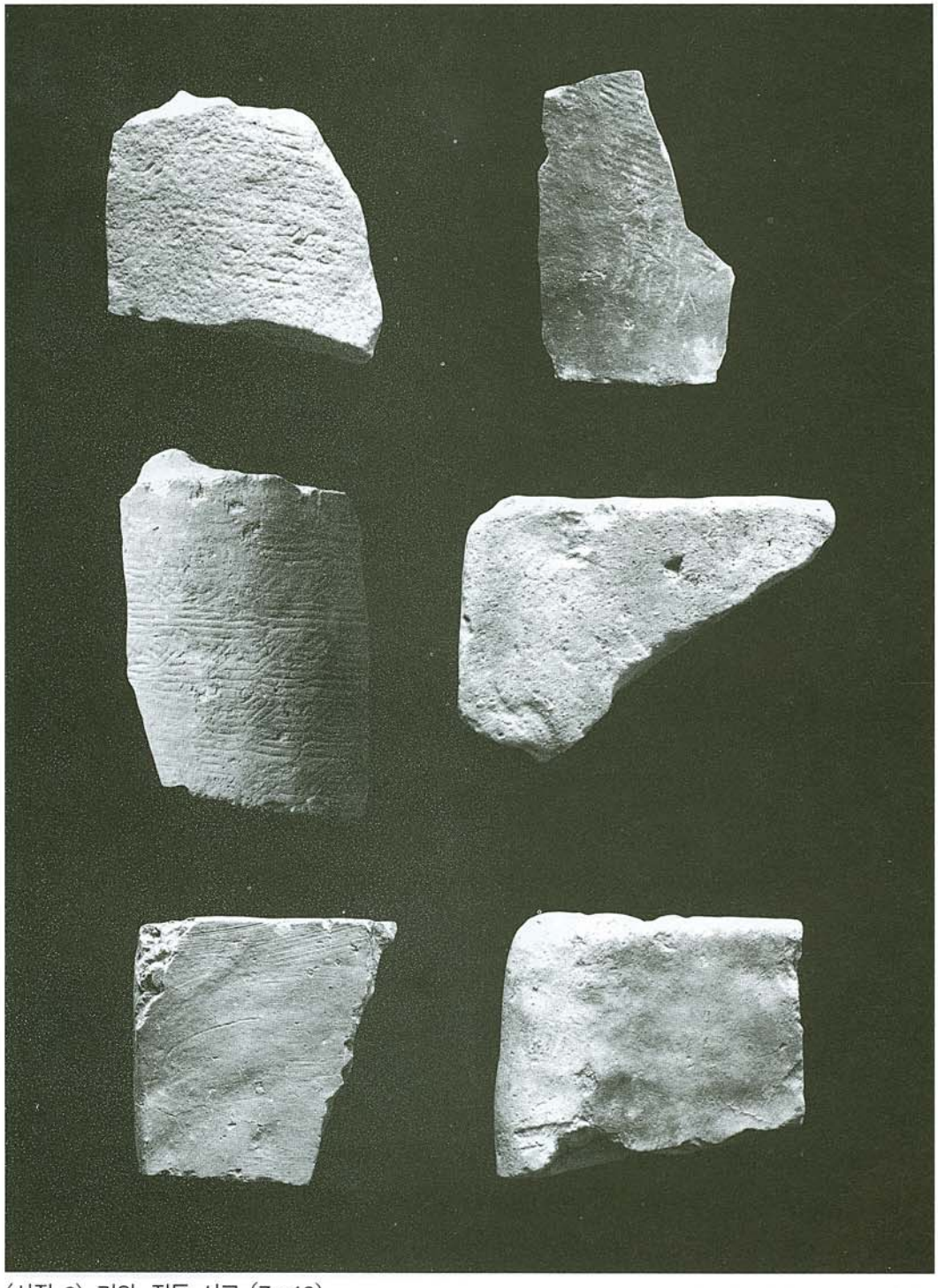
편광현미경으로 실시한 모달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 기와, 전돌의 조직과 모달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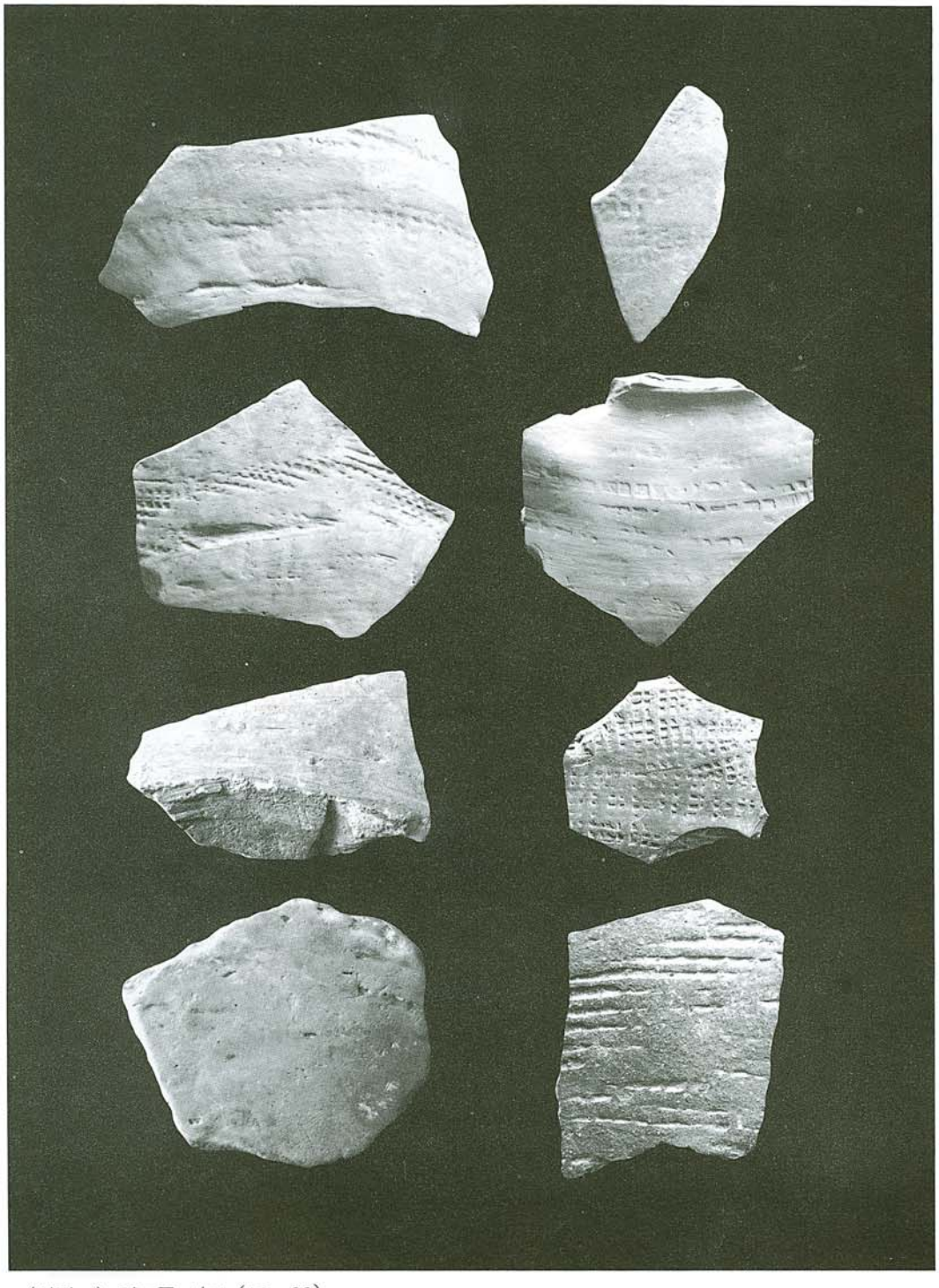
〈표 2〉의 기와, 전돌의 모달분석 결과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석기는 77~94%의 범위이나 대부분이 80% 안팎이다. 석영은 최하 3.6%에서 최고 17%, 각섬석은 0~4%, 흑운모는 0~10% 함유되어 있다. 광학적인 특성에 의하여 식별할 수 없는 철산화물로 간주되는 불투명광물들이 시료(기와 8번 시료의 붉은색 환형물질)에 따라서는 관찰된다(사진 1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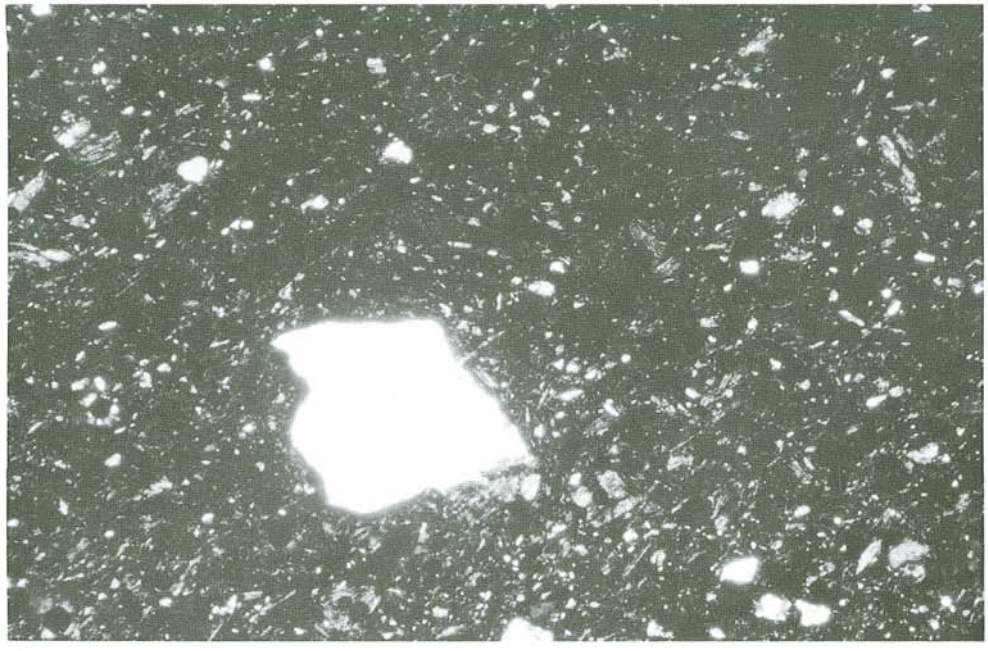
〈사진 1〉 기와 시료(1~6)



〈사진 2〉 기와, 전돌 시료 (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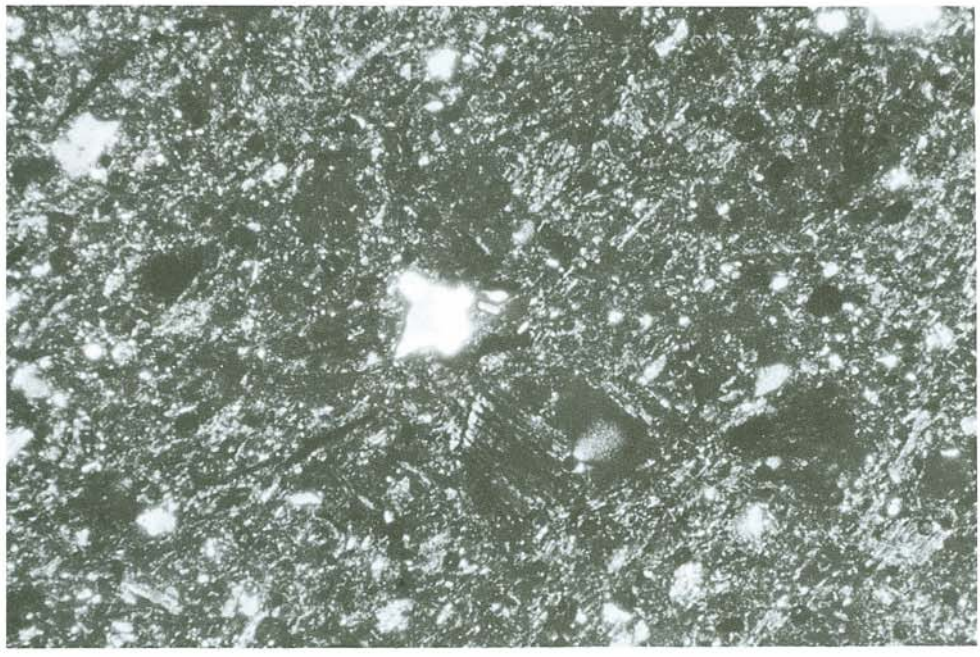


〈사진 3〉 질그릇 시료 (1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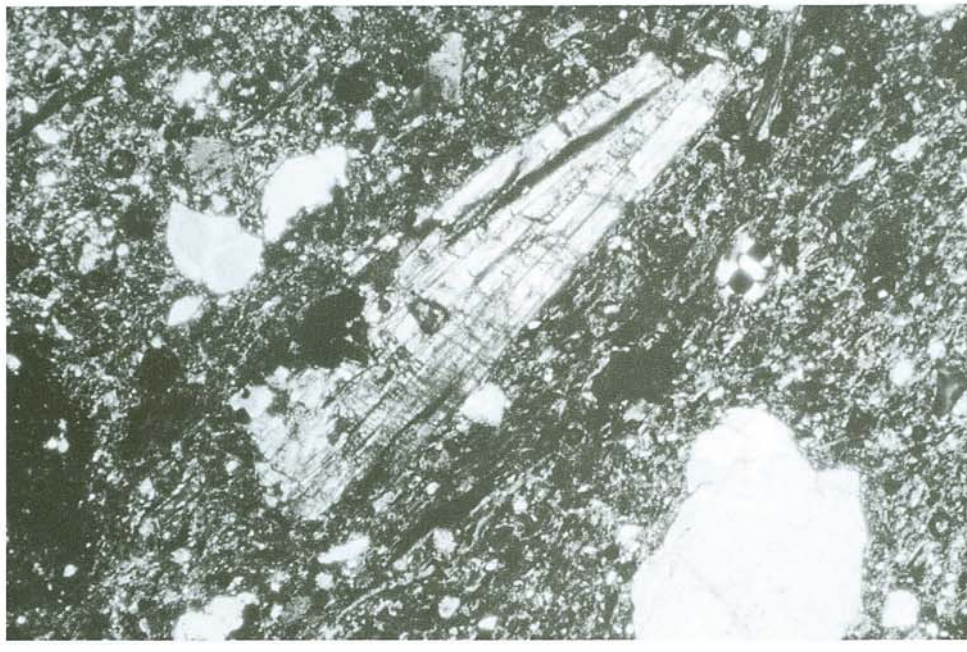


〈사진 4〉 0.6mm의 모난 석영입자가 있다(기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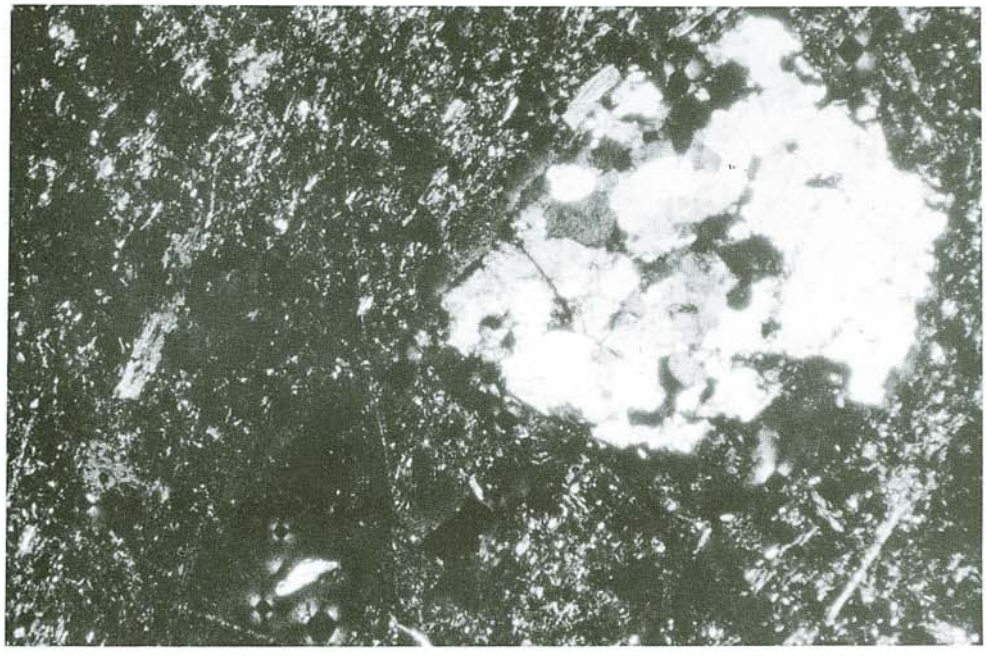
〈사진 5〉 모난 석영 위에 각섬석이 있다(기와 2).



〈사진 6〉 흑운모가 많다(기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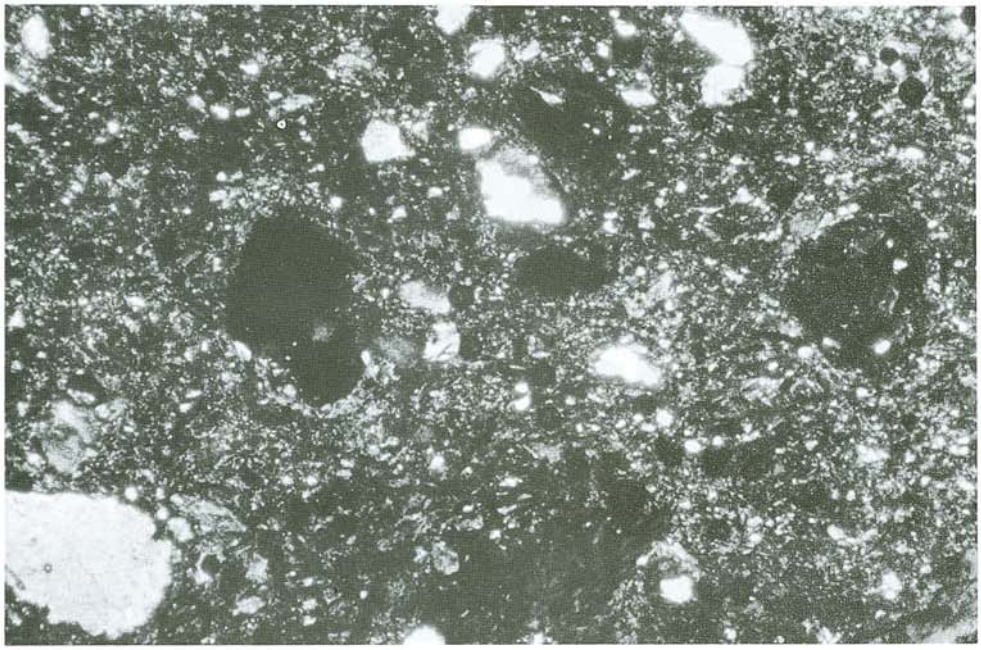


〈사진 7〉 1mm 크기의 각섬석 입자가 가운데 있다(기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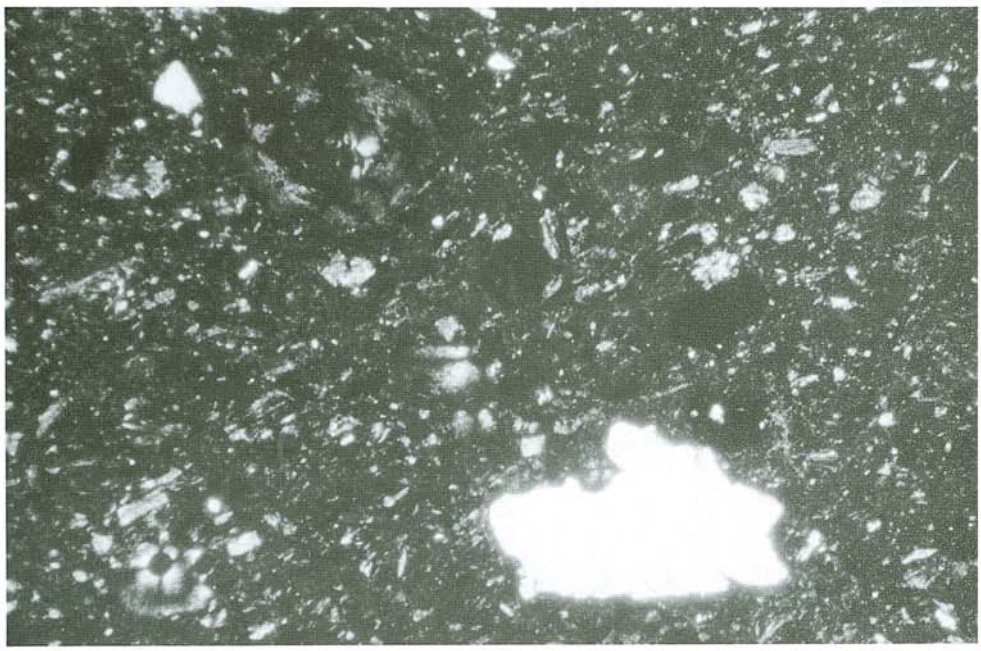


〈사진 8〉 오른쪽 위에 복결정질 석영이 있다(기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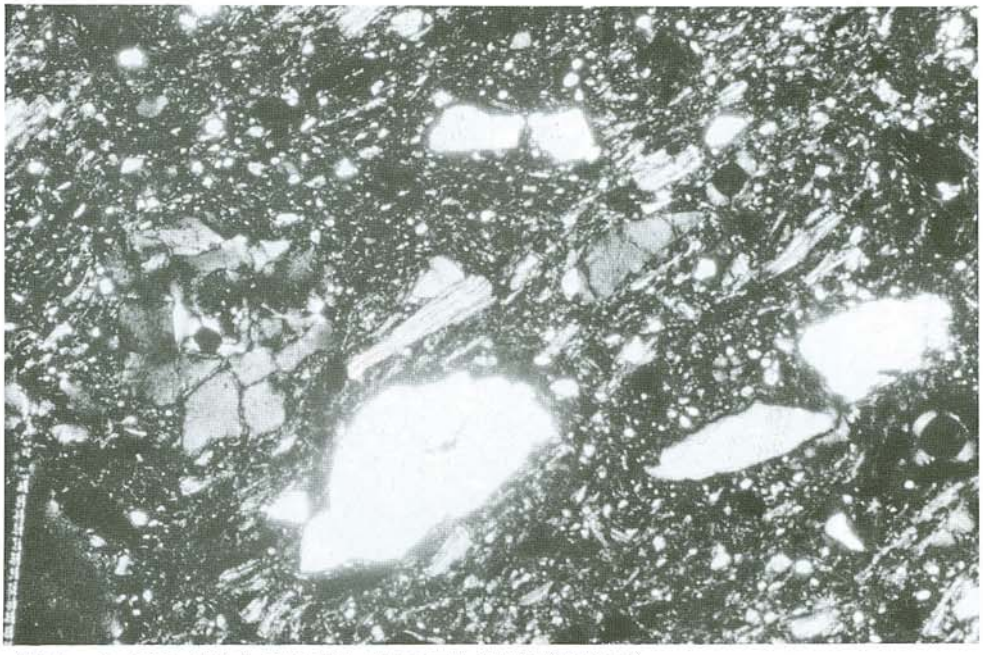
〈사진 9〉 1.4mm의 장석 입자가 있다(기와 6).



〈사진 10〉 흑운모가 많다(기와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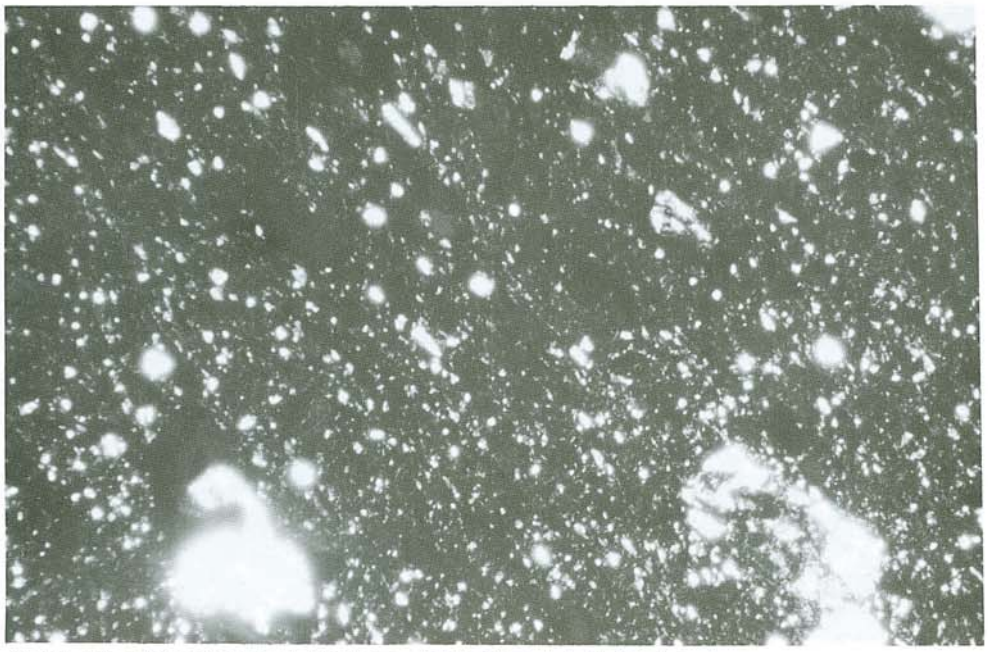


〈사진 11〉 불투명광물과 석영이 있다(기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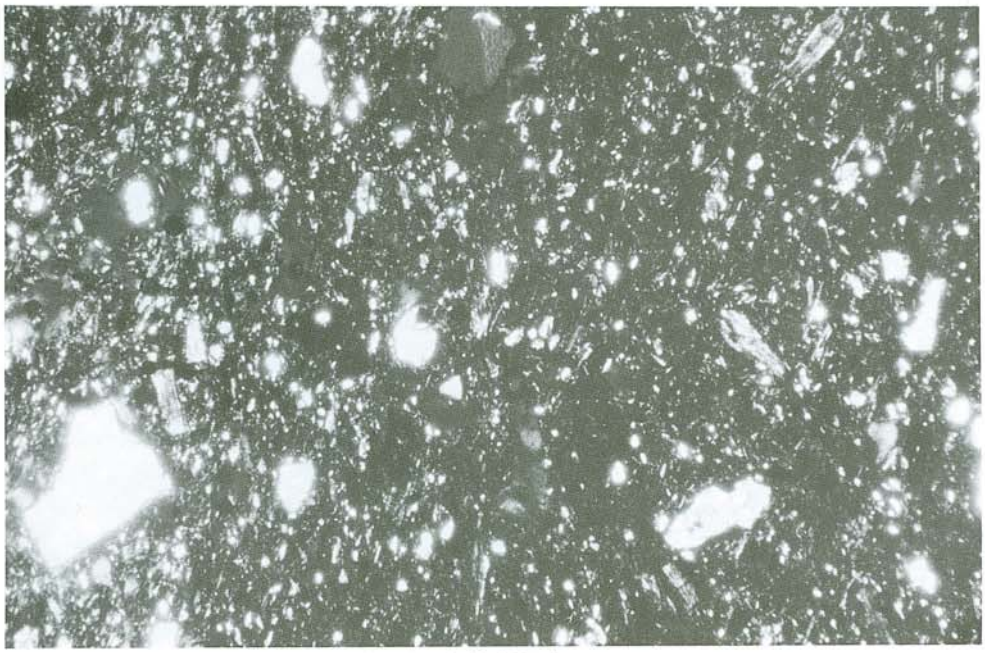


〈사진 12〉 굵은 석영과 각섬석이 빗금으로 나란하다(기와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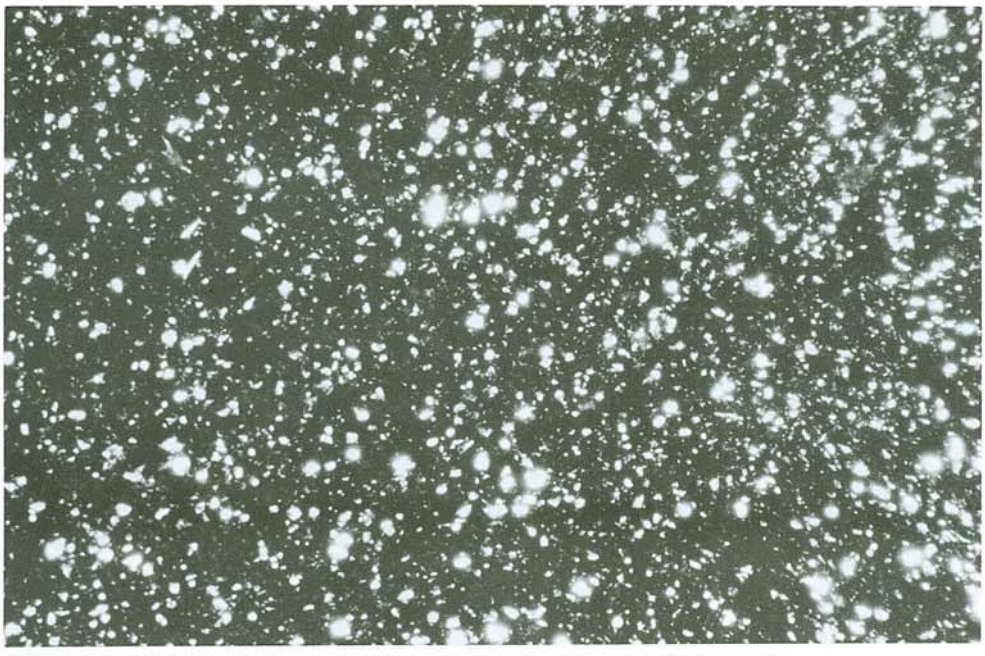
〈사진 13〉 2mm가 넘는 석영입자이다(전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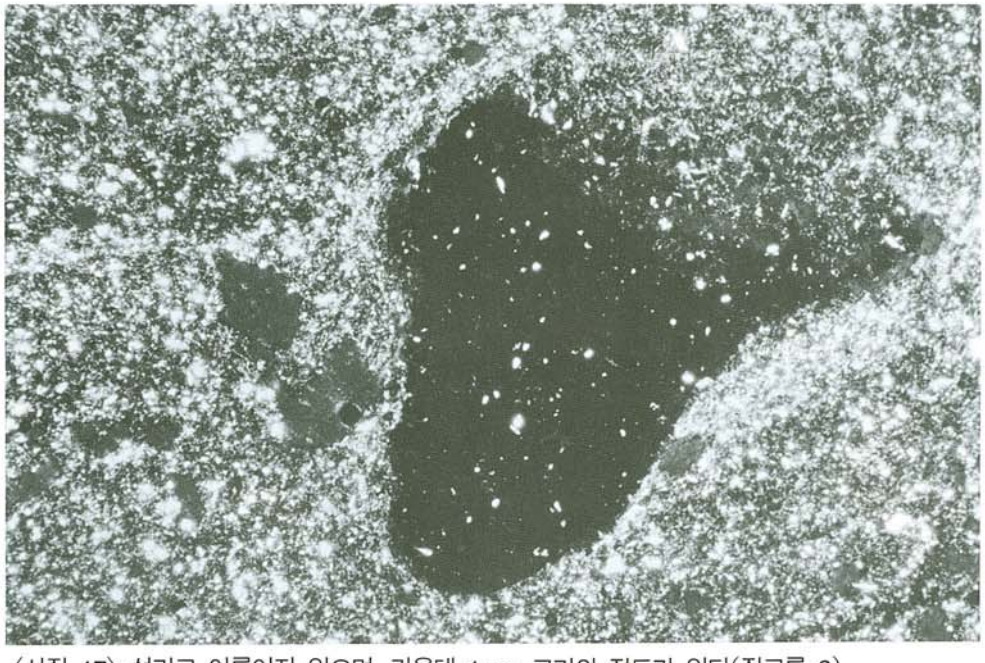
〈사진 14〉 광물들의 장축이 빗금으로 나란하게 줄지어 있다(전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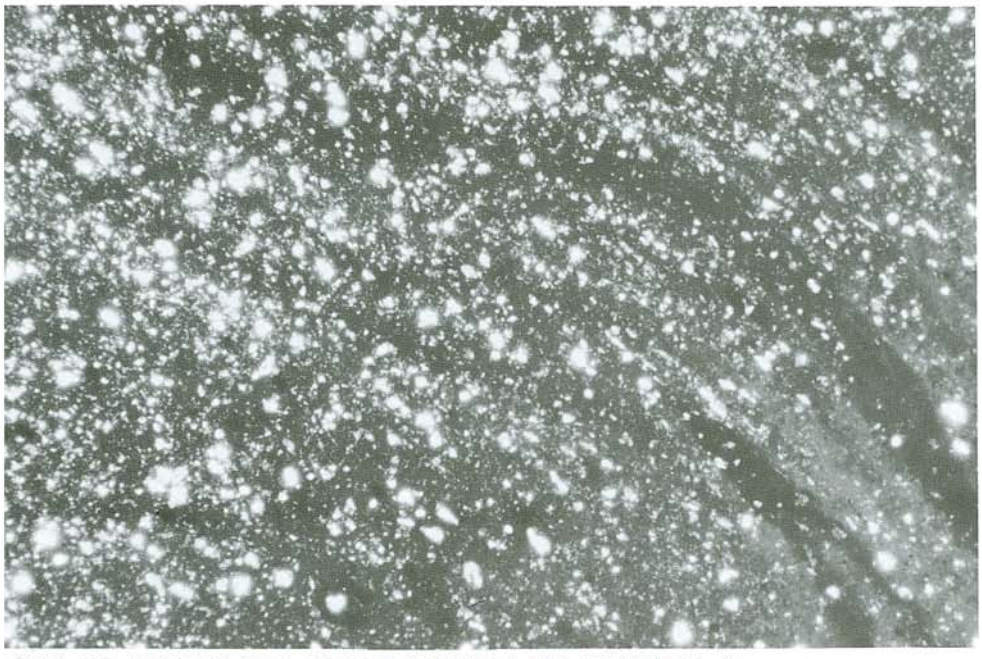
〈사진 15〉 석영, 각섬석, 흑운모 입자가 있다(전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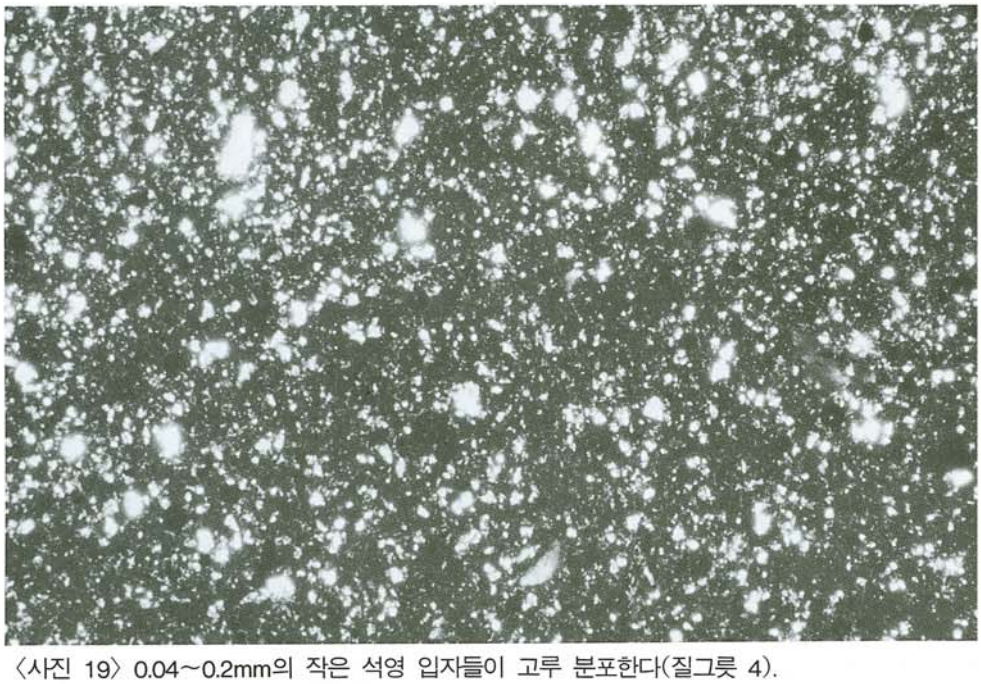
〈사진 16〉 대부분이 석기이다. 석영의 크기는 0.04~0.1mm이다(질그릇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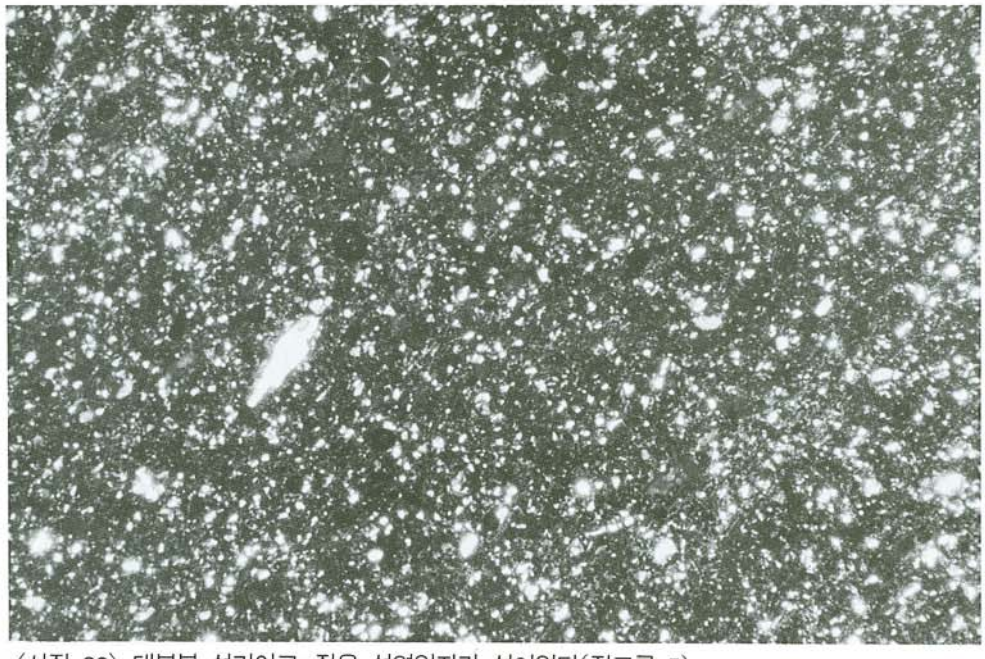
〈사진 17〉 석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운데 1mm 크기의 점토가 있다(질그릇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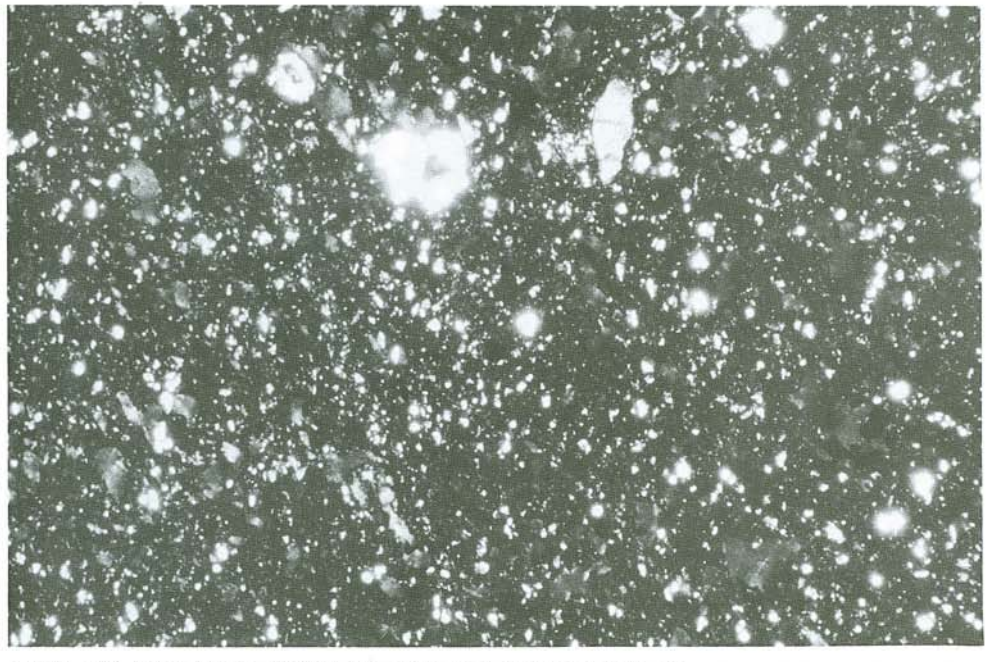
〈사진 18〉 석영의 입자들이 빗금으로 나란하게 놓여져 있다(질그릇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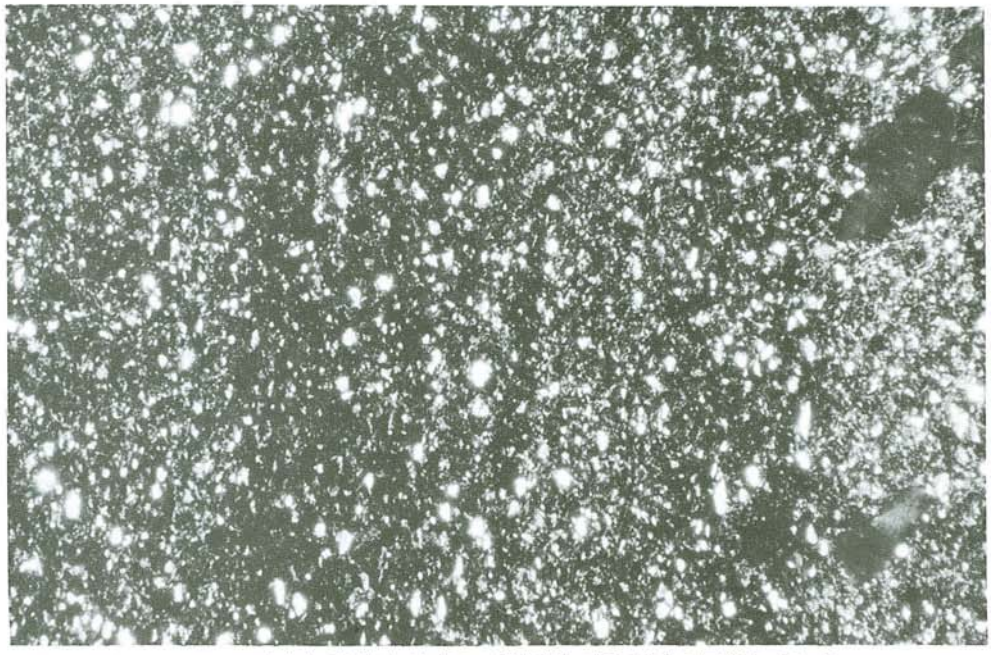
〈사진 19〉 0.04~0.2mm의 작은 석영 입자들이 고루 분포한다(질그릇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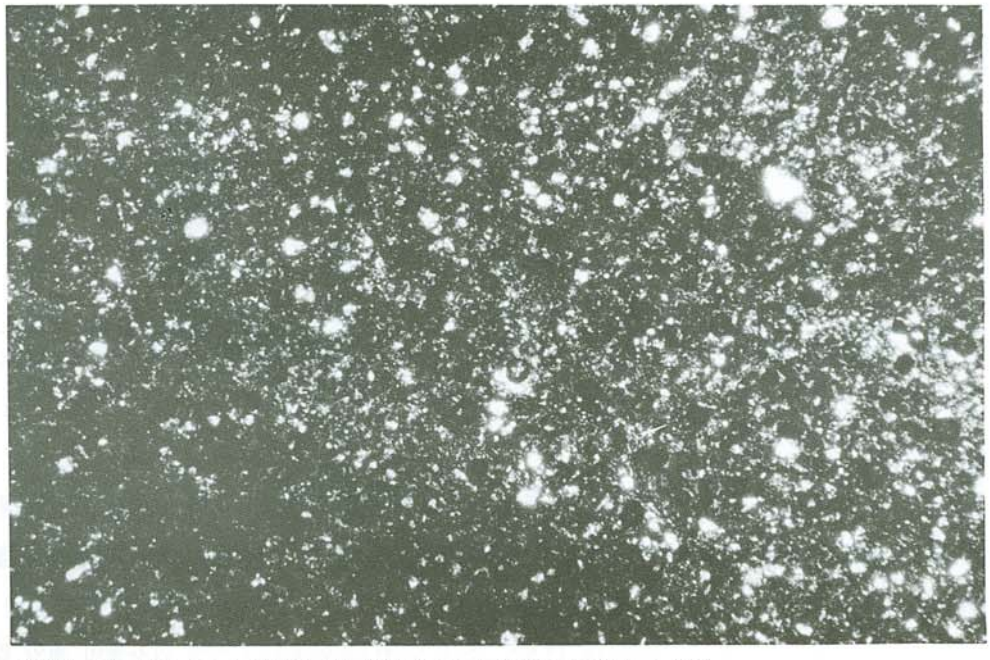
〈사진 20〉 대부분 석기이고, 작은 석영입자가 섞여있다(질그릇 5).



〈사진 21〉 작은 석영이 많은데, 테두리가 둥근 편이다(질그릇 6).



〈사진 22〉 작고 둥근 석영이 위에서 아래로 나란하게 배열되어 있다(질그릇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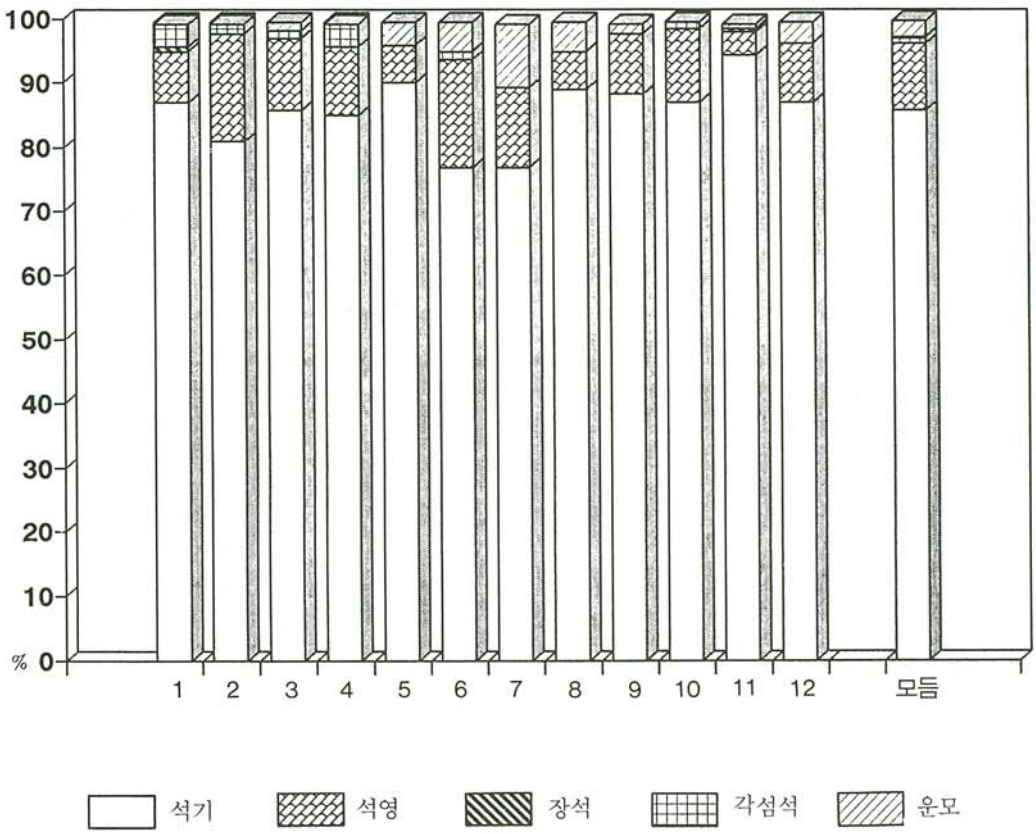
〈사진 23〉 작고 둥근 석영이 빗금 방향으로 늘어서 있다(질그릇 8).

표 2.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편광현미경 모달분석 결과

	석 기	석 영	장 석	각섬석	운 모	모 듬
기와, 전돌						
1	87.0	8.0	1.0	4.0	0.0	100.0
2	81.0	17.0	0.0	2.0	0.0	100.0
3	87.0	11.6	0.0	1.3	1.3	99.9
4	85.0	11.0	0.0	4.0	0.0	100.0
5	90.0	6.3	0.0	0.0	3.6	99.9
6	77.0	17.0	0.0	1.3	4.6	99.9
7	77.0	13.0	0.0	0.0	10.0	100.0
8	89.0	6.3	0.0	0.0	4.6	99.9
9	88.3	10.0	0.0	0.0	1.6	99.9
10	87.0	11.6	0.0	1.3	0.0	99.9
11	94.3	3.6	1.0	0.0	1.0	99.9
12	87.0	9.6	0.0	0.0	3.3	99.9
질 그 릇						
1	97.6	2.3	0.0	0.0	0.0	99.9
2	98.3	1.6	0.0	0.0	0.0	99.9
3	95.3	4.6	0.0	0.0	0.0	99.9
4	89.6	7.3	3.0	0.0	0.0	99.9
5	82.0	16.0	2.0	0.0	0.0	99.9
6	94.0	6.0	0.0	0.0	0.0	100.0
7	84.0	16.0	4.0	0.0	0.0	100.0
8	91.0	9.0	0.0	0.0	0.0	100.0

* 위 분석 결과에 제시한 백분율은 300 point 관찰결과이며, 0.03 mm 이하의 입자는 모두 석기(matrix)로 분류하였음.

기와와 전돌을 이루는 광물들의 조직은 대체로 미립의 점토물질 변질물들이 유리화된 석기 위에 1mm이상의 입도를 갖는 비교적 큰 결정들이 반정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특히 함유량이 높은 석영이 큰 결정으로 산출된다. 석영의 닳음새(roundness)는 매우 다양해서 기와에 따라 둥근 것에서부터 모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대체로 조금 모난(subangular) 석영 입자들이 제일 많다(사진 4, 5, 12~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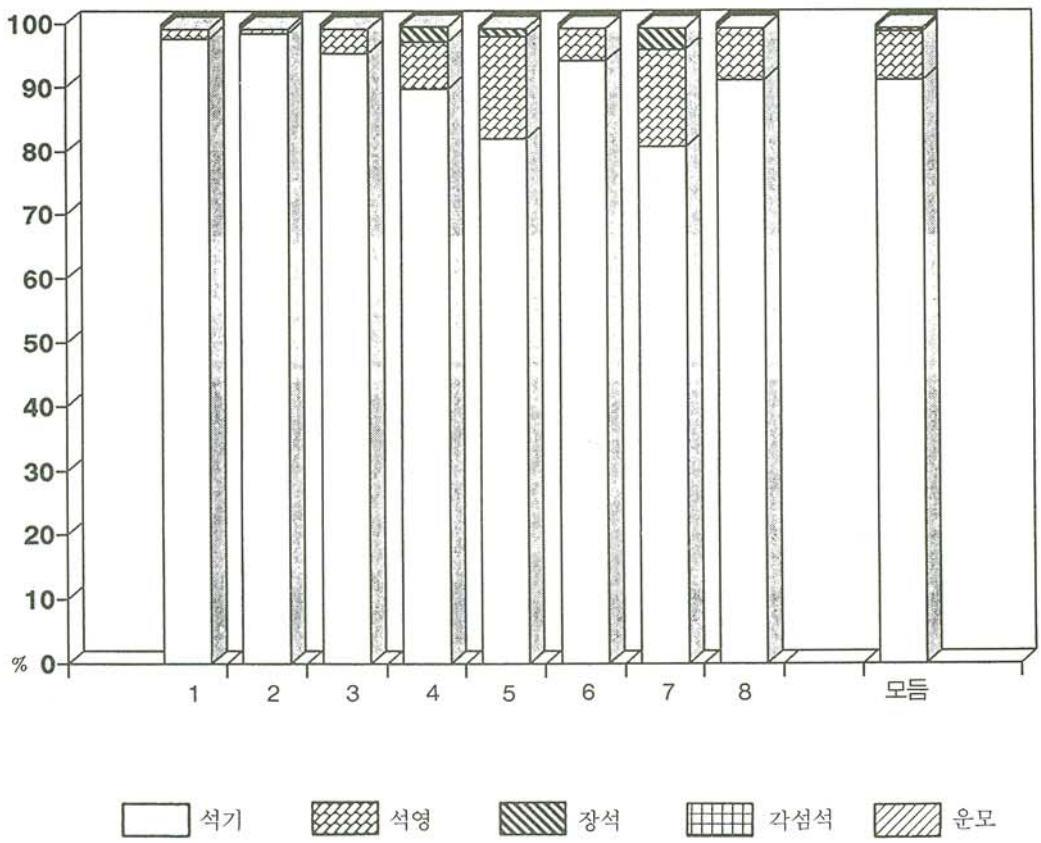


〈그림 1〉 기와, 전돌의 모달분석 결과

흔히 기질부에는 공극이 잘 발달되는데 이들의 크기는 0.03mmm 내외에서부터 수 m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기와와 전돌의 모달분석 결과 장석은 두 개의 시료에서만 검출되는데(사진 9 참조), 이는 장석이 세립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X-선회절분석에서는 모든 기와와 전돌 시료에서 장석이 검출된다.

나. 질그릇의 조직과 모달분석 결과

〈표 2〉의 질그릇의 모달분석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석기는 82~98.3%, 석영은 1.6~16%, 장석은 0~4%를 차지하며, 각섬석과 흑운모는 검출되지 않는다. 일반으로 질그릇의



〈그림 2〉 질그릇의 모달 분석 결과.

조직은 세립질물질의 집합체로 특징지워진다. 결정질광물 또한 석기와의 경계에 해당되는 0.03 mm의 입도를 갖는 결정이 우세하고, 이보다 더 큰 입자는 매우 드물다(사진 16~23참조).

질그릇에서도 공극이 발견되는데 이것의 크기는 기와나 전돌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매우 작다. 또한 석기를 이루는 부분은 유리화 작용이 진행되어 있으며 이는 점토물질의 소성 산물로 추정된다. 질그릇은 〈그림 2〉에서 보듯이 80% 이상이 세립질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와나 전돌보다 세립질 광물로 이루어진 점토를 질그릇의 재료로 사용한 점이 조직상 특징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질그릇은 석기를 구성하는 물질이 모두 점토나 유리질이 아닌 세립질의 결정질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하여튼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결정질 물질은 최고 20%이며 질그릇 1번과 같은 시료에는 지름이 0.03mm 이상인 광물질이 3%미만이다. 결정질 물질의 함유비가 시료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변화 범위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4. X－선회절분석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광물 조성을 알아보려고 X－선회절분석을 하였다. 기와와 전돌 그리고 질그릇의 일 부분을 깨어 200목 이하로 빻아 부정방위 시료로 만들어서 MAC Science X－선회절분석기로 가속 전압 30Kv 20mA, Cukα선을 이용하여 3～45도 2θ구간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에 종합한 바와 같다.

표 3.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X－선회절분석에 의한 광물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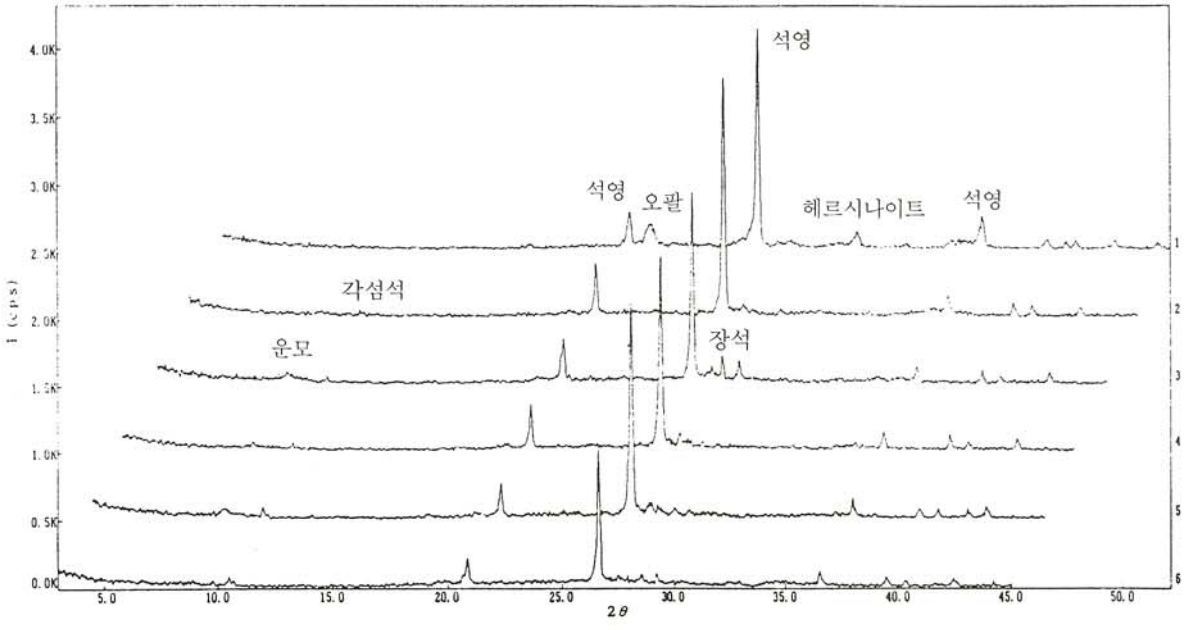
	석 영	장 석	뮬라이트	헤르시나이트	오 팔	운 모	각섬석
기와, 전돌							
1	☆☆	☆	☆	☆☆	☆☆		
2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8	☆☆	☆				☆	
9	☆☆	☆	☆	☆☆	☆☆		
10	☆☆	☆				☆	☆
11	☆☆	☆	☆	☆☆	☆☆		
12	☆☆	☆					☆
질 그 릇							
1	☆☆	☆	☆			☆	
2	☆☆	☆	☆			☆	
3	☆☆		☆				
4	☆☆		☆	☆			
5	☆☆	☆	☆				
6	☆☆		☆	☆			
7	☆☆	☆	☆			☆	
8	☆☆		☆☆	☆	☆		

가. 기와, 전돌의 광물조성과 구운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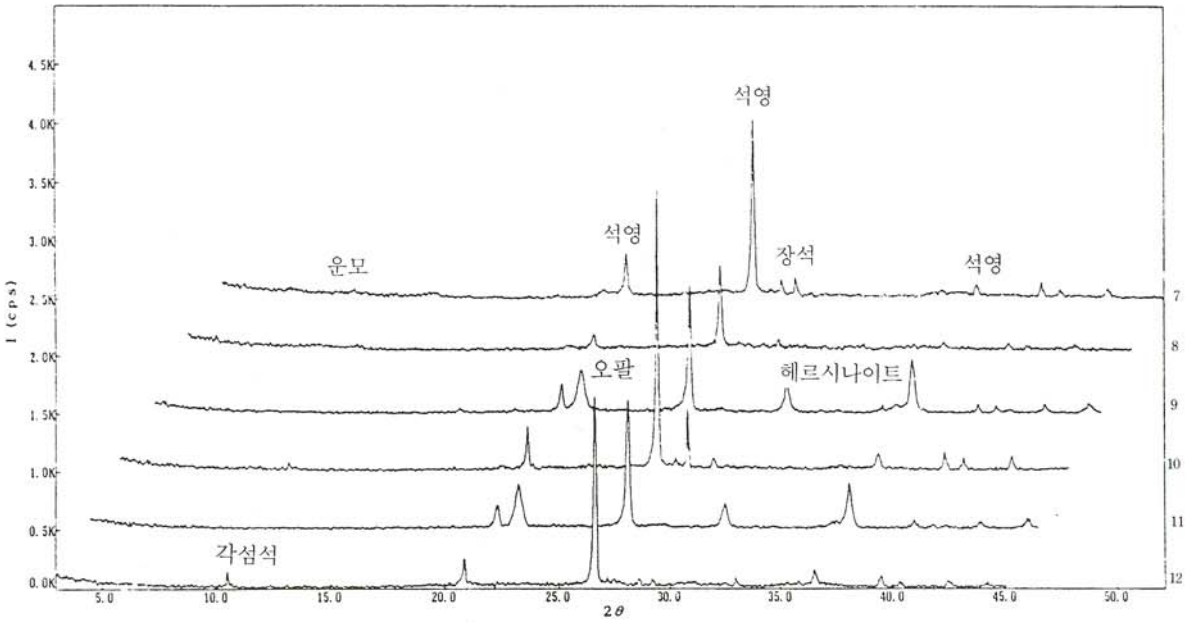
기와, 전돌 시료의 구성광물 종류로는 석영, 장석, 각섬석, 운모, 뮬라이트, 헤르시나이트 및 오팔이 나온다. 그러나 뮬라이트, 헤르시나이트와 오팔은 편광현미경 관찰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결정 입자의 크기와 광학적 특성 때문이다. 이들의 X-선회절분석 결과는 〈그림 3, 4〉와 같다.

기와와 전돌 시료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광물은 석영과 장석으로서 결정질 물질의 대부분을 이 두 광물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 9 및 11번 시료에서는 소량의 뮬라이트(Mulite)와 헤르시나이트(Hercynite)가 보인다. 이들 세 시료는 맨눈 감별시 경질로 구분된 것들이다. 나머지 연질로 구분된 시료들에서는 이 광물들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 두 광물은 고온에서 생기는 광물들로서 기와의 구운온도를 유추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된다. 알루미나를 함유한 층상규산염광물(흔히 점토광물)을 1000℃이상을 가열하면 뮬라이트와 크리스토발라이트(Christobalite)가 생긴다. 이로 미루어보아 이 세 시료는 최소 1000℃를 넘는 온도 조건에서 구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 기와시료의 X-선 회절분석 결과(시료번호는 일련번호로 표 3의 번호와 동일하며 위로부터 1~6번 까지임).



〈그림 4〉 기와, 전돌의 X－선 회절분석 결과(시료번호는 일련번호로 표 3의 번호와 동일하며 7～12번 시료임).

그러나 크리스토발라이트는 없으며 오팔에 해당되는 광물이 이들 경질 기와와 전돌에서 나타난다. 오팔은 크리스토발라이트와 트리디마이트가 불규칙하게 혼재된 양상이다. 한편 헤르시나이트는 자연으로 산출되는 광물이 아니라 합성 광물로서 이의 소성온도는 1200～1300℃이다(PDF file No. 340192 참조). 이로 미루어보아 이들 시료의 구운온도는 1200℃이상이었다고 생각된다.

나머지 연질 기와와 전돌로 분류된 시료들의 재료(점토광물 또는 광물들)가 1, 9, 및 11번 시료와 같다면 이들의 구운온도는 1000℃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의 구성물질이 같았다면 고온 광물인 뮬라이트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광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와들이 만약 동일한 가마에서 제작된 것이라면, 가마 전체의 온도가 균일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동일 지역의 가마에서 만들어졌을지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일부러 구운온도를 달리하여 구웠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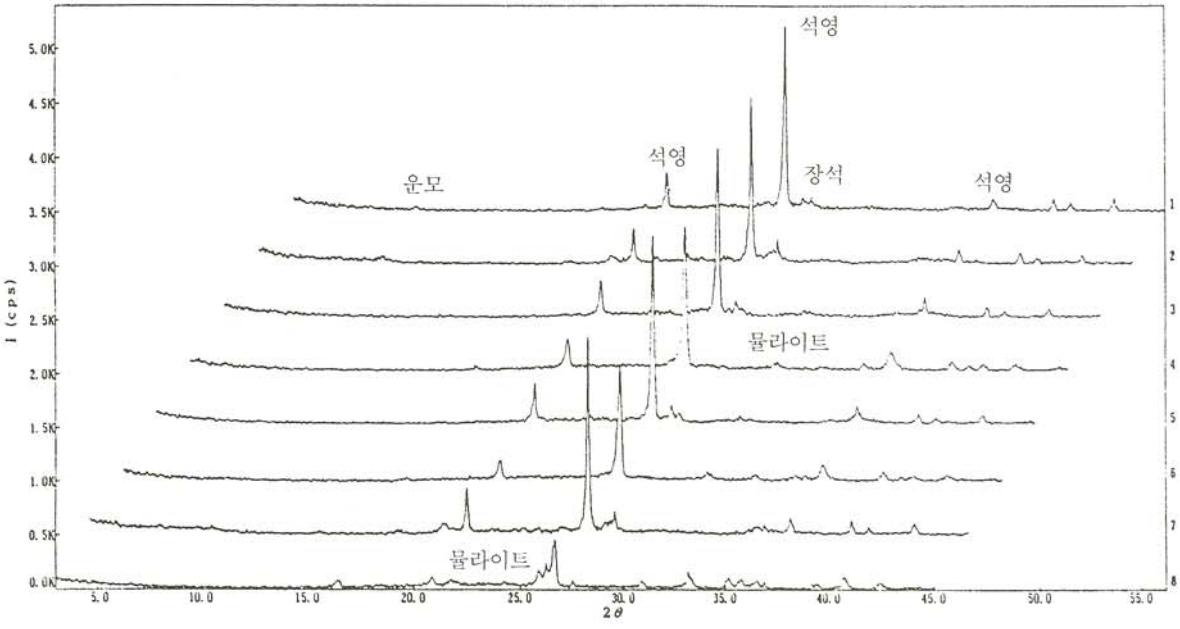
나. 질그릇의 광물조성과 구운온도

질그릇의 광물조성은 석영과 장석이 주 구성광물이고 시료에 따라 운모, 뮬라이트, 헤르시나이트 및 오팔이 더 나온다(표 3 참조).

이들 시료의 광물 조성은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차이를 보인다.

질그릇 시료들에는 각섬석이 들어있지 않다. 이들 시료들이 갖는 광물 조성상의 차이는 맨눈 감별에서 연질과 경질로 나눈 바와 일치하고 있다. 연질 질그릇으로 분류된 1, 2 및 7번 시료는 석영과장석 외에 운모가 나오는데, 경질 질그릇으로 분류된 4, 6 및 8번 시료는 운모가 없고 헤르시나이트가 나온다. 모든 질그릇 시료에는 뮬라이트가 있다.

이와같은 광물조성의 차이는 구운온도의 차이로 해석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뮬라이트는 고온에서 생기는 광물이므로 이것이 있는 질그릇이 높은 온도(약 1000℃내외)에서 구워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장석이 나오지 않는 4번이나 6번 시료는 다른 시료에 비해 뮬라이트가 더 많이 들어있다. 또한 이들 4, 6 및 8번 시료는 적지만 헤르시나이트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헤르시나이트를 지닌 세 시료는 이 광물이 없는 나머지 시료보다 더 높은 온도(약 1200℃이상)에서 구어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5〉 질그릇의 X－선 회절분석 결과(시료의 번호는 표 3의 번호와 동일함)

5.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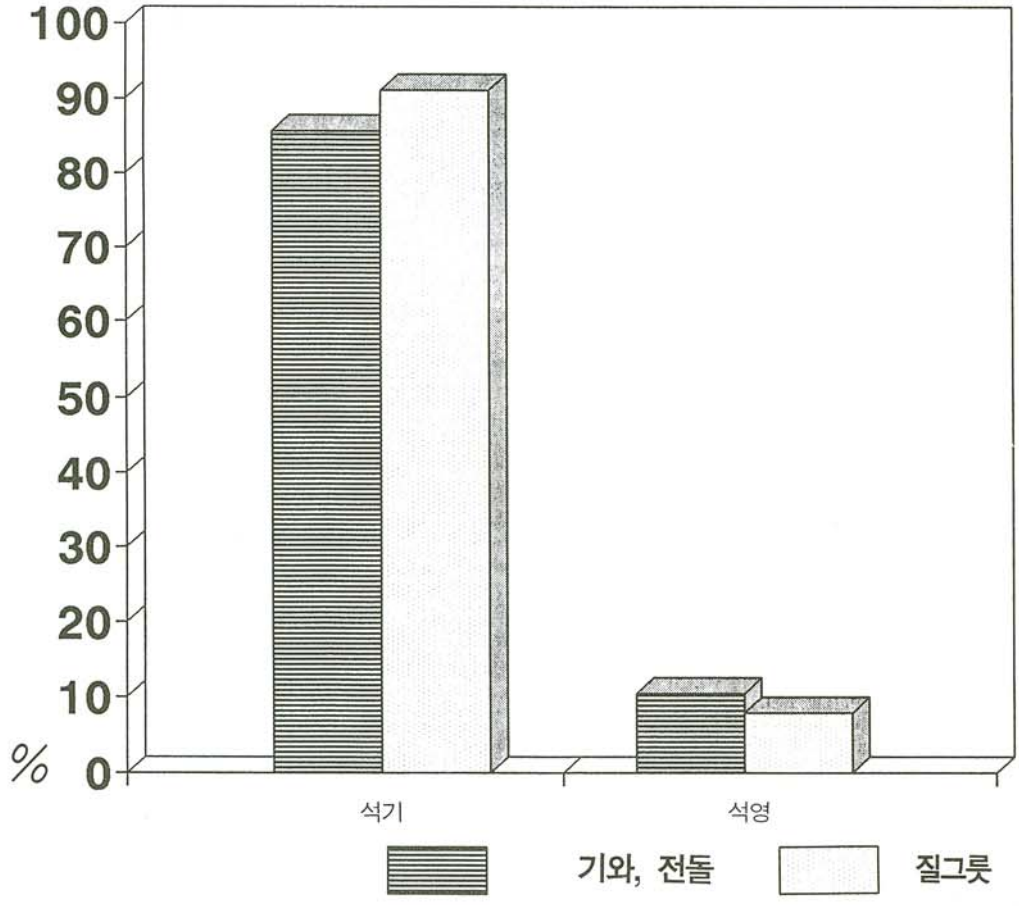
기와, 전돌과 질그릇의 광물조성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한된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구성 광물의 조성비 차이를 기와와 질그릇의 평륜 함량을 구한 후 비교한 결과는 〈그림 6, 7〉과 같다. 〈그림 6〉은 석기와 주 구성광물인 석영의 함유비를 비교한 것이고, 〈그림 7〉은 장석, 각섬

석과 운모를 비교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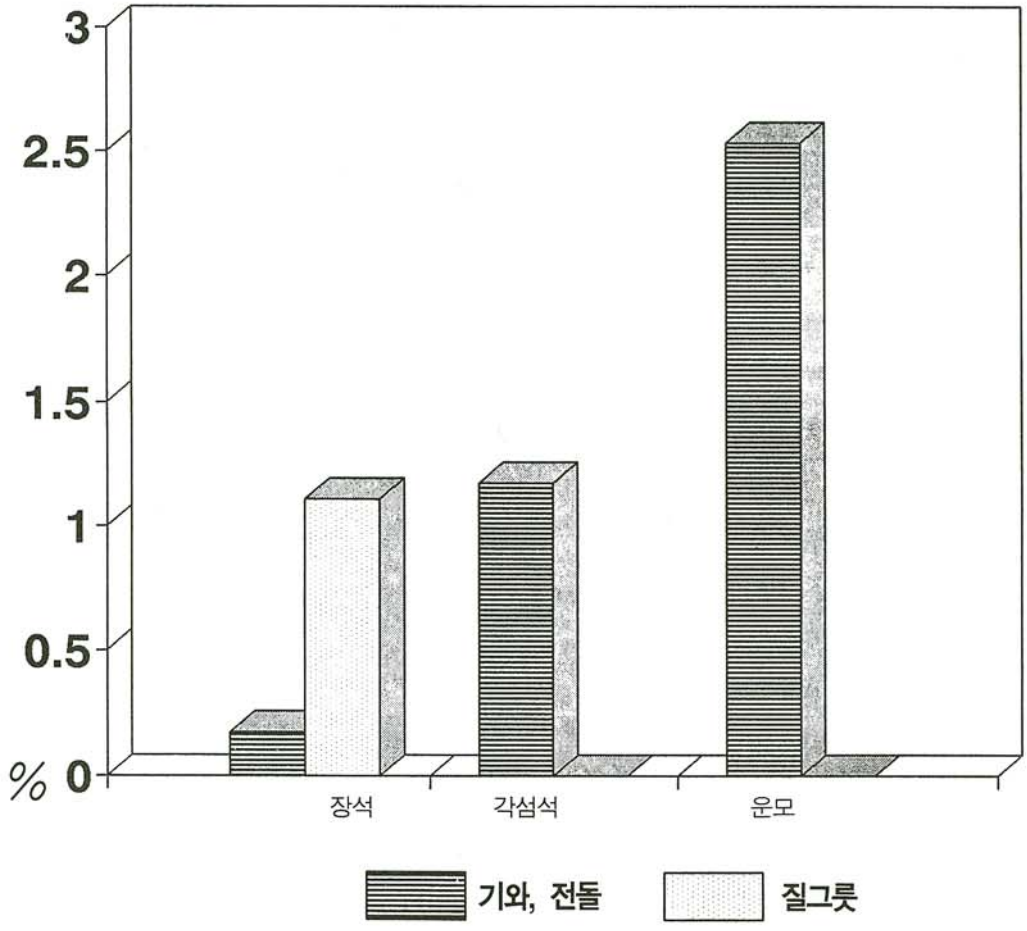
구성광물 조성비의 변화 양상으로 보아 기와, 전돌과 질그릇에 이용된 원료 물질은 서로 다르며 적어도 다른 곳의 원료 광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근거는 기와, 전돌과 질그릇 시료들이 갖는 광물조성의 차이와 조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와, 전돌에서는 각섬석이 있지만, 질그릇에는 각섬석이 없다. 또한 운모의 산출 빈도 또한 기와, 전돌에서 훨씬 높다.

조립질 광물로서 기와, 전돌은 모난 석영 입자를 더 많이 지니고 있으나, 질그릇에는 조립질 석영 입자가 들어있지 않다. 또한 질그릇 시료에는 석기의 함유비가 91.1%이고 기와, 전돌에서는 85.7%로서 질그릇 시료에서 더 높다(그림 6).

이러한 광물조성과 조직의 차이는 구운온도 차이로만 설명되지 않으며, 원료 물질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기와, 전돌의 석영 입자 테두리가 모난 것(사진 4, 5, 12~15 참조)은 퇴적물이 원



〈그림 6〉 기와, 전돌과 질그릇에 함유된 석기와 석영의 평균치의 비교(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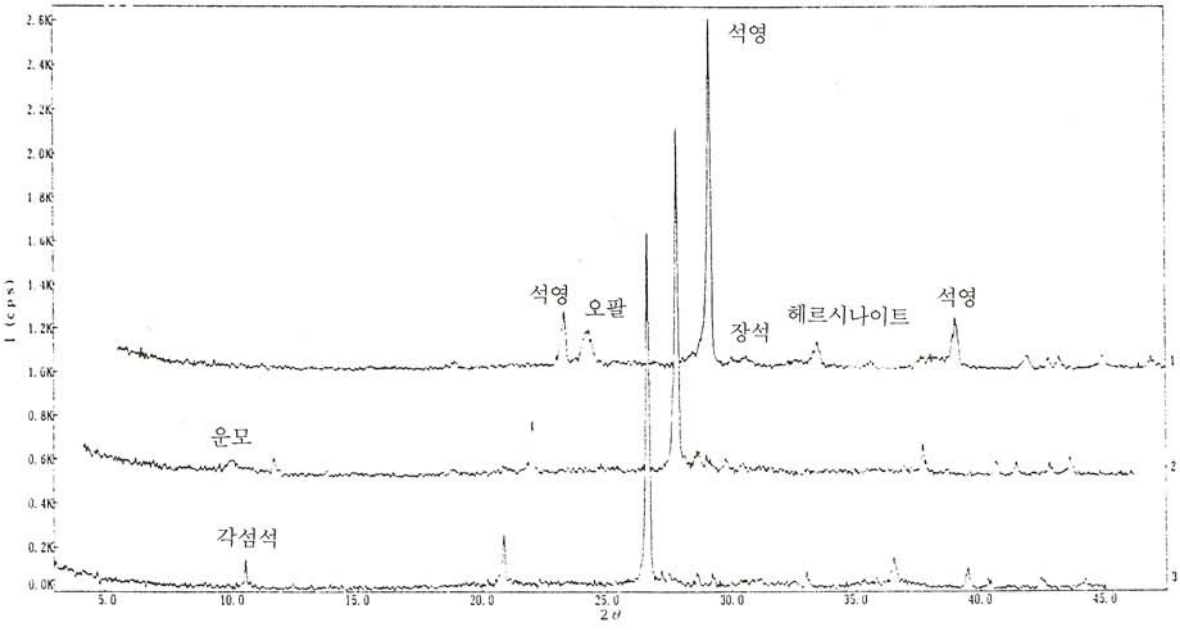
〈그림 7〉 기와, 전돌과 질그릇에 함유된 장석, 각섬석 및 운모 평균치의 비교(단위 %)

거리를 이동하지 않았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된 점토물질이 원지성 혹은 풍화잔류토양임을 알 수 있다. 각섬석이 흔한 산출상을 보이는 점으로(그림 7) 미루어보아, 원숙한 화학적 풍화작용의 산물이 아닌 것을 추정할 수 있으며, 화성 및 변성 기원의 암석으로부터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현미경 관찰 결과 질그릇의 세립질 조직(사진 16~23 참조)에서 이차로 집적된 점토광물이 우세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또한 각섬석과 같은 풍화에 약한 광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원숙한 풍화작용의 산물이며 일정 거리(비교적 원거리)를 이동 퇴적된 물질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기와, 전돌의 원료물질과 질그릇의 원료물질은 서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와, 전돌과 질그릇 가운데 맨눈감정으로 구분된 경질과 연질의 시료에서 나타나는 광물조성의 차이는 구운온도의 차이로 해석된다. 기와와 전돌에서 광물조성의 차이를 보이는 시료의 X-선회절분석결과를 〈그림 8〉에 비교하였다. 경질로 분류된 1, 9 및 11번 시료와 연질로 분류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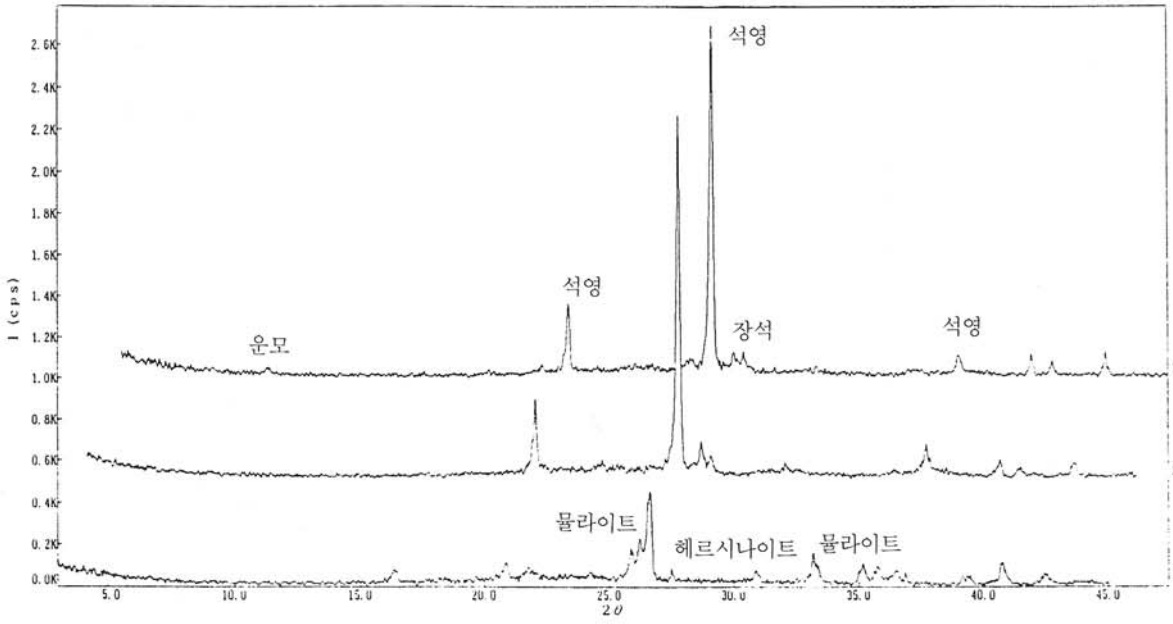
나머지 시료들은 분명한 광물 조성의 차이를 나타내어, 광물조성으로도 두 무리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경질기와와 전돌(그림 8의 1)에는 헤르시나이트, 뮬라이트와 오팔이 있으나, 연질 기와와 전돌(그림 8의 2, 3)에는 이같은 광물이 없다.



〈그림 8〉 광물조성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기와, 전돌 시료의 X-선 회절분석 결과(위로부터 기와 1, 5 및 12번 시료임. 1번(경질) 시료는 고온광물인 헤르시나이트와 뮬라이트를 수반하는데 반하여 5번과 12번 시료는 고온광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광물 조성의 차이는 원료 물질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운온도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광물이 모두 고온으로 가열시 규산염광물로부터 생기는 광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온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거정질 석영입자가 경질과 연질에 모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유사한 환경에서 형성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질그릇에서 광물 조성의 차이를 보이는 시료의 X-선회절분석 결과를 〈그림 9〉에 비교하였다. 질그릇 시료의 광물 조성 가운데 헤르시나이트가 있고 없음으로 경질과 연질이 구분된다. 그러나 질그릇의 경우에는 함유량은 차이가 있지만 모두 뮬라이트를 함유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질그릇 시료가 기와와 전돌보다는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졌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질그릇 시료에서 경질로 분류된 4, 6 및 8번 시료는 헤르시나이트를 함유하고 있어 다른 질그릇 시료보다 더 높은 온도(1200℃이상)에서 구워졌으리라고 추정된다.



〈그림 9〉 질그릇 시료의 광물조성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시료의 X-선 회절분석 결과 (위로부터 질그릇 1, 5 및 8번 시료임. 8번(경질) 시료는 고온광물인 헤르시나이트와 물라이트를 수반하고 장석이 없는데 반하여 1번과 5번 시료는 고온광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광물조성이나 조직상의 특성을 준거로 재료의 산지 추정이 가능하다. 이같은 조성의 점토광물이나 토양은 유물이 출토된 광주 문흥동 지역의 지질조건으로 보아 주변 지역에서 흔히 산출될 수 있다. 그러나 질그릇과 기와, 전돌의 원료물질은 적어도 같은 것을 사용한 것은 아니며, 서로 다른 곳의 점토나 토양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기와, 전돌과 질그릇이 경질, 연질에 따라 구운온도의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여러 가지로 추정된다. 1) 기와, 전돌 그리고 질그릇의 제작 시 사용 목적에 따라 구운온도를 일부러 조절하여 서로 다른 가마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과, 2) 동일한 가마이나 따로따로 다른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과, 3) 당시 사용된 가마의 구조가 똑같은 온도를 얻기 어려워, 다시 말하자면 가마 속의 자리에 따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운온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광물조성의 차이만을 근거로 이를 추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기와, 전돌 혹은 질그릇에서의 광물조성이 구운온도에 의한 고온성 광물의 생성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기와와 질그릇의 재료는 각기 거의 동일한 지역이거나 인접한 지역 또는 유사한 지질 조건의 지역에서 마련된 것은 거의 확실하다.

질그릇 전에 대하여

서경석

그릇은 용도에 따라 크기가 작을 수 있고 클 수도 있다. 자주 쓰는 그릇은 작고 가벼워야 할 것이고, 오랜 동안 술이나 음식 따위를 숙성시킨다든가 많은 양을 저장하는데 쓰는 그릇은 클 것이다.

그렇지만 용도나 크기가 정해졌다고 해서 무작정 그릇을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물레 위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의 형태는 작은 손놀림으로도 매우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릇의 형태는 많은 부분 곧 바닥(굽), 배, 어깨, 목, 전(아가리)의 생김새에 영향을 받으나, 이 가운데서도 특히 전은 그릇의 전체 표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람의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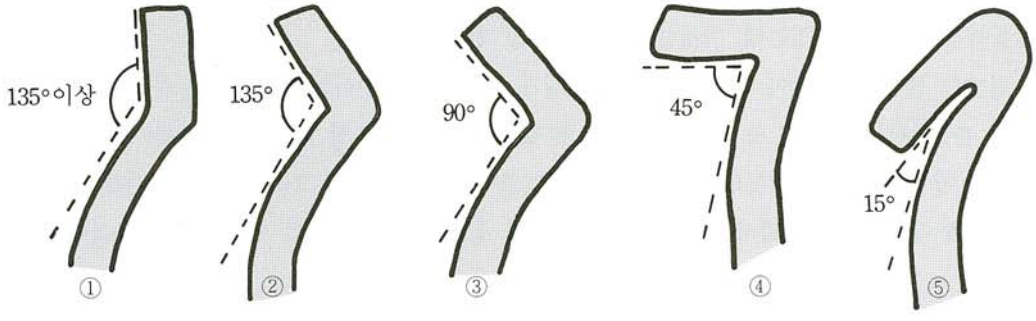
여기서는 문흥동 유적에서 나온 질그릇 전의 생김새를 통하여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전의 모습은 그릇의 크기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제작자의 무슨 의도를 담고있는 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1. 전 만들기

전의 형태는 그릇의 몸체에서 이어진 선이 끝나는 지점과 전이 시작되는 지점이 만나는 부분의 각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그림 1).

첫째, 135도 이상의 각도로 곧바로 서 있는 곧은 전

둘째, 135도 정도로 바라진 전



〈그림 1〉 휘임새에 따른 질그릇 전의 나눔
1. 곧은전 2. 바라진전 3. 꺾인전 4. 구부러진전 5. 맞닿는전

세째, 90도 정도로 꺾인 전

네째, 45도 안팎으로 구부러진 전

다섯째, 몸과 거의 맞닿은 전

다섯 가지로 나뉘는 전의 휘임새는 물레 성형을 할 때, 그릇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손의 엄지와 검지의 움직임에 따라 정해진다. 다시 말하자면 135도나 그 이상으로 곧바로 서 있는 전은 물레 성형 후 전의 모양을 다듬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로 손가락이나 물가죽으로 전의 가장자리를 다듬은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전들은 그릇의 안쪽에 들어가 있는 손의 엄지와 검지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얼마만큼 꺽어주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 때 바깥쪽 손은 안쪽에서 꺽어지는 전을 받쳐만 주는 역할을 한다.

한편 전을 만들 때 물레를 어느 방향으로 돌렸는 가를 알려주는 유물이 있다. 겹전에서도 물레의 회전 방향을 감지할 수 있지만 좀더 분명한 예로 그릇 벽이 있다(사진 1, 2). 여기의 두들긴무늬는 수래질 뒤의 겉면 정리 과정에서 오른쪽으로 일그러졌다. 이로 보아 물레의 회전 방향은 왼쪽이었다고 추리된다. 이처럼 물레를 왼쪽으로 돌게 차는 방법은 오늘날 옹기점에서도 똑같다.

2. 전과 그릇의 크기

그런데 이같은 전의 생김새로 그릇의 크기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물그릇을 만들어 말리거나 굽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릇은 수축되면서 전과 몸체가 변형되는데 특히 전의 변형이 심하다. 이렇게 전이 휘어지고 구부러지는 현상을 "뒤틀림(회곡)"이라 부른다.

그릇의 높이 또는 지름이 30cm 이상이거나, 아가리가 몸체보다 더 크고 바라진 그릇 또는 그릇살이 얇은 그릇은 뒤틀림되기 쉽다. 이 경우 전을 몸체 부분에 가깝게 하면 전이 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 전을 몸체에 완전히 겹쳐 붙쳐서 전의 두께가 벽 두께의 2배 정도가 되도록 도톰하게 만든 전도 있는데, 이것을 "겹전"이라고 한다.

겹전은 전이 너무 얇아 그릇의 전체 모양새가 볼품없이 보인다든가, 또는 전 부분을 둥글게 말아서 한층 보강하려거나, 큰 그릇에서 전이 넓게 보이게 하려고 할 때 많이 쓰인다. 따라서 겹전은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그릇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두루 쓰인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접시, 종지기, 밥공기, 대접, 술병처럼 상에 올려 쓰는 작은 그릇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그림 1-①, ②, ③의 전은 뒤틀림현상을 방지하려는 것과는 관계가 적으며, 오늘날 그릇이 작거나, 입구가 그릇의 크기보다 작은 것, 그릇의 크기에 비해 살 두께가 두꺼운 그릇들에 많이

〈사진 1〉 무늬의 일부가 시계방향으로 일그러진 모습

〈사진 2〉 무늬의 일부가 시계방향으로 일그러진 모습

쓰인다. 이러한 그릇의 전들은 대부분 "홑전"으로 만들어진다. 홑전은 성형이 정상으로 마무리되어 보강할 필요가 없을 때, 또는 그릇의 크기가 작거나 술이나 음식 따위를 담는 그릇들에 많이 쓰인다.

그러므로 그림 1-①, ②, ③과 같은 전의 그릇은 크기가 대체로 작고 입구가 작은 것이고, 그림 1-④, ⑤와 같은 전을 가진 그릇은 크기가 큰 항아리이거나, 떡시루처럼 입구가 큰 그릇으로 추정된다.

3. 전의 장식성과 기능성

앞에서 전의 휘임새, 곧 옆 모습이 얼마나 기울어졌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테두리 안에서의 다양한 생김새 곧 전의 표정(그림 2~6)에 대해 검토하겠다.

전의 모습은 전을 마무리할 때 양 손으로 물가죽을 잡고 전 부분을 감싸쥐고 있으면 물레가 회전하면서 전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그릇을 사용하면서 손을 다칠 염려가 없고 또 충격에 잘 견디는 잇점과 장식의 효과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전의 표정이 다양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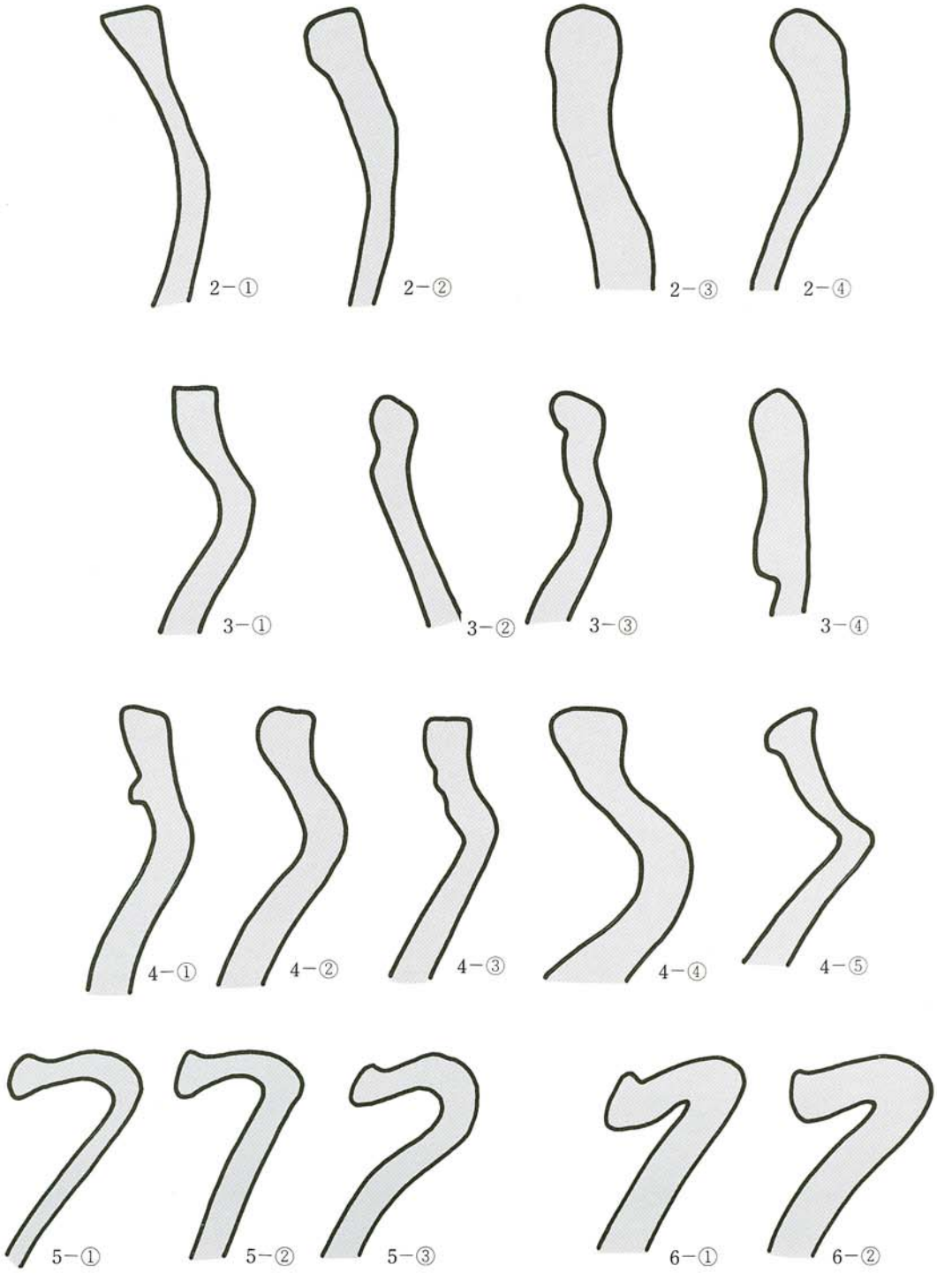
그림 2-①은 곧은 전의 윗 부분만 매끈하게 처리한 것이고, 2-②는 안쪽에 자리한 엄지와 검지에 약간의 힘을 주어 홈이 생기게 하였다. 2-③은 그릇의 바깥쪽에 있는 손의 손가락에 힘을 주어 모양을 냈다.

그림 3-②는 그림 그림 2-②의 상태에서 바깥쪽 손과 안쪽 손 모두를 사용하여 약간 구부러지게 하였고, 그림 3-③, ④는 전의 단면이 귀처럼 약간 도톰하면서 둥글고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그림 4의 ①은 전의 아래 부분을 바깥쪽 손을 이용하여 덧띠가 만들어지게 하여 전을 한층 보강하였다. 그림 4의 ②, ③, ④, ⑤는 안쪽 손놀림으로 변화를 주었다. 그리고 전의 가장 윗 부분은 약간 두껍게 하여 전을 튼튼하게 한 인상이 짙다. 4의 ⑥은 전의 윗 부분을 눌러주어 윗 부분만 약간 도톰하게 보강하였다. 그림 5의 ①, ②, ③은 그림 4의 ⑥상태에서 바깥쪽으로 더욱 구부렸으며, 그림 6의 ①, ②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심하게 구부린 것이다.

그림 2, 3, 4와 같은 전은 그릇이 뒤틀림 되어질 가능성이 적은 작은 그릇들이어서 그런지 전의 장식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그림 5, 6의 전은 그릇이 커지고, 뒤틀림이 염려되는 관계로 장식성보다는 기능성에 더욱 신경쓴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문흥동 유적에서 나온 질그릇의 전을 대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았다. 문흥동의 질그릇 전은 크게 곧은 전, 바라진 전, 꺽인 전, 구부러진 전, 맞닿은 전으로 나뉘는데, 이것들은 물레 성형시 그릇 안쪽에 자리한 손의 엄지와 검지의 힘 주기에 따라 모양이 정해진다. 다양한 전의 휘임새는 무엇보다도 그릇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당시 도공은 큰 그릇의 전은 기능성에, 그리고 작은 그릇의 전은 장식성에 더 마음쓴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6〉 질그릇 전의 다양한 표정

고찰

자기의 성격
유적의 성격

자기의 성격

1. 자기 출토 현황

문흥동택지조성지구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자기의 종류는 분청사기와 백자이다. 이 가운데 자기의 종류별 개체 수는 〈표 1〉에서처럼 분청사기가 백자보다 약 2배쯤 많다.

표 1. 유구별 분청사기와 백자의 개체수

자기＼유구 :	1	2	3	4	5	모듬
분청사기	28	32	34	0	5	99
백　자	4	16	13	0	18	51
모　듬	32	48	47	0	23	150

분청사기는 상감·인화·박지·조화·귀얄·덤벙기법으로 표면이 장식되어 있으며 철화기법은 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제작기법에 따른 제작양은 〈표 2〉에서와 같이 덤벙과 귀얄, 인화분청사기 순이며 상감이나 박지기법은 극소수이다. 이외에 조화기법으로 무늬가 베풀어진 분청사기도 출토되었다. 대체로 대형 발이나 단지·병 등 비교적 큰 그릇에 베풀어져 있는데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정확한 개체 수의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대접과 접시 가운데 바탕흙이나 유약은 분청사기와 같으나 백토분장이 되어있지 않은 것이 상당수 출토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가마터 조사에 의하면 분청사기 가마에서 함께 제작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분청사기에 포함시켰으며, 아직까지 적당한 명칭이 주어지지 않아 무문분청사기로 분류하였다.

백자는 분청사기의 1/2정도 출토되었다. 유약과 바탕흙의 색조는 설백색과 회백색 그리고 밝거나 짙은 회청색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릇의 종류는 대접과 접시류가 대부분이며 가마내에서 포개구이로 인한 받침자국이 굽이나 안바닥에 모두 남아있다. 받침의 종류는 바탕흙비짐·모래받침·모래비짐·굵은모래받침 등이며 모래비짐이 전체의 67%나 된다. 굽의 형태도 다양하여 수직굽·대마디굽·오목굽·납작굽 등이 있다. 굽의 형태와 포개구이를 위해 사용되는 받침에 의해 분류한 〈표 3〉에 의하면 모래비짐에 수직굽(Ⅰ, Ⅱ, Ⅲ식)이 전체의 반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2. 분청사기 그릇꼴별 무늬넣기의 구분

	인 화	박 지	조 화	귀 얄	덤 벙	무 문	모 듬
대접·접시	4	0	0	7	30	26	67
바래기	0	0	0	0	1	0	1
마상배	0	0	0	0	4	0	4
병	0	0	2	2	0	0	4
편 병	0	0	1	0	0	0	1
발	0	0	0	9	0	1	10
단 지	0	0	0	2	0	0	2
항아리	1	0	0	0	0	0	1
뚜 껑	1	0	0	0	0	0	1
기 타	2	1	4	0	0	1	8
모 듬	8	1	7	20	35	28	99

표 3. 굽 종류에 따른 받침 재료의 선호도

		모래비짐	바탕흙비짐	고운모래받침	굵은모래받침	모 듬
바라진	(Ⅰ)	1	1	0	0	2
곧은	(Ⅱ)	13	0	0	0	13
오므라진	(Ⅲ)	11	0	1	0	12
대마디	(Ⅳ)	7	0	0	0	7
오목1	(Ⅴ)	0	9	0	0	9
오목2	(Ⅵ)	0	4	0	0	4
납작	(Ⅶ)	0	0	0	1	1
모 듬		32	14	1	1	48

2. 종류별 성격 및 제작 시기

가. 분청사기

분청사기는 그릇의 장식기법에 따라 상감·인화·박지·조화·귀얄·박지분청 등이 있으며, 그릇의 종류는 대접·접시·마상배·항아리·단지·발·뚜껑 등이 있다. 이들 분청사기는 그릇면의 무늬표현 기법과 분장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그 성격을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1) 상감기법 : 상감기법으로 무늬가 베풀어진 분청사기는 뚜껑으로 여겨지는 작은 조각이 한점 있다. 인화기법에 의한 국화문과 함께 당초문이 상감된 이 뚜껑은 각각의 무늬가 매우 정성스럽게 베풀어지고, 바탕흙 또한 치밀질에 밝은 회청색을 띠고 있어 당시로서는 고급질의 분청사기임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상감기법의 분청사기가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광주 무등산록의 충효동가마터(사적 141호)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제작시기는 상감과 인화분청사기의 절정기인 15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2) 인화기법 : 인화분청사기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 유약과 바탕흙이 밝은 회청색을 띠며 무늬 구도가 안정되고 인화시문 후의 백토분장이 깔끔하게 처리된 것이다. 그릇의 종류는 대접과 접시·항아리 등이 있으나 수편에 불과하다. 그릇 전면에 여백이 없이 무늬가 가득 베풀어져 있으며 무늬 이외에 입혀져 있는 백토를 완전하게 닦아내어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나 보인다.

접시 가운데 굽안에 명문이 새겨진 것이 있다. 굽다리가 단정하게 깎여지고 포개구이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 고급품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굽안에는 "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굽안에 명문이 음각된 예는 앞서 설명한 충효동가마터에서 수 많은 예를 찾아 볼 수 있으며 당시 그릇을 만들었던 사기장의 이름으로 추정되고 있다(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1993, 142~153).

이런 유형의 분청사기는 제작방법과 유태 그리고 명문의 위치와 새기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때 충효동가마에서 제작된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제작시기는 상감기법에서 살펴본 뚜껑과 같은 시기인 15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된다.

둘째 : 유약과 바탕흙의 색이 녹청색이나 녹갈색 등 어두운 색을 띠며 바탕흙에 가는 모래알갱이가 섞여 있는 것이다. 무늬는 작고 치밀한 국화문 대신 성긴 국화문이나 승렴문 그리고 와선문이 베풀어지며, 대접과 접시의 한쪽면에 무늬가 없거나 각 무늬대 사이에 여백이 있다.

무늬는 도장과 같은 시문구로 그릇면에 찍은 후 그 위를 귀얄로 백토분장하였는데 무늬 이외의 백토를 잘 닦아내지 않아 백토가 남아있거나 귀얄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포개구이로 인한 모래비짐눈 흔적이 대접과 접시의 굽과 안바닥에 남아있으며 굽다리는 거칠게 깎여진 대마디굽이 있다.

이와같은 계통의 인화분청사기 가운데 편년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분청사기인화「德寧府」명대접이 있다. 덕녕부는 魯山君(端宗)에 관한 일을 관장케 하기 위해 세조원년(1455)에 세워 단종이 죽은 해인 1457년에 폐지되는 관청으로 덕녕부의 명문이 있는 자기는 편년설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鄭良謨 1965).

덕녕부명 대접은 인화문 위에 백토 감입이 깨끗치 못하고 각 문양간의 구획선이 일정하지 못한

점 등 전성기의 인화분청사기보다는 기면 처리에 미숙한 점이 엿 보인다. 따라서 둘째 유형의 인화분청사기는 15세기 중엽 이후의 상황으로 이해되지만, 덕녕명부명대접에 비하여 무늬 처리방법이나 백토감입이 보다 거칠어지고 그릇면에 많은 여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보다 늦은 시기인 15세기 후반의 중엽으로 여겨진다.

3) 박지기법 : 박지기법으로 무늬가 베풀어진 것은 1점 뿐이며 항아리나 단지 등과 같은 큰 그릇의 작은 몸체 조각이다. 무늬는 모란의 잎으로 섬세하지 않고 백토분장 또한 고르지 않아 분장된 면에 농담의 차이가 심하다. 바탕흙은 거칠고 짙은 회색을 띠며 유색은 녹색조가 강하게 나타난다.

무늬의 형태나 표현방법 그리고 유약과 바탕흙 등이 광주충효동가마터에서 출토된 것과 같으며, 덕녕부명대접과 유사한 분청사기가 출토된 층위에서 함께 발견되고 있어(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 1993, 116~117) 15세기 중엽경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4) 조화기법 : 그릇의 종류는 병 · 편병 · 항아리 · 단지 · 제기 등이며 비교적 큰 그릇에 이용되었다. 조화분청사기는 여러 점이 출토되었으나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그릇의 종류나 전체 무늬형태, 개체 수의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체로 조화기법으로 표현된 무늬는 모란문 · 연판문 · 선문 · 뇌문 등으로 활달하게 베풀어져 있다. 이들 무늬 가운데 모란문이 그릇의 중심부분에 배치되는 주된 무늬이며 나머지는 어깨나 바닥 · 굽 · 편병의 측면 등에 부수적으로 새겨지는 종속무늬이다. 각각의 무늬는 사실적이거나 섬세함보다는 간단한 선에 의해 이루어진 도식적인 것이며 매우 성글게 표현되어 있다. 바탕흙은 회색이나 짙은 회색을 띠며 작은 모래알갱이가 섞이고, 유색은 녹색이 감도는 회청색을 띤다.

조화기법으로 무늬가 표현된 분청사기 가운데 편년에 기준이 되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광주충효동가마터의 퇴적층 층위조사에 의하면, 조화분청사기는 덕녕부명대접과 제작방법이 유사한 층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 1993, 111~118). 이 층위에서 출토된 것은 무늬 표현이 사실적이고 그릇 전면에 가득 무늬가 채워져 있어 문흥동에서 출토된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늦게 형성된 成化銘墓誌가 출토된 층위와 그 바로 아래층에서는 무늬가 성글고 간략화되며 백토분장이 거친 조화분청사기가 출토되었다. 성화명묘지는 앞면에 남아있는 글의 내용으로 보아 1477년부터 1483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국립광주박물관 · 광주직할시 1993, 150~151). 문흥동에서 출토된 조화분청사기 가운데 충효동에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몇 점 발견되고 있어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대체로 가장 이른 것은 1470년대를 전후한 시기로 생각되지만, 분청사기 쇠퇴기에 나타나는 귀얄분청사기 전용가마에서 제작된 것과 같은 조화분청사기가 발견되고 있어 16세기 전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생각된다.

4) 귀얄기법 : 그릇의 종류는 대접 · 접시 · 병 · 발 · 단지 등이 있다. 바탕흙은 회색이나 짙은 회색을 띠며 입자가 치밀하지 않고 대부분 잡물이 섞여있다. 그릇의 안팎면에 귀얄로 백토 분장하여 귀얄자국이 잘 남아있다.

대접과 접시의 굽다리는 대마디굽이며 굽을 깎는 솜씨가 매우 거칠다. 모두 포개구이되었으며 이를 위해 모래비짐눈이 이용되었다. 그릇 가운데 비교적 제작양이 많은 발은 아가리부분에 전이 있고 몸체에 조잡하게 만든 작은 손잡이가 붙어 있는 것으로 귀얄분청사기 전용가마터에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형태이다(국립광주박물관 1988).

귀얄기법은 15세기 후반부터 인화문 위에 귀얄로 백토를 슬쩍 바른 경우도 있지만 문흥동에서 출토된 것과 같이 무늬가 없이 단지 귀얄로만 백토분장된 것은 분청사기가 백자화 되어가는 과정이며 그 시기는 16세기 전반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같은 귀얄분청사기는 거의 전국적으로 제작되었으며 일반 서민용의 막사기 그릇으로 보인다.

5) 덤벙기법 : 분청사기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릇의 종류는 대접과 접시가 주종을 이루며 마상배와 바래기도 적은 양이 출토되었다. 백토분장은 대접과 접시의 경우 안쪽면 전체와 바깥면의 윗부분만 이루어져 굽주위는 바탕흙이 그대로 드러나 보인다. 유약과 바탕흙의 색은 짙은 회청색을 띠며 바탕흙에 많은 모래가 섞여 있다. 굽은 거의 대부분 대마디굽이며, 포개구이를 위한 모래비짐눈 흔적이 안바닥과 굽에 5~6개소 남아있다.

덤벙분청사기는 전남지방에서 특히 많이 생산되어 이지역 분청사기의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무늬가 없이 덤벙기법으로만 분장된 분청사기는 귀얄분청사기와 함께 표면이 백자화 되어가는 단계이지만 귀얄분청사기보다 늦은 시기까지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에 분포되어 있는 25기의 분청사기가마터 조사에 의하면 덤벙분청사기가 귀얄분청사기의 뒤를 이어 최후의 단계까지 존속하였으며 백자도 함께 제작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국립광주박물관 1991).

현존하는 편년자료에 의하면 덤벙분청사기가 귀얄분청사기보다 늦게 나타나고 또한 늦게까지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덤벙분청사기의 편년자료로 가장 이른 것은 1540년의 嘉靖19年銘墓誌가 있으며, 늦은 것으로는 1587년의 萬曆15年銘墓誌(山田萬吉郎 1936, 43~45)가 있다. 따라서 문흥동에서 출토된 덤벙분청사기는 귀얄분청사기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인 16세기 중 후반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나. 백자

백자는 개체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 가운데 약 34%를 차지한다. 그릇의 종류는 대접과 접

시류가 주종을 이루며 바래기·마상배·잔 등이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그릇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대접과 접시는 아가리부분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드물어 외형상의 특징보다는 굽다리의 형태에 따라 그 성격을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대접과 접시의 굽 종류는 크게 수직굽과 대마디굽·오목굽·납작굽으로 분류된다.

1) 수직굽 : 굽이 바로 선 형으로, 굽다리를 단정하게 깎아내어 접지면의 폭이 일정하고 굽안이 편편하다. 모두 27점이 출토되어 전체 대접과 접시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직굽은 다시 굽다리가 바라진 것(Ⅰ), 곧추 세워진 것(Ⅱ), , 안으로 오므라진 것(Ⅲ)으로 세분할 수 있다.

모두 포개구이되었으며 각 그릇사이의 받침으로는 모래비짐눈이 대부분이고 바탕흙비짐눈과 모래받침이 각각 한점씩 있다.

Ⅰ식은 바탕흙비짐과 모래비짐으로 받쳐 구운 대접과 접시가 각각 1점씩 있다. 정선된 백토로 만들어졌으며 접시는 유약과 바탕흙의 색이 청백색을 띤다. 형태나 제작방법이 광주충효동가마의 가장 윗층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하다.

Ⅱ식은 모두 모래비짐눈을 받치고 포개구이된 것이다. 굽안 처리가 단정하지 않고, 바탕흙이나 유색은 전반적으로 황색이나 회색조의 어두운 백색을 띤다. 모래비짐눈은 많은 경우 10여개까지 이용되어 안쪽면 바닥과 굽에 받침 흔적이 심하게 남아있다.

Ⅲ식은 굽다리의 단면이 도립사다리꼴 형태이다. 굽안처리가 깔끔하며 모래비짐눈을 받치고 포개구이를 하였다. 질이 좋은 백토를 이용하여 입자가 치밀하고 유약과 바탕흙은 청색이 감도는 밝은 회백색을 띤다.

수직굽의 백자는 경기도 광주의 경우 分院이 설치되던 15세기 후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지만, 문흥동에서 출토된 것은 백자의 제작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된 시기에 지방가마에서 생산된 것으로 광주백자와는 시기적인 차이가 예상된다. 그리고 지방백자의 굽형식이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수직굽과 대마디굽에서 오목굽으로 전환되고 있어 문흥동출토 수직굽백자의 제작시기는 16세기경으로 추정된다.

2) 대마디굽(Ⅳ) : 일반적으로 죽절굽이라고 부르며 굽다리의 모서리를 깎아 굽의 모양이 대의 마디처럼 보인다. 수직굽에 비하여 굽다리가 거칠게 깎여졌으며 굽안 중심부가 볼록하게 돌출되었다. 모두 모래비짐눈을 받치고 포개구이 되었다. 유태는 회색이나 황색이 가미된 어두운 백색이다.

대마디굽 백자는 기형이나 굽의 형태 그리고 포개구이를 위해 모래비짐눈을 이용한 점 등이 귀얄이나 덤벙분청사기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 또한 16세기 초까지 제작활동을 하였던 곳으로 여겨지는 광주충효동가마터에서는 대마디굽백자가 한점도 발견되고 있지 않아 그 제작시기는 16세기 중 후반경으로 추정된다.

3) 오목굽 : 굽안을 오목하게 깎아낸 것으로 안굽이라고도 한다. 굽다리와 몸체와의 경계가 뚜렷한 것(Ⅴ)과 불분명한 것(Ⅵ)으로 구분된다.

Ⅴ식 : 백자가 일반 서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막사기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굽의 형태이다. 굽다리가 안쪽으로 내경되며 접지면 폭이 일정하지 않다. 바탕흙비짐눈을 이용하여 포개구이 되었다.

바탕흙은 입자가 곱고 치밀하지만 전체적으로 청색이 감도는 짙은 회색을 띤다. 아가리부분이 바라지고 안바닥에 굽지름보다 넓은 둥근깎임이 있다. 오목굽은 17세기 초 경기도 광주군의 관요 주변 가마터의 회색이 짙은 백자에 나타나서 모래받침의 수직굽과 공존하다가 17세기와 18세기 중엽까지 제작되었다고 믿어지는 굽형태이다(尹龍二 1981, 47~48).

Ⅴ식 백자는 죽절굽백자의 다음에 나타나는 굽형태로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은 후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백자의 사용이 일반서민에게까지 보편화되는 17세기 전반경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Ⅵ식 : 굽다리와 몸체와의 구분이 없이 바로 이어지는 것으로 굽이 매우 거칠게 깎여져 있다. 굽안은 Ⅴ식에 비하여 얕게 깎여지고 납작굽에 가까운 것도 있다. 굽다리의 접지면 폭이 현저하게 차이가 지며 모두 바탕흙비짐눈으로 포개구이 되었다. 바탕흙이나 유색은 Ⅴ식보다 회색이 더 짙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백자를 생산한 곳으로는 1986년과 1987년 2차례의 발굴조사를 거친 승주군 송광면 후곡리 백자가마터가 있다. 이 가마터는 조사결과 17세기 후반까지 존속했던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崔淑卿 · 羅善華 1988, 181~184).

4) 납작굽(Ⅷ) : 굽안을 깎아내지 않아 바닥이 편편한 형태의 굽으로 1점이 출토되었다. 포개구이를 위해 굵은모래받침이 이용되었으며 유색과 바탕흙은 짙은 회색을 띤다. 이러한 굵은모래받침의 납작굽은 오목굽 다음에 나타나는 굽의 형태로 조선시대 지방백자의 마지막 단계인 18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

3. 고찰

문흥동택지조성지구에서 출토된 자기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분청사기와 백자이다. 이것들의 제작시기는 15세기 전반에서부터 18세기 후반까지로 시기 폭이 매우 넓다.

그러나 15세기 경의 인화분청사기와 17세기의 오목굽 백자는 전체 출토 양에 비하여 적은 부분인 반면, 16세기로 추정되는 귀얄과 덤벙분청사기 그리고 모래비짐눈의 수직굽과 대마디굽 백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16세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들 자기는 문흥동과 가까운 지역의 가마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체로 무등산 주변에서 제작활동을 하였던 가마에서 조달되지 않았나 여겨진다. 무등산에는 고려 말에서

부터 조선시대 18세기까지의 많은 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다. 특히 충효동 배제마을에서부터 광주호 상류의 버성골에 이르기까지 분청사기가마터가 집중 분포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화암마을이나 담양 경양마을 등에 17~18세기의 대마디굽과 오목굽 백자가마터가 분포되어 있다(조재호 1988, 347~370).

실제 이곳에서 제작된 자기와 매우 흡사한 것들이 문흥동에서 출토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15세기 전반 전성기의 상감·인화분청사기와 15세기 중 후반경의 조화·박지·인화분청사기, 그리고 수직굽의 백자 등의 예가 광주충효동가마터(사적141호)에서 수 없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16세기 대마디굽의 백자도 화암마을 백자가마터에서 출토된 것과 제작방법이나 유색 등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문흥동출토 자기는 실생활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각종 도자기의 공반 관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분청사기와 백자의 경우, 같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백자가 더욱 정성스럽게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출토된 양도 분청사기의 1/2정도의 수준이다. 이러한 점은 16세기까지 실생활에 사용된 자기가 백자보다는 분청사기 위주였으며, 당시까지 백자는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은 귀한 자기였음을 시사해 준다.

참 고 문 헌

조재호, 1988.〈陶窯址〉《無等山》347~396.

국립광주박물관, 1988.《全南地方 陶窯址 調査報告》1~236.

국립광주박물관, 1991.《고흥 운대리》1~187.

국립광주박물관·광주직할시, 1993.《무등산 충효동 가마터》1~459.

尹龍二, 1981.〈朝鮮時代 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硏究(二)-廣州 一帶 陶窯址를 中心으로-〉《考古美術》151, 46~59.

鄭良謨, 1965.〈粉青沙器 印花文대접 試考〉《歷史學報》27, 143~164.

崔淑卿·羅善華, 1988.〈後谷里 白磁 陶窯址〉《住岩댐 水没地域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V, 161~235.

山田萬吉郎, 1936.〈萬曆銘三島墓誌〉《茶わん》6-3, 43~47(寶雲舍).

유적의 성격

이기길

문흥동유적은 1992년 여름에 43일간에 걸쳐 발굴되었다. 광주시는 이 유적을 고인돌과 삼국시대 또는 그 보다 앞선 시기의 경질토기산포지로 보고 우리박물관에 발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발굴 결과 고인돌은 자연돌을 잘못 본 것이며, 경질토기산포지는 조선시대 전기의 살림터, 그리고 건축자재와 생활용기를 버린 곳으로 나타났다.

이 유적의 조사로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는 조선시대의 폐기구덩이를 찾았고, 또한 기와, 전돌과 질그릇, 옹기 등이 시기를 알 수 있는 자기가 함께 나와 조선시대 전기의 건축자재와 그릇갖춤새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얻었다.

1. 유물갖춤새의 성격

경질토기산포지로 추정된 포도밭 지역(남북 약 100m, 동서 약 50m)에서 5개의 유구가 드러났다. 각 유구에서 나온 유물은 거의 전부 깨진 조각이었고, 다만 기와에서 온전한 것이 몇 점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일정한 크기 이상의 조각을 보고 대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수는 1,690점이다(표 1).

표 1. 각 유구별 유물의 종류와 갯수

유구＼유물 :	기 와	전 돌	질그릇	옹 기	자 기	모 듬
1호	24	0	43	13	32	112
2호	428	20	186	34	48	716
3호	388	32	289	42	47	798
4호	15	0	19	2	0	36
5호	1	0	3	1	23	28
모듬	856	52	540	92	150	1690

표 1에서 보듯이 유물의 상당수는 2호와 3호에서 나왔다. 이것은 폐기물을 기단 아래 낮은 곳과 그 남쪽끝에 이어서 판 구덩이에 버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같은 사정은 2, 3호의 자기가 한 시대의 것들이며, 또한 2, 3호에서 붙는 유물이 20여점 찾아진 사실로 설명된다.

아래에서 유물의 종류별로 그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가. 기와와 전돌

기와는 유물 가운데 가장 많다. 그러나 거의가 깨진 조각이며 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은 암키와 9점과 수키와 1점 뿐이다. 분석한 갯수는 856점이며, 이 가운데 암키와의 양이 수키와의 1.5배쯤 되지만 이것이 본래의 구성 비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부분 2, 3호에서 나왔다.

기와의 종류는 암키와와 수키와 뿐이고, 막새나 망새 같은 기와는 나오지 않았다. 수키와는 언강과 미구가 있는 미구기와이며, 등면에 못구멍은 없다.

암키와의 평균길이는 43.4cm로 오늘날의 대와보다 크지만, 평균너비(29.9cm)와 평균두께(2.3cm)는 중와에 가깝다. 그러나 수키와의 크기(43.6×17.0×2.9cm)는 대와보다 더 크다.

암키와 가운데 경질은 약 43%를 차지하는데 모두 회청색이다. 연질 암키와의 양은 약 57%이며 적갈색이나 회갈색이 많고 황갈색은 드물다. 수키와 역시 경질과 연질로 나뉘는데, 약 86%가 경질이다. 경질 수키와는 회청색뿐이지만, 연질 수키와는 회흑색이나 적갈색, 또는 회갈색을 띤다.

암키와와 수키와의 속면에는 베자국(포목흔)이 뚜렷하고, 등면에는 무늬가 넣어져 있으며 옆면에는 자른 자국이 남아있다. 암키와에는 무늬뿐 아니라 글씨(명문)가 찍혀있다.

글씨는 모두 세 가지이며 왼쓰기(左書)를 한 것이다. 이 가운데 "成化"는 1465~1487년을 가리키는 명나라 연호로서 조선의 9대 임금인 성종(成宗) 연간에 해당한다.

이 성화명 기와가 2호 유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유구에서 사람이 살았던 시기의 한 동안이 바로 15세기 후반임을 알 수 있다.

기와의 글씨와 무늬는 모두 찍기 수법으로 넣어졌다. 무늬의 종류는 생김새에 따라 물고기뼈무늬, 사내끼무늬, 파도무늬, 풀무늬, 결은무늬, 별빛무늬, 꽃무늬, 마름모나란선무늬, 겹마름모무늬, 빗금나란무늬, 田무늬, ▨무늬, ▩무늬로 나뉜다. 이들 무늬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심지어 세 가지 무늬가 함께 한 기와에 도안된 것이 있으나, 보통 두 가지 무늬가 넣어진 기와가 많다.

수키와에 넣어진 무늬의 종류는 암키와보다 적지만 새로운 무늬도 있다. 곧 물고기무늬와 별빛무늬, 파도무늬, 꽃무늬와 파도무늬, 동심원무늬, 빗금나란무늬, 무지개무늬, 田과 결은무늬 그리고 무늬없는 민짜가 수키와의 겉면을 꾸몄다. 수키와와 암키와에서 많이 쓰인 무늬의 종류는 田무늬, 물고기뼈무늬, 결은무늬 이다.

전돌은 2, 3호에서만 나왔는데, 두께를 잴 수 있는 52점을 분석하였다. 온전한 것이 없어 본래 모양을 알 수 없지만, 정사각형으로 여겨진다. 한 변의 평균 길이가 21.2cm이고, 두께는 3~5cm 안팎이다. 굳기는 모두 경질이며 51점이 회청색이다. 겉면은 물손질로 매끈하게 하였으며 무늬는 없다. 보고 대상에서 빠진 것 가운데 불에 타서 그을은 전돌이 4점 있다.

기와와 전돌을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고 X-선회절분석으로 살핀 결과 경질은 1200℃이상에서

그리고 연질은 1000℃이하에서 구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와나 전돌의 재료는 1mm이상의 큰 결정이 많아 거친 물질을 썼고, 또 기포(공극)가 커서 반죽도 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모난 석영과 각섬석이 흔한 점에서 덜 풍화된 잔류토양이나 원지성 토양에서 재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질그릇과 옹기

질그릇은 기와 다음으로 많은데, 역시 깨진 조각들이며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분석한 갯수는 540점이다. 아가리와 바닥의 수량은 100점쯤으로 비슷하나 몸 조각은 이들보다 3배쯤 된다. 몸 조각에는 33점의 가로띠잡이가 포함되어 있다. 뚜껑은 11점이다.

이것들은 2호와 3호에서 주로 나왔다. 그런데 1호와 3호에서 나온 그릇 조각 두 점이 서로 붙어, 두 유구가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 같은 시기에 이용되었음을 알려준다.

질그릇의 크기는 부분별 크기를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입지름은 16~27cm짜리와 28~41cm짜리가 각각 45.2%와 47.1%를 차지한다. 바닥은 지름이 13~22cm짜리가 81.8%이며, 벽 두께는 0.4~0.6cm인 것이 55.2%나 된다. 따라서 바닥보다 아가리가 큰 그릇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릇 가운데 연질이 경질보다 조금 더 많다. 경질은 대부분 회청색과 회색이고, 연질은 상당수가 회색이다.

편광현미경관찰과 X-선회절분석 결과를 보면, 경질이나 연질의 차이는 원재료가 달라서가 아니고 구운온도의 높고 낮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질은 1200℃이상에서, 연질은 1000℃쯤에서 구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질그릇은 0.03mm쯤의 광물이 많아 기와나 전돌보다 더 고운 생질을 재료로 썼으며, 기포가 아주 작아서 반죽이 잘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차로 모인 점토광물이 많고 각섬석이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하여 쌓인 토양 그리고 풍화가 잘 된 토양에서 재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릇꼴은 전, 몸, 바닥 그리고 뚜껑의 생김새 특징으로 본래의 모습을 짜맞출 수 있다. 전은 크게 꺾인전, 바라진전, 곧은전으로 나뉘는데, 이 중 꺾인전이 67.3%로 가장 많고 바라진전은 27.9%이며, 곧은전은 4.8%로 매우 적다. 꺾인전은 가로 휘임새로 보아 지름이 큰 편이다. 요즈음에도 큰 그릇은 말리거나 구울 때 그릇꼴이 틀어지기 쉬운데, 이를 막는 방법으로 전을 벽에 수직되게 또는 붙을 만큼 가깝게 만든다고 한다.

몸은 전에서 밋밋하게 내려오는 것과 바라지는 것으로 나뉘며, 몸 조각에는 가로띠잡이가 33점 포함되어 있다. 겉면에는 두들긴무늬, 새긴무늬, 덧무늬가 넣어져 있으며, 물손질로 매끈하게 된 것도 있다. 이 가운데 두들긴무늬는 73.5%나 되지만, 새긴무늬와 덧무늬는 8.7%, 2.9%에 그친다. 이로 볼 때 질그릇의 겉면은 매우 소박하고 수수하였다고 생각된다.

바닥은 오늘날 독의 바닥과 생김새가 같다. 뚜껑과 꼭지는 크기나 생김새로 보아 대접, 뚝배기 또는 질밥솥의 뚜껑 정도로 여겨진다. 뚜껑의 겉면은 물손질된 상태이며 무늬는 없다.

꺾인전과 가로띠잡이 그리고 전에서 밋밋하게 내려오는 벽은 시루 모양의 그릇, 그리고 바라진 전과 볼록한 몸 조각과 가로띠잡이는 단지나 항아리의 조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입지름의 크기는 크게 13~27cm짜리와 28~42cm짜리, 그리고 45~65cm로 무리지워지고, 바닥의 지름은 10~28cm 크기이다. 그릇의 생김새나 크기를 고려할 때, 질그릇은 병이나 대접, 접시처럼 작은 그릇이 아니고 주로 중형과 대형의 그릇류였다고 여겨진다.

이같은 질그릇은 물레 위에서 만들어졌음이 명백한데, 그렇다면 도공은 어떤 방향으로 물레를 차면서 그릇을 만들었을까? 이것은 그릇 겉면의 여러 자국, 특히 무늬가 지워지거나 밀린 방향으로 헤아릴 수 있는데, 몇 점의 유물에서 무늬가 오른쪽으로 밀린 자국들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물레가 왼쪽으로 곧 시계바늘의 반대 방향으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옹기점에서도 물레를 왼쪽으로 돌아가게 차고 있어, 전통이 이어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옹기는 모두 깨진 조각으로 완전한 것은 없다. 일정한 크기 이상의 것을 다루었는데, 그 수는 92점이다. 이 가운데 몸이 80점이고, 바닥은 9점이며 아가리는 3점이다. 옹기는 다른 유물과 마찬가지로 2, 3호에서 대부분 나왔다.

옹기의 아가리지름은 15~25cm 이고 바닥지름은 14~30cm, 그리고 몸 조각으로 본 배지름은 24cm, 36cm로 나타나며, 살두께는 0.5cm 정도가 많다. 한편 몸 조각의 옆모습은 상당수가 곡선이며 가로띠잡이가 붙은 것이 1점 있다. 이 점에서 문흥동유적의 옹기 조각은 거의가 단지나 항아리 종류였다고 생각된다. 이것들의 반 정도는 무늬가 없고 나머지는 두들긴무늬 또는 새김무늬로 꾸며져있으며, 색깔은 녹두색이 많고 밤색과 흑갈색은 적다.

다. 자기

자기는 분청사기와 백자인데, 모두 깨진 조각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는 조각을 붙여 제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다. 다행히도 자기는 어느 종류보다도 매우 활발하게 연구된 편이어서, 조각일지라도 굽이나 전의 특징과 무늬의 종류만으로도 본래의 그릇꼴을 상당한 정도 가늠할 수 있고 또 시기 추정이 가능하다.

그릇꼴을 알 수 있는 개체수는 모두 150점이며, 이 가운데 분청사기는 99점, 백자는 51점이다. 2, 3호에서 48점과 47점이 나왔고, 1호에서 32점, 그리고 5호에서 23점이 나왔다. 2와 3호 유구에서 나온 자기 가운데 서로 붙는 것이 20점이다.

분청사기의 종류는 대접·접시, 바래기, 마상배, 병, 편병, 발, 단지, 항아리, 뚜껑 인데, 이 가운데 대접·접시가 6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1%를 차지하는 발이다. 나머지 종류는 1~4점에

불과하다. 백자에서도 대접·접시가 절대 다수이며, 마상배와 바래기 그리고 잔은 1점씩이다. 이처럼 자기류는 작은 그릇 종류로 이뤄져있다.

분청사기는 겉면을 덤벙, 귀얄, 인화로 꾸민 것이 대부분이고, 상감이나 박지로 장식한 것은 아주 드물다. 한편 백토분장이 되지 않은 무문도 적지 않다. 백자는 굽과 받침이 여러 가지이나 모래비짐에 수직굽이 반이나 된다.

2. 유적의 시기와 성격

경질토기산포지에서 드러난 유구는 모두 5개이며, 여기서는 기와와 전돌, 질그릇, 옹기와 자기 그리고 큰 바위와 돌멩이들이 나왔다. 유구 가운데 특이한 것은 3호로서 이것은 긴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폐건축자재인 기와, 전돌, 큰 바위와 돌멩이들 그리고 생활용기인 질그릇, 자기, 옹기 등을 묻은 것이다. 한편 1호는 여러 개의 적심석이 드러나서 집터였음을 알 수 있고, 2호는 돌멩이를 2~3줄 쌓은 기단이며, 5호는 유물의 종류와 분포 특징으로 보아 폐기터로 여겨진다. 그러나 4호는 불분명하다.

여기서 자기류의 형식에 따른 시기 구분을 참고하여 유구별 시기를 가늠해보면 다음과 같다. 1호 유구에서 나온 분청사기의 상당수는 16세기에 유행한 덤벙, 귀얄 기법으로 겉면이 꾸며져있으며, 15세기 전반의 것으로 보이는 박지기법의 모란잎무늬 조각도 있다. 2호 유구의 분청사기는 대부분 16세기에 널리 쓰인 조화, 귀얄, 덤벙 기법으로 장식되었고, 1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상감기법의 뚜껑 한 점이 함께 나왔다. 한편 백자는 거의가 수직굽과 대마디굽인데, 이 형식은 16세기에 나타난 것이다.

3호 유구의 자기갖춤새는 2호와 거의 같고, 또 2, 3호에서 나온 자기 가운데 서로 붙는 것이 10쌍이나 되어, 두 유구의 자기류는 같은 시기의 것임을 알 수 있다. 5호 유구에선 백자가 분청사기보다 더 많다. 분청사기 5점 가운데 4점이 무문분청사기이고, 백자는 상당수가 오목굽인데 이같은 변화는 17세기에 널리 나타난다.

이렇듯 자기류의 형식을 기준하여 1, 2, 3호는 주로 16세기 그리고 5호는 17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붙는 유물이 1, 2, 3호 유구에서 나와, 세 유구는 동일한 사람들에 의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세 유구의 시기는 "성화"명 기와와 자기류의 형식을 기준하면, 15세기 전반부터 16세기 후반에 걸친 것으로 나타난다. 성화명 기와는 집이 지어진 때 그리고 대부분의 자기가 16세기의 것이므로 그 동안 살림이 이어지다가 16세기 끝 무렵에 폐기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럴 경우 15세기 전반의 자기는 집주인이 문흥동으로 옮겨올 때 갖고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와와 전돌 가운데 불에 그을리거나 타서 터지거나 깨진 조각들이 있고, 3호 유구에 이웃한 동남쪽에 3호 유구의 바닥면보다 좀더 높은 위치에서 드러난 숯깔린 면 그리고 시굴구덩에서 드문드문 나오던 숯 조각들은 여기에서 화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1465~1487년의 어느 때에 백자와 분청을 쓸 수 있는 계층의 사람이 문흥동에 기와집을 짓고 살다가, 16세기 말에 집이 불에 타서 구덩이를 파고 못쓰게 된 건축자재와 생활용기를 버렸던 것으로 정리된다.

3. 맺음글

문흥동 유적을 발굴조사한 결과 다음 몇 가지 점을 밝힌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문흥동 유적을 남긴 사람은 1465~1487년의 어느 해에 여기에 와서 기와집을 짓고 살다가, 16세기 말에 집이 불에 타서 폐기하였다. 그러므로 이 곳에서 약 130여년간 존속하였고, 여기서 나온 생활용기는 한 집에서 약 4대에 걸쳐 사용된 양으로 생각된다.

둘째, 조선시대 전기의 기와나 전돌, 그리고 질그릇이나 옹기에 대해서 별로 밝혀진 바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유물이 16세기 전후의 자기류와 함께 나오므로, 조선 전기의 기와, 전돌, 질그릇 그리고 옹기가 어떤 모습이었는 가를 알 수 있다.

세째, 조선시대에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널리 쓰였다고 일반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사실은 자기와 더불어 도기 곧 질그릇이 많이 쓰였고, 또한 옹기도 사용되었음을 일깨워준다. 이처럼 조선 전기의 그릇갖춤새는 분청사기와 백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사용되었던 질그릇과 옹기로 이뤄져있었고, 이것들은 서로 쓰임이 달랐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자기류는 대개 대접이나 접시, 병, 잔 처럼 작은 그릇이었고, 질그릇과 옹기는 단지나 항아리 또는 시루 모양의 중형, 대형의 그릇이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기류는 주로 음식상에 올리는 그릇으로, 그리고 질그릇과 옹기는 부엌, 장독과 창고에서 음식이나 곡물, 장류, 젖갈, 마실물 등을 담아두는 그릇으로 그 쓰임새가 나뉘어져 있었을 것이다.

네째, 자기류는 그릇꼴이나 무늬, 유색의 특징으로 볼 때 광주시 북구 충효동이나 화암동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연과학방법으로 광물조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질그릇과 기와, 전돌의 재료는 문흥동 주변에서 마련될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유적의 주인공은 생활용기와 건축 자재를 근방에서 구하여 생활하였음을 헤아릴 수 있다.

English Summary of Excavation Report
Munheung-Dong Site

Munheung-Dong site is located in Kwang-Ju City, Korea. This site was excavated by the members of Cho-Sun University Museum for 43 days in summer, 1992.

As the result of the excavation, a tile-roofed habitation residue, a stylobate, and a waste pit(of 8m length about 2m width, and 0.5m depth) were revealed, together with roof tiles, tiles, potteries, Ong-Gi(earthenwares), Punch'ong wares, and white porcelains. Roof tiles on which the chinesse characters "成化" are impressed were found among the artifacts, which represent in the regin-style of Ming dynasty extending from 1465 to 1487. On the other hand, the porcelain can possbly demarcated, according to the styles, into the period from the early 15th century to the late 16th century.

It is judged that three structures were made by the same persons(family), as some of these artifacts discovered in the habition residue, the stylobate, and the wasted pit are fitted neatlry each other. The burned pieces of roof tiles and tiles, and charcoal-burned level(of 1.7m length and 0.97m width) prove that there was a fire.

It is supossed that the period of these three structures ranges from the early 15th century to the late 16th century, if we refer to the production period of "成化"-titled roof tiles and the porcelains. The "成化"-titled roof tiles represent the times when the house was built, and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orcelains made in the 16th century dose the period while the living at this place continued.

On the other hand, the porcelains made in the early 15th century were possibly brought by the owner when his family moved to the hous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is site is in the place where a class using white porcelains and Punch'ong wares built the tile-roofed house and lived until the 16th century, and abandoned, after digging a pit, the building materials and the living wares when a fire broke out.

KwangJu Munheung-Dong Site

Archaeological Excavation Report
of Chosun University Museum
Vol. 1

1994

Chosun University Museum

KwangJu, Korea